

원저 서문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매달 불우한 이웃을 위한 정기지출액 외에 또 다시 거금을 들여 증정용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거의 3개월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한 노력들을 정리해 이러한 도움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저와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 동료들은 피땀을 모았습니다. 모두 수공으로 찍어 겨우 책으로 만들었고, 특히 무척 바쁠 때 승몽록패공사(承蒙錄霸公司)에서 고급인쇄기계를 보내주셔서 순조롭게 8천 권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거의 매일 새벽 서너 시가 되셔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책은 그다지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니나 여러분들께서 읽게 되더라도 별로 해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읽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가까운 친구에게 주거나 내버려도 좋습니다.

어떤 책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쓸모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종이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거나, 불경의 신화나 코란의 경전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썼다는 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따지기 힘든 내용들이지요. 아마 이 책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혹여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면, 더 이상 읽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고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의심해도 영원히 답은 없을 것이며, 글을 쓴 저 자신조차도 사실이 이렇다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똑같이 더 이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진리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지, 힘든 운명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그 약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같은 이치로,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글쓴이의 신분이 어떤지, 내용의 진위를 가늠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남의 일에 대한 잘잘못을 입에 오르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 또한 그들에 의해 잘잘못이 가려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순금은 불에 달구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저희들은 마음을 비우고 각계에서 날아올 엄한 비판을 달게 받겠사오니 부디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이 책이 당신의 앞 길에 한 조각 밝은 등불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자 근식

덧붙이는 말

이 책의 원고는 글쓴이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힘들게 완성한 터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 원고의 교정에 참여해 주시고 멀리서 우편으로 가르침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의 연락처 : 407臺中市東海大學郵政第119號信箱 陳女士收

원저 보충편¹⁾서문

이 자그마한 책자는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언나니》의 보충편입니다.

저희들은 이 책에 여러 편의 짙막한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간 저희들이 공무집행과정에서 대외공개를 금지했던 귀신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저희들이 입에 올려서도 인정해서도 안 되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이들은 쉽게 민심을 동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방 삼십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들은 개방된 민주화의 자유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금기시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잔인한 모함살인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진정 명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미혹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거의 사건들을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독자여러분들과 더불어 사람마다 모두 혈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1) 역자주: 본서의 〈쓸모없는 사람〉 이후 열 네편의 글은 원래 따로 보충편으로 나온 것이나, 번역 과정에서 그것을 합쳤다.

너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깨달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사회가 폭력과 눈물로부터 평안과 화합으로 나아가, 앞으로는 상대가 죽고 내가 사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겨누는 칼을 놓음으로써, 바로 성불하며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길 기원합니다.

번역에 들어가며

이 책은 저자의 한평생 삶에 대한 노력을 그대로 담은 글로서, 저자는 1939년 대만에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거쳐 올해 일흔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책은 저자께서 십여 년 전에 자신의 투병기를 쓴 것을 시작으로, 몇 년에 걸쳐 써진 것이며, 그녀의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까지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저자가 만든 자선단체인 대만의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에서 증정용으로 출간된 이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동참하여 재판을 거듭해 2006년에는 제17판8쇄를 찍어 총 출판부수가 삼십 이만부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 의해 중국관련 인터넷상에 자발적으로 전자책으로 유포되어, 실제로 책의 내용을 접한 독자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여러 해에 걸쳐 쓴 문집으로, 각 단편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간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본 번역판은 원저의 보충편을 통합하였는데, 이 책의 〈쓸모없는 사람〉 이후 열네 편의 글은 원래 보충편으로 나온 것으로, 저자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직접 생사를 넘나든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과정에서 지면을 줄이고자 인쇄비 후원자들과 일행자선의 집 가족들의 명단이 빠졌습니다.

끝으로, 이런 자비로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저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일행자선의 집 가족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증정용 책의 의미를 십분 이해하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해주신 자유아카데미 주정희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자란 번역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가족들에게 고마움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초고를 봐주시고 조언을 주신 가족들과 문덕희 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소개

글쓴이 첸즈루는 지금 72세이며, 민국 28년(1939년) 타이완의 타이중시(臺中市)에서 태어났다. 출생 당시 골수의 조혈기능 상실로 생존가망이 없는 사산아로 진단받았다. 그 후, 외조부모님의 가산을 팔아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으며, 위기막급한 가냘픈 목숨을 겨우 보전해왔다. 초등학교에 진학하자 배가 임신부처럼 부어올라 수술대에 눕게 되었다. 10살이 되었으나, 어려서부터 심한 선천성빈혈로 인한 뇌의 장기간 산소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 발육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저능아로서 하나, 둘 셋도 세질 못했으며,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줄 몰랐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무슨 바이러스에라도 감염된 건지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녀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줄곧 염불을 외우며 종교적 힘에 의지하였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상아로 다시 태어났다.

글쓴이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아 수혈과 인공철분배출, 링거와 약물에 의존하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치병과 함께 살아왔다. 한 평생 병원을 집으로 삼아야 했고, 온종일 주치의와 전문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다. 육순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리의 심한 괴사(壞死)²⁾로 인한

2) 역자주: 괴사(necrosis)란 생체내 국부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것을 가리킨다.

패혈증(敗血症)³⁾을 앓아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들었다.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자를 이렇듯 힘들게 한 선천성빈혈은 바로 “중간성 해양성빈혈”, 또는 “중간성 지중해빈혈”⁴⁾이라 일컫는 병으로,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무 살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다.

저자는 평생 수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매달 최소한 2~3회 수혈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번 수혈과 함께 인공적으로 철분을 배출시키는 주사제와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온 가산을 탕진시켰다. 그리하여, 저자의 아버님께서 “키워봤자 소용없는 자식 같으니! 흠혈귀 같은 몫쓸 것이 우리 집에 와서 재수가 없어!”라고 하며 이제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그녀의 어머니 역시 만류할 수 없었다.

그 후 글쓴이는 외할머니에 의해 병원의 영아사체실에서 구해져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분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노고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글쓴이는 아무도 가까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 ‘흠혈귀’로 불리며, 아버지나 형제자매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채 고아와 다를 바 없이 자랐다.

글쓴이는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고, 마침내 하늘의 도움으로 결혼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었다. 대학졸업 후에는 용감하게 스스로 자폐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글쓴이는 오로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서 벗어나

3) 역자주: 패혈증(Septicemia, Blood poisoning)이란, 몸의 어딘가에 세균에 의한 병이 있어, 여기에서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생산한 그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다.
4) 역자주: 지중해빈혈(Thalassemia)이란, 혈액소의 합성에 장애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선천병으로서, 혈액소 장애에 의해 작은 적혈구성, 저염색성 빈혈이 유발된다. 치료는 빈혈이 심한 경우 수혈에 의존하며, 특별한 치료방법은 현재 없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만을 기원했다. 이러한 저자의 피눈물어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난치병과 싸우는 환우들에게 밝은 미래를 향한 조그마한 나침반이 되길, 희미하나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남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우리 이제 다같이 두 손 꼭잡고 용감하게 살아가자.



공격이 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고통의 순간에도 맡은 임무에 전력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 결코 편안할 수 없느니.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일어나니

의사선생님께선 살고 싶으면 먼저 ‘지중해빈혈’이 어떤 병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뒤적이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적힌 글들은 뜻밖에도 많은 미성년자 환우들이 뒤를 이어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글들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시 그들은 무척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들도 우리 자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울고 또 울어 치마가 모두 젖어 버리곤 했습니다.

저 또한 빈혈증 환자로서, 출생 첫 날부터 일본인 의사선생님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들쳐 업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기적과 영험한 약을 찾아 헤매 다니셨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죽고 사는 데는 사람의 계산 외에도 하늘의 계산이 있다”라고 했고, “세상에 사람을 막다른 곳으로 내쫓는 길은 없다”, “신께서 한 쪽 문을 닫으면, 필시 다른 한 쪽 문을 여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람의 노력 끝에는 반드시 신의 도움이 있다”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갖은 노력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빈혈증이 심하게 악화되면서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 검사를 하다가 지중해빈혈로 진단받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줄곧 수혈과 인공철분배출(iron chelation)로 목숨을 연명하며 저희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게 했지만, 이렇게 저희 모두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지중해빈혈이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지중해빈혈방면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당신은 아주 가벼운 지중해빈혈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순간 자신의 병에 대한 갖은 근심들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병이 이렇게 가벼운 데도 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면, 심한 환자는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바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초중고와 대학 재학시절 동안 반드시 누군가가 저를 같이 동반해야 했습니다. 체육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 밖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길가에 쓰러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구급차에 실려 갔고, 의사들은 매번 저와 같은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저승문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마다 후에 만약 결혼하고 직장을 구해 직접 돈을 벌면 꼭 자선봉사의 집을 만들어서 저와 같은 난치병환자들을 도우리라고 기원하고 또 기원했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저는 결국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자선봉사의 집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성 지중해빈혈(Intermedia thalassemia) 환자로서, 증상은 중증 지중해빈혈(Major thalassemia) 환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젊은 환우들이 앞서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을 알고 날마다 그 비통함을 참지 못하던 차에, 조그마한 노력을 모아 육십여년 동안 빈혈증과 싸워 온 경험을 한 번 글로 써보자 마음먹게 됐습니다. 이 글이 저와 같은 병을 앓으며 고생하는 어린 형제자매들과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어, 우리 모두가 백 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불치성 빈혈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옆에서 간호사의 간호를 받아야만 하는 에누리 없는 빈혈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게 하루를 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지라, 이 험난하고 힘든 길에서 피눈물이 섞인 귀한 경험이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건 아닐테지요…….

보통 사람들이 마스크를 통해 접하는 환자들은 모두 중증 환우들이어서, 중간성 지중해빈혈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증과 중간성 사이에 그다지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차이는 아마도 당한 사람만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특히 저희 외할머님과 부모님, 전 가족들은 제 평생 동안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종종 “별거 아니라더니 이토록 고통스러울 수가 있나!”하며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치병환자의 입장에서 참모습을 이 책에 그대로 적으며, 단지 저 자신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또 그것을 곳곳에서 고통 받는 환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장기간 집처럼 병원을 들락거리는 제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꼭 일찍 죽는 겁니까?”

“수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겁니까?”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건 아마도 어릴 적에 어머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설사 불치병에 걸려도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는 않아”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목숨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지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며,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목숨은 스스로 노력해 얻는 것이어서, 나가서 벌여 와야 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염라대왕과 싸워야 합니다. 결코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발육이 너무 늦고 형편없어서, 외할머님께서 저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안타까워하시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일같이 밤이면 저를 안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님께서 아흔 돌되시던 해, 저를 남기고 홀로 떠나가셨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직전에 재삼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절대 정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거라. 그러면 절대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는 않아.”

한 번은 류안치(劉安琪) 장군이 골프장에서 위다웨(俞大維)부장의 품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위부장님은 한 평생 세 가지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첫째, 인정(人情)에 어긋나는 일.

둘째, 인성(人性)에 위배되는 일.

셋째, 인도(人道)에 벗어난 일.

저는 이것을 이 분께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는데 매우 감동했고,

저 자신도 늙어죽을 때까지 이러한 세 가지 일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불교경전을 강의할 때 누군가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1. 수명을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모으나요?
2.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어떻게 염라대왕과 맞서 싸울 수 있나요?

우선 제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맹렬한 습격 속에서도 저를 들쳐 업고 사방을 헤매 다니시면서 유명한 절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요행히 은둔해 사는 도인이라도 만나기를 기원하면서요. 아니면 신선이 내려와 당신의 귀한 딸을 살려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당시 어머니는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다 쓰러져가는 어느 절로 숨어들어갔습니다. 절에 계신 스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애를 업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마 죽을 거예요!”라고 울며 대답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머니를 법당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시며,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하늘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조그마한 노력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몸은 모두 자신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약방이랍니다. 이곳에서는 각종의 병을 치유하는 신묘한 영약이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병을 다스리는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불치병같은 건 없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나 어떤 생명에게도 반드시 순수한 정(情)으로 대하며 절대 그들을 해쳐선 안 됩니다. 심지어, 한 방울의 물, 종이 한 장, 한 푼의 돈일지라도, 정(情)으로써 그것들을 진정으로 아껴야 합니다.”

열한살 때는 병 때문에 일 년 내내 고생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엄하게 제게 일러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이렇게 컸으니, 이제 네 스스로 목숨을 벌 수 있단다. 그러니 절대 복을 깎는 일은 하지 말아라. 사람이든 미천한 작은 동물이든 모두 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만 너도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오래 살고 싶으면 절대 목숨을 깎는 일을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도 모두 그들의 목숨이 있으니, 그것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요절시키거나 못쓰게 망가뜨려선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수명을 길게 해야만 자신의 목숨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 절대 잊지 말거라. 복이 바닥나지 않는 이상 절대 일찍 죽지는 않는다.”

오늘, 저는 아주 뜻밖에도 예수 둘이란 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동안 의지한 것이 의학이나 과학만은 아닌 듯합니다. 아마도 진정 제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이러한 말씀이 아닐런지요?

저는 태어나서 여태껏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나 바퀴벌레 한 마리 해쳐본 적이 없고, 잔디밭에 발을 디더본 적도 없으며 고의로 나무에서 잎을 따 본 적도 없습니다.

민국 64년(1974년) 수혈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1개월 동안 혼미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당시 어떤 큰 스님께서는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자상하고 몸 전체에 자비가 배어나는데, 틀림없이 다시 깨어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것은 어떤 병이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과연 아름다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믿나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은 제가 환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속의 솔직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이 수명장수하시고 자녀를 키워 집안을 일으키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오래 사십시오

태어나는 첫날부터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제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전란의 와중에 저를 키우신 어머님께, “이 아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결핍과 빈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딸로서 어머님께서는 당시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한 피난길에서 기아와 싸우면서도 저의 작은 목숨을 위해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출생 첫 날부터 잔혹하게도 사망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저는 등에 업혀 힘든 어머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목숨을 건지는 신비한 약을 구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 다녔습니다.

네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못했으며, 아홉 살이 되어도 하나, 둘, 셋조차 세지 못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이 아이는 뇌에 빈혈과 산소결핍이 너무 심해 많이 살아야 열 한살이며, 나중에는 기운도 없어 분명 살지 못하니 길러 봐야 소용없습니다. 긴 아픔은 짧은 고통만 못한 법이니, 그냥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니만 못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이 가냘픈 목숨을 타고난 몸뚱이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면, 두 분 또한 살아갈 수 없다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껏 저는 심한 빈혈로 쓰러져 혼미상태에 빠지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그저 예삿일에 불과합니다. 응급실의 치료비는 매우 비쌉니다. 특히, 수혈할 때면 어떤 때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급히 혈액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제발 좀 저렴한 값으로 수혈 받길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수혈을 할 때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며, 어떤 때는 과부하를 못 이겨 경련을 일으키며 쇼크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몇 번에 나눠 천천히 주입해야 되어, 모자란 피를 모두 한 번 만에 주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저는 빈혈의 혼미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터라 나에게도 감히 내일이 있으리라고,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사치스런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열한살 때 저승문에서 돌아와, 열 여덟살에 다시 생사의 강을 또 건넜습니다. 어느덧 올해 저는 예순 둘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더 자주 혼미상태에 빠져 오랫동안 인사불성이 되곤 합니다. 가족들은 매번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다행히도 늘 누군가 나타나서 응급실로 데려다 주곤 합니다. 검사에 또 검사를 거쳐, 의사선생님들은 빈혈과 산소부족이 너무 심각하며 적혈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DNA분석을 통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앓기 시작한 것이 지중해빈혈이라고 진단내리셨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수혈을 받아야만 이 가냘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야 비로소 여태껏 밥으로 끼니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이 지중해빈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진상을 알기까지 이미 육십여년 동안 주사를 맞고 수혈을 받았으며 인공적으로 철분을 배출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가족들의 맹목적인 시도였으며, 저 자신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중해빈혈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선생님은 아주 신기한 듯 제게, “이렇게 긴 세월동안이 힘든 길을 도대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님과 어머니, 가족들 모두가 저를 위해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지중해협회에서 출간한 잡지를 몇 권 보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상심해 걸으면서조차도 눈물을 계속 흘렸으며 집에 가서는 더이상 참지 못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다음날 해가 뜨도록 잠 한숨 못 들고 그렇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놀라서 제 곁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한 채, 이 잡지에 기재된 미성년의 환우들이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해 보지 못한 채 줄지어 이 세상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료기술과 생활물품이 가장 모자랐던 제2차세계대전의 외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때야말로 타이완사람들에겐 유사 이래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병든 아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호약품과 영양제 혹은 혈액 등을 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늘 뒷거래시장에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미군의 공습을 받게 되자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늘 스스로 해결해왔지 정부의 어떤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체내로

수혈 받아온 모든 혈액은 자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배고픔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의약품과 혈액의 공급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손에 가진 것이 없는 터라 늘 부족한 혈액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매년 혈액소 수치를 7~8사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렇게 예수 둘이 되도록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고한 어린 환우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면서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도대체 왜? 혹시 의학과 과학에서 수혈과 철분을 배출시키는 것 외에, 의학과 과학조차도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들 환우들을 아주 깊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들이 모두 편안하게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백년해로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지금 법률사무에 종사하며, 대기업의 국제적 대외투자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그 일이 상당히 현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이 없는 불치병 환자로서 부모님의 교훈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제 명을 못 다할까 두려워 어떤 소송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생과 동시에 사망을 선고받으며 살아온 62년의 세월동안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늘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시며 하늘이 저의 이 위기막급한 가냘픈 생명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장성하자 이분들은 종교의 신비한 힘을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며 각종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자신과 함께 남을 구해 하늘에 보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가시간을 이용해 민간종교학술단체를 도우며 옛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경전, 히브리어 구약, 희랍어 신약, 대승 산스크리트어, 소승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등의 불교 밀교경전들과 널리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언어, 이를 테면 세계어(Esperanto)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제가 정식으로 스승님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배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길고 힘든 세월동안,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자신이 구한 신의 구원능력과 신의 은총을 직접 증명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든지 모두 그것들의 깊은 진리가 있다고 여기시며,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찍이 이들 많은 종교가 저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저 역시 이들을 저의 커다란 은인으로 여기며 이들 종교의 평안을 얻길 희망하며, 또 저와 동병상련하는 어린 환우들과 이 평안을 함께 해 우리 모두가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 밝은 광명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신은 당신을 죽게 한다.”

“각자의 생명은 모두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지, 병과는 무관하다!”

민국 64년(1975년), 공무를 급히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수혈을 미루자 빈혈과 심한 산소부족으로 장기간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망으로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큰 스님께서 감동하시어 친히 영안실로 오셔서 숨이 막 끊어져가는 산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희 어머니께,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선량하고 자비로워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절대 안 죽어!”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님께, “저희 애는 태어나서 여태껏 어떤 생명도, 개미나 모기나 바퀴벌레나 쥐나 어떤 생명도 해쳐본 적이 없습니다. 애는

보잘것없는 동물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개월 후, 저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살아났다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한 평생 무수히 반복해온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며, 죽었다가도 한 번, 또 한 번 다시 살아나니 언제 또 살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요단강을 넘나들며 이 삶을 살아가는 장본인이라고나 할까요.



타인의 선행을 보거든 자신의 선행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타인의 물건을 보거든 자신의 물건처럼 아끼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사랑하게 되리라.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삶

출생 당시 선천성 지중해빈혈증으로 인해 의사는 백일 후에 반드시 발작이 일어나며, 삼년 내에 틀림없이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의학은 지금과 비교해서 수준이 많이 낮아 저의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기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제가 많이 살아봐야 8살에서 11살을 못 넘길 것이며, 살아남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으나, 바보와 다름없는 저능아였습니다. 비록 여기저기 부탁하여 겨우 입학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저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며 등학교시에 반드시 가족이 동반할 것과 교내에서도 누군가가 함께 학업을 도와주길 당부했습니다.

당시 타이완은 광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저희 타이중(臺中)에는 타이완 본토의 선생님이 아직 안 계셔 잠시 일본선생님을 청해 수업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일본선생님께 “이 아이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일본선생님께서는, “저희 일본인들은 서도(書道), 다도(茶道), 무사도(武士道)와 선학(禪學)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선 사상의 중심이자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지요. 바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열한살이 되는 해 심하게 병을 앓아 숨이 끊겼으나 용케 되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부터 저의 지혜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 이미 제가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시고, 그 일 본선생님의 변함없는 신념을 제게 심어주시며 꼭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뭔가요?”라고 제가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여쭙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란 바로 친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거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되면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친자녀로 대해 정말 그들의 친어머니가 돼야 하며, 심지어 그들의 친어머니보다도 더 친어머니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 학생의 친어머니가 그 학생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그 학생을 아끼면서 그 학생의 친어머니와 똑같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란다. 이때 너의 마음은 틀림없이 아름다울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속물 같은 범부의 마음이 되고 말거야.”라고 외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개미가 우리 집 부엌에서 설탕을 훔쳐 먹고 있으면 어찌죠?”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생각해 보렴, 이 개미는 너의 친자식이 아니니? 그리고 너는 그들의 친어머니가 아니니? 그렇다면, 이 친어머니가 친자식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할 지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도 더 물을 것이 있니?”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저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한 평생 육도 중생의 친어머니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올해 이미 예순 둘이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육십여년의 세월동안 병은

여전히 호전되거나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게다가 우수한 학력을 바탕으로 사업하고 행복한 가정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매우 원만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철학은 바로 외할머님과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그 일본선생님의 변함없는 신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꼭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은 당연히 아름다운 학업성취와 아름다운 사업과 아름다운 결혼, 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신념이 정말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병을 전혀 호전시킬 수가 없을 때, 자신의 신념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꿈으로써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병에 걸리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지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을병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값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가슴에 묻어놓은 명언

“**믿으면** 그 믿는 것을 얻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을 얻으리라.” 《성경》

“원인을 심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거두리라.” 《불경》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며, 나도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당신이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당신도 틀림 없이 내가 당신이 믿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코란》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책이 당신에게 과연 믿을 만한가의 여부는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느냐, 그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병을 얻는다.

제 병이 워낙 심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정말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심산유곡의 큰 스님이나 은거해 사는 도사를 찾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런 사람이 아니고선 그런 아이를 낳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니고선 그런 병을 얻을 리도 없구요. 어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거늘, 왜 자신에게 물어 보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노릇을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요?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의 아이가 이런 병을 얻어 고생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두 분께서는 저희 아버님께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저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아버님을 나무라셨습니다.

“자네가 그런 사람 아니야? 자네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어?”

아버님의 마음속은 온통 희뿌연 안개로 가득할 뿐,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아직도 위험에서 못 벗어났으니,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서는 열흘 동안 반성하고 또 반성하셨습니다.

마침내, 마치 답이라도 얻어낸 듯 아버님께서서는 자신과 자신이 투자한 출판사를 재검토하셨습니다. 외할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로부터 아버님은 두 번 다시 술집이나 여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셨고, 삼류소설이나 잡지의 출판을 모두 사절하고 학교교재만을 출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에 의하면, 아버님의 경제적 상황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게 되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폭 줄어 회사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이 파리만 날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회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단지 이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 아버님은 철저히 당신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것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얻는 것도 다시는 그런 병은 아닐 거야. 키우는 자식도 다시는 그런 아이가 아니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은 여전히 그 병이지만, 제 병은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변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기로 되어있다면 이 사고는 분명 일어나겠지만, 트럭과 부딪히냐 아니면 자전거와 부딪히냐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지중해빈혈이라 할지라도, 환자들의 얼굴이나 지문이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학계에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두 사람이 동일한 병을 얻은 적은 없다. 부자나 모녀일지라도.”

지금 저는 이미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제가 앓은 병이 아무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일지라도, 이것은 우리들이 앓고 있는 병이 다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으로 주인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자식을 낳고 그런 병을 앓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심어서 얻은 것이지, 빌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도 빌고 수명도 빌지만, 이는 결코 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달라고 빌고 재물 달라고 빌지만, 이는 결코 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재물, 목숨이나 자식은 모두 농산물이어서, 모두 자신의 피땀과 눈물로 힘들게 가꾸고 물주고 거름하고 별레를 쫓고 풀을 뽑아야만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빈혈을 앓았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사시는 큰 스님께서서는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이 아이를 원하십니까? 얼른 가서서 마음 받을 일구십시오. 얼른 가서 이 아이의 모자란 목숨을 일구십시오.”

목숨은 농산물이요, 자식도 농산물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 밭에서 자랍니다. 복도 농산물이요, 명익과 명약도 농산품입니다. 심어야 얻지, 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영농으로 자급자족하게끔 운명 지워졌습니다. 매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 밭을 일궈야하며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꼭 원한다면 심어야지, 죽을 때까지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 만약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와 저 차이는 비슷해서 열 명 중 여덟, 아홉이 그러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한 평생 행복하게 사나, 어떤 사람은 세 끼조차도 연명하기 어려워 아침이면 저녁끼니를 걱정하며, 심지어 온갖 재난이 줄을 잇고 크고 작은 병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은 것이다. 만약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든지 다 잃은 것이다.”

이십 여 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왔습니다. 여태껏 저희 가족들은 크건 작건 아껴 쓰고 적게 먹으며,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수입과 매년 업무집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90% 이상을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데 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없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 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생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없으며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신이 말하고 손 벌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

게 하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다른 사람의 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가장 동정받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동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막다른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결국 막다른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종교도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라고 가르치나, 그런 은혜를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돕다 보면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이 결국 밑 빠진 독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히 생명과는 인연이 없는 비극적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울 뿐이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지극 지극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곤궁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열어야만 가능합니다. 필경, 세상에는 천지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갖고 싶은 행복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으며 아무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대략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은혜를 받지 않았으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2.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
3. 은혜를 받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4.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

바뀌서 말하면,

1.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은혜에 감사할 데를 스스로 알아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될 때도 죽지 않고,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승한 사람들로써 수행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성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신을 발견하며, 모두들 복이 없다고 느끼는 곳에서 여전히 평화와 복을 발견합니다.
2. 은혜에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일반적인 세속 범부이나 이미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적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만 죽지 않게 됩니다.
3. 은혜에 감사할 만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살 수 없으며, 죽어야 할 곳에서는 반드시 죽게 되며, 신의 도움이라든지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4. 반드시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하등의 사람들로 짐승만도 못하다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곳에서도 살지 못하고, 죽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죽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공평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부류에 속하게 되고,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며,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병을 앓게 되어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세속인들은 모두 높은 학력을 원하지만, 고학력자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돈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행복하며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허락된 것은, 단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

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가지길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험한 수렁으로 빠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 그리고 빛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이 있으며, 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신이 있으면 사탄이 없으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 속에 어둠이 충만하며, 어둠 속에는 사탄이 숨겨놓은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빛을 원하십니까? 빨리 마음 속 깊은 곳의 그 등잔을 사랑으로 밝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 실패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게 되고, 틀림없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성공을 향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남을 이끄는 힘이 생긴다.⁵⁾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한 사람을 기뻐 내는 것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자비다.”

이른바 자비란, 자비로운 인간의 심성을 가리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간 육도중생의 삶으로 이들이 진정 행복하고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행복과 고통이나 생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무슨 거창한 도라든지 진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스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도리 같은 것을 배웠을 따름입니다. 저는 스님의 자상하심, 자비로움과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매우 존경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시로 산에 스님을 뵈러 와서, 어려움을

5) 역자주: 이 원문의 소제목은 ‘有慈性才有磁性’이다. 중국어로 ‘慈性’과 ‘磁性’은 그 발음이 동일하다. ‘慈性’은 자비이며, ‘磁性’이란 자석의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키는데 의역하면 상대방을 끄는 힘으로 풀이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번 간청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건만 스님께서서는 싫어하시는 기색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응당 자비로운 마음이야.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자석처럼 사람을 끌게 되기 때문이지.”

저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이런 귀한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세간의 많은 사람과 공유하여 미혹한 중생들이 맹목적으로 신에게 갈구하고 점치는 미신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이 사회에는 정말 가엾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지위가 없고 이름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사업이나 가정, 친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석처럼 끄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어떤 것도 끌지 못해 어떤 것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데도 흡인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을 끌어당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흡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 밑에 직원을 둘 수도 없으며 친구나 고객이 있을 수 없으니, 당연 돈이 들어올 리가 없으며 사업을 하려 해도 어떻게 그 사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을, 일들을 잘 살펴보면, 큰일을 이룬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자기장의 중심을 향해 강력하게 사람을 이끄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족함도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자신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불임을 치료하는 명의를 찾아갔으나 역시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한 나

머지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자석처럼 끄는 힘이 생기지. 끄는 힘이 있어야 아이를 끌어와서 자네 집에 데려올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지.”

그런 후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듬 해 아들을 보고, 또 일 년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아들, 딸 모두 공부를 잘해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가게를 열었으나 장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끄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끌어오겠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끄는 힘이 생기지.”

거의 삼십 년 동안, 저는 기울어져 가는 크고 작은 기업을 적지 않게 도왔으며, 거의 파산될 가정도 돌봤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심을 가지면 끄는 힘이 생기고, 이것은 바로 기사회생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스님께서는 천 번, 만 번 당부하셨습니다.

“애야, 가여운 마음을 지니고 자비의 눈과 마음으로 육도의 일체중생을 차별 없이 대하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심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만 있어야 할 것이 모두 있게 되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단다.”

당신은 얼마나 자비로운가요?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 일과 사물을 끄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상대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절의 불상을 나무토막으로 본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나무토막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불상을 부처님으로 보았다면, 이러한 조각상은 부처님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배로 여긴다면, 이러한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쓰레기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틀림없이 여러분 눈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자녀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원을 들락거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세를 아주 비관적으로 대합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병세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한 환자들은 자신의 병세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별 거 아니고 얼마 안 되어 금방 좋아집니다.

세상의 불치병은 병세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치병이 불치병으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병을 불치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치병은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아주 말을 잘 듣는다고 여기면 틀림없이 그렇게 착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서는 베이강(北港)의 마조(媽祖)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선남선녀들이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분이 도대체 신인지 나무토막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는 신탁의 마조는 나무토막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사람을 나무토막으로 보면, 상대방은 자연히 나무토막인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마다, 제 의사가 최고 일류라고 여기고 틀림없이 병을 잘 고쳐 꼭 다 나을 것이라고 여기며, ‘보는 것’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겪으면서, 큰 병이 작은 병이 되고 작은 병은 또 없어지면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불행이 있다면 자신의 두 눈에게 도대체 어떻게 본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복과 재앙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약한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선 안 되며, 작은 동물들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한 번 쳐다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이 그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독일 신부님을 따라서 몇 년간 라틴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은 소감입니다.

저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누구의 몸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며, 우리에게 복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그래도 안 돼?

민국 39년(1950년), 저는 병을 심하게 앓다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저를 5학년으로 올려주려 했습니다. 당시 타이 중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하여, 누구라도 어떻게 교묘하게 연루되어 잡혀 가지나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언제쯤이면 편안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웠

으며,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물어보지 않아서 사람들의 처신이 이른바 ‘맑은 자는 스스로 맑은 것이고, 더러운 자는 스스로 더러운 것이다’라는 말과 흡사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수업을 마치고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앞으로 남학생 네 명이 달려 와서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을 서로 빼앗으며 공처럼 가지고 놀면서 길에 다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제가 혹시라도 쓰러져 번거롭게 될까 미리 염려되어, 큰 소리로 그들을 야단쳤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고의로 저를 향해 힘껏 그것을 던졌습니다. 당시 저의 병이 아직도 중한 상태라서 보기도 매우 허약해 보이자, 옆에 길 가던 사람이 보다 못해 그 폭탄을 받아 안으며, 그들을 전혀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학생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그 폭탄을 공처럼 서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이 폭탄이 아주 위험한데 만일 폭발이라도 하면 어쩌나 계속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저와 함께 그 남학생들에게 다가가 빨리 그 폭탄을 경찰서에 갖다주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계속 가족들은 저를 붙들며 제발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저는 아무래도 참견할 건 참견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충고를 들을수록 더 심하게 화를 내며, 결국 허리에 손을 얹고 위협적으로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저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급하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량소년이 채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세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저는 울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채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도처에서 흔히 주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미군, 어떤 것은 일본군, 어떤 것은 국군의 것이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타이완에 미군과 일본군이 대립할 때 쌍방이 같은 양의 무기를 보유하면서 타이중 전체가 탄흔으로 뒤덮였고 도처에 부상자들이었습니다. 뒤에 다른 성(省)의 사람들과 대립해 싸우면서 저희들의 아름다운 고장인 타이중은 온 천지에 시체와 부상자들로 가득 차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란이 계속되는 동안 그저 발걸음을 멈추고 허리만 굽히면 각종의 폭탄껍데기와 채 터지지 않은 크고 작은 폭탄들을 쉽게 주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여학생들은 그런 위험한 살인적인 무기들을 감히 만질 수조차 없었으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용감한 남학생들은 오히려 한 명 한 명씩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고향지르던 남학생의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기분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그들이 좋아서 스스로 죽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니, 그들보고 죽으라고 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를 살리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않는다

어느 여름방학, 아이들 방학과제물의 식물표본과 곤충표본을 채집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삼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컨딩(墾丁)공원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관리실에 가서 수속을 하며, 아이들 스스로 관리실 아저씨들에게 어떤 식물을 채집할 것인지, 어떤 곤충표본을 모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실의 동의없이 우리들은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으며 가져갈 수도 없고, 채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곧잘 말을 잘 따랐지만,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않는데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엄격하냐고 대꾸하곤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 어떤 물건도 그 주인의 동의가 있고 나서, 비로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고 가까이하거나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거나 뺏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복과 수명을 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손을 잡고 숲 속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대자연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다른 관광객들이 꺾어 버린 가지와 잎들을 줍고, 풀 사이에 있는 죽은 곤충들도 찾아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경건한 종교신앙을 가진 터라 대자연의 풀 한 포기나 크고 작은 동물에게 해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

하지 않았습시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살아 있는 어떤 꽃이나 풀잎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시다. 일단 밟힌 꽃이나 풀들은 그때부터 엄마 곁을 떠나 죽게 되고, 아무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감상할 수 없게 되니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요?

곤충들도 집이 있고 부모자식과 형제자매도 있답니다. 만약 그 중 누가 불의에 잡혀가 버린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다시는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데 얼마나 가엾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피와 살이 있고 영혼이 있는 동물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표본을 채집하는 것은 한 때 재미로 하는 거지만, 이러한 곤충 형제자매에게는 생사를 좌우하는 엄청난 큰 일이 아닐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채집하려는 표본 중에 어떤 식물은 학교선생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터라, 떨어진 가지와 잎을 찾지 못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나무할아버지께 아이들에게 잎 몇 잎만 주십시오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나무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 대신 동전 두 개를 던지며, 나무할아버지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려 했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을 대표해 나무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저희가 누구인지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며, 나무할아버지께서 저희가 그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은 다시 관리실에 찾아가서 주워 담은 것과 채집한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며 검사하도록 한 다음,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하루하루 철이 들어 저희한테 대한 반항도 적어졌습니다. 그들도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계율의 그 심오한 의

미와 결과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더욱 주의하여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절대 그 물건을 만지거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며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일은 절대 보려하거나 몰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물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도를 알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존중할 줄 압니다.

요 몇 십 년간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많은 친지와 친구들은 아주 놀라워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할 리가 없다고. 가령 세균이나 각종 병들도 절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몸에 가까이 오지 않으므로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없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원칙은 당신에게 아주 유용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공직에 있음으로 해서, 종종 지방으로 출장 가서 범죄사건을 조사하는데 가담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은 심한 빈혈을 앓고 있는 저의 약한 몸이 늘 걱정입니다. 더욱이 저와 같은 연약한 여자가 험한 산골에 사건을 조사하러 가는 것을 저의 상사와 부하직원들은 특히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하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계율을 성실하게 지킨 수행자에게는,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이며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상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뜻밖의 재난이 찾아올 수 없다고.

퇴직이 가까워지자, 제가 가는 곳마다 모두들 저를 매우 존중하고 존경해 줬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모두 저를 감싸줬습니다. 저의 병은 발작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조건이 갖춰 있지 않으면, 곧바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지금 예순이 넘는 노인이 될 때까지 제 병은 부지기수로 발작했으나, 그런 응급시설

이 없는 황량한 곳에서 쓰러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목숨은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 원칙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아무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다.”

저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정작 가장 많은 덕을 본 것은 오히려 제 자신입니다.

이 책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원칙을 지키시어 정정당당한 삶을 사는 군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다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의가 없는 재난과 재앙이나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평안을 약속하는 십일조

십일조를 내고난 돈이라야 비로소 평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십일조란, 자신이 번 돈에서 십분의 일을 헌금하여 다른 사람을 돕거나 가난하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십일조를 낸 돈이라야만, 돈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물건을 사거나 재산을 확보하거나 생활하는데 쓸 수 있고, 이것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차나 배,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에 필요한 도구 등을 마련하는데, 언제나 십일조를 내는 것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이것은 평안을 약속하는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만약 십일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하늘의 과보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화근이 됨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삼십만 원을 보시해야만 삼백만 원짜리 집을 살 자격이 주어지며, 당신이 삼만 원을 보시해야만 삼십만 원을 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돈은 부작용이 없어,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고통이 있나요? 당신이 혹시 평안을 약속하는 십일조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충하실 생각은 없나요? 걸을 다스리는 것도 십일조요, 근본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십일조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어릴 적 저희 옆집 2층에 사는 한 이웃이 있었는데, 대대로 독실한 천주교신자여서 모두 그녀를 ‘희귀동물’로 간주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지나친 보수파로서 이런 조상을 모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에게 심한 반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조차 매우 꺼리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불치병으로 판정받고, 저희 어머님께서서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스님과 도사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 다녔지만, 결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서는 어느 날, “그럼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라도 찾아가 보려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은 온 종일 코쟁이들과 함께 있으니, 무슨 그들만의 비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서는 정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서양 종교에 기대를 걸면서 죽음을 앞둔 딸에게 그 사람들의 기적과 신통이 내리길 얼마나 비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서서는 2층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아주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서양인 두 사람은 신부님과 수사라

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방문한 목적을 소상히 밝히셨습니다. 신부님은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신의 귀중한 선물이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아이를 낳든지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어야만 미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부님의 말씀은 바로, 원한을 가진 어떤 일이 있음으로 인해 임신을 했을 때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한이 없다면, 절대 모자란 아이를 낳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가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지 병과는 상관없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해, 저희 어머님께선 큰 오빠를 낳으신 후 아버님사업이 형제의 의를 맺은 동업자로 인해 모두 말아 먹은 터라 매일 눈물로 날을 보내며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같은 돈덩이가 어머님 뱃속으로 또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저희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답도 신이 주시며, 별도 신이 내리십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 불과해,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으며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외할머님께 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님과 어머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미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와 가피에 감사하며 이렇게 저희 집의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특수한 아이를 평범한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이 만나기 힘든 복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시고,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임신한 아기가 어떤 아이든지, 모두 신이 선물한 고귀한 은총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 불과해 신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손하게 이 신성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서는 뱃속 가득한 원한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할머니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머님은 한 마음을 바꿈으로써 무척 밝아지고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저의 병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사업을 맡아 먹은 그 나쁜 동업자를 미워하셨고, 자신이 낳은 저와 같은 모자란 딸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필경, 신만이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시어 은혜와 벌을 내리실 수 있는데, 왜 하느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두시는 것일까요? 만약, 자신이 낳은 아기가 지지리 못한 자식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신만이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아시며, 또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커갈지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이 없습니다. 많은 중병과 불치병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움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없어질 때, 병 또한 같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미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원한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저는 제가 왜 한 평생 이토록 심한 빈혈증의 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나, 왜 한 평생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님은 자신이 이러한 아이를 낳으시고 당신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원한이 승화되고 어머님의 원한 또한 승화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면세계의 초월로서, 생사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

도록 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갖은 불치병을 앓게 되고, 이 중에는 반드시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말하기 힘든 원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이러한 원한을 깨끗이 지워버리려 하지 않는 거지요? 미움을 남기면 반드시 병의 뿌리가 남는데,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죽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인가요?

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게 한 평생 고칠 수 없는 지중해빈혈을 주셨고, 현재와 같은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만나기 힘든 복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의 풍성한 기적 속에서 헤엄치게 됐으며, 비할 수 없는 즐거움과 모자람이 없는 고요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진실로 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미움이 없는 사람은 몸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깨끗한 무균실과 같다.”

매일 잠들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사랑은 사회를 화합시키며, 원한을 없앤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드니, 신은 바로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없다

학술토론회의 연구발표를 위해 셋째 딸은 옷장에서 정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찾더니, 겨우 하나를 찾아냈으나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구멍이 이미 몇 개나 나 있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놈의 쥐새끼, 뭐든지 다 씹어 먹는단 말야, 뭐 때문에 내 옷을 씹는 말야, 이 죽을 놈의 쥐새끼야!” 마침내 셋째 딸은 참지 못하고 욕을 한마디 하고서도 진정이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야, 네가 직접 두 눈으로 이 죽을 놈의 쥐새끼가 네 옷을 씹는 걸 봤니? 만약 네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할 수 없단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쥐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의 품격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우리가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증거가 없이는 그걸 죄로 여길 수 없단다. 우리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경전에 나오는 팔정도(八正道)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란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을 씹어선 안 돼.”

셋째 딸은 듣더니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쥐에게 사과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은 모두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듯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본 것도 진실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하물며 자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자세히 알겠으며, 어떻게 믿을만하지도 않은 상상에 의지해 상대방을 죄의 도가니로 밀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손가락을 걸고 같이 팔정도의 한 항목인, 우리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으며 상대방이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상대방을 업신여겨 죄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겠다는 계율을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암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세균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암은 단지 몸에 말을 안 듣는 세포들이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말을 안 듣는 세포는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므로, 암은 성품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입니다. 저희 셋째 올케는 손꼽는 부호의 귀한 딸로서, 아주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성격도 흉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흉악’하면 당신의 ‘흉부’에 유방암이 생길 건데, 왜 고치질 않으세요?” 올케는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년 전 가슴에 유방암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삼년도 되지 않아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업신여겨선 안된다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가 가늘어져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그 친구를 힘껏 보살피고 도와줬습니다.

당시 앞에 몇 반은 남학생반이었는데, 이들은 종종 저희 여학생들에게 장난을 걸어와 늘 우릴 화나게 만들었지만, 매번 그렇게 화를 한번 내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집이 매우 부자이고 부모님도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시고, 자기 공부방도 있을 뿐 아니라 가정교사도 몇 명이나 뒀고, 학교성적까지 뛰어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매일 화장실에 갈 때 마다 꼭 저희 여학생반을 지나가면서, 저희 반의 이 소아마비 친구를 건드리며 두 손을 땅에 짚고 한손씩 앞으로 기어 다니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이 친구를 비아냥거리며 악을 올렸습니다. 매번 그녀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악어라고 비웃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남학생이 고급 가죽신발을 신은 발로 소아마비 친구의 가는 두 다리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 고통스러워했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학교의 거의 모든 선생님을 손에 짊어지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뒤에 이 남학생의 모욕과 조소, 희롱 때문에 쥐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남학생은 좋은 집안배경을 등에 업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학에 어려움 없이 진학하고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며, 부친의 방대한 사업도 이어받아 경제계의 손꼽는 사업가가 되어 득의양양했습니다.

당연히, 그도 저희 학교동창회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는 자신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술에 취해 추월하던 대형트럭과 충돌해 자가용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운전석에 끼여 피와 살이 뒤엉켜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아주 힘들게 차문과 운전석 앞 사이를 뜯어내 그를 구했으나,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깨어났지만, 두 다리는 이미 모두 잘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하도 꺾매어 다시 변형되지는 않게 되었지만,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는 반식물인간이 되어버려 그가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휘황찬란한 삶은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학교동창회의 회장이어서, 많은 동창들이 병문안을 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학생반의 선후배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속으로 과거 그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눈을 번득이며 저희 반 친구를 기만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온 몸이 떨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행동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몇몇 단짝친구들은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서면서,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마저 짓밟히며 살았던 저세상으로 오래전 떠나간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도 오늘 이 병원에 왔을까요?

삼십 여년의 세월이 흘러, 하느님은 당시 그렇게 철없이 행동했던 친구에게 잊지 않고 진정한 해답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느 해,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타이완 동부의 아주 유명한 어느 명문여고에 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은 예전의 명문여고가 가지는 신부예비반이라는 낡은 관념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 실력을 갖춘 선생님을 사방에 수소문하고 이들을 진학반의 지도교사로 특별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교사로 발령받아 한 진학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실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능지수도 매우 높아서 거의 학교의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아이들을 일류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빠른 학생들을 골라서 지도그룹을 형성하고, 이 그룹의 학생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복습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우수한 학생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교무실로 저를 찾아와 따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도그룹이 그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부모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애를 낳았죠? 이런 쓸모없는 깡통도 낳아야 하나요? 낳을 거면 제대로 된 애를 낳든지, 아니면 아예 낳지 말든지. 저는 그 부모님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이 학생에게 사람은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선 안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되며, 더더욱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우습게봐선 안 된다고 타일렸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겐 이런 말들이 한 마디도 먹혀들지 않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십년이 지나서, 제 사무실로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마치 앞면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000입니다.”

저는 기억을 떠올리던 중, 생각이 났습니다.

“너가 00성여고의 그 보물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제자는 이미 미국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당시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대기업 후계자의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이 제자는 극도로 상심해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딸아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골연화증(骨軟化症)에 걸려, 전신이 물렁해서 여태껏 움직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요. 한 평생 이렇게 누워서만 살아야 한대요! 죽을 때까지요!”

저는 듣고 나서, 내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 학생이 교무실로 저를 찾아와서 항의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저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말에 대한 진정한 해답인가요?

왜 반드시 해답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 해답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제대로 크지 않더라도 한다는 건가요?

저는 해답을 봤지만, 그건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답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를 친딸로 생각하고, 제자의 딸을 귀한 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손녀를 위해, 저는 늘 이 제자와 함께 고생하고 그걸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때 바로 그 학생을 야단치지 않고 바르게 잡아주지 못한 연좌응보(連坐應報)일까요?



너무 비싼 건 먹지도 입지도 않는다

외부의 모임이나 연회에 가면, 사람들은 제게 이상한 듯이 “왜 이거 안 드세요?”라고 종종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칙으로 묵묵히 자신을 구속할 수 있을 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이 너무 비싸고 고급이면, 저와 같이 명도 짙고 박복한 사람에겐 정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 일반 검소한 가정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먹고 삽니다. 만약, 테이블에 나온 음식이 돈 많은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거나 고급 음식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 그런 걸 누릴 복을 타고 났겠습니까?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싸면 절대 사지도 않고 입지도 않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더욱 만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도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유행이 지났다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분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거지운명인 셈이지요. 저는 옷이 별로 없어, 외출할 때마다 매번 몇 벌 옷을 가지고 번갈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옷도 입을 줄 모른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저는 낭비로 인해 제 목숨과 복을 감할까 두려워, 그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계율을 감히 어길 수 없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생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먹어버리면, 후생에는 반드시 길거리에 나앉아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세 끼 중 한 끼도 배불리 먹기가 힘들 것이다. 만약 이생에 입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입어버리면, 후생에는 옷을 입을 수 없는 짐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히 함부로 잊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박복한 사람으로 수명도 짧아 늘 명과 복을 소중하게 건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천국으로 갔거나 육도윤회에 들어 축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체면을 중시하고 자신을 뽐내려 하거나 명리를 빼앗으려 하지만, 저와 같은 불치병환자는 계속 뒷걸음질하는 사람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명분을 묵묵히 행하며 힘든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천성이 나약하고 겁이 많아서, 이미 굶어 죽지 않은 것만도 불행 중 큰 다행인 것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듯, 저와 같이 수입이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인색하냐고, 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제가 평안하게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하지 않게 살게 되고, 단순하지 않은 병을 얻으면 단순하지 않은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저는 한 평생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이 단명을 타고난 불치병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병 또한 점점 단순해져서 다시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악화하는 병세 앞에서 그 많은 의사선생님들을 모두 속수무책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이제 내일이 없으리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 땅, 임금과 가족 그리고 스승(天地君親師)

어려서부터 여태껏 수시로 길가에 쓰러졌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로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의사선생님들은 고개를 흔들며, 한참동안 말 한 마디 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불치병환자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매번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는 첫 날부터 불치병환자였습니다. 제 골수는 조혈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시 타이완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의사와 간호원이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본인 의사선생님들께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 가련한 핏덩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보통 다 세살을 못 넘겨요. 세살을 넘겼다 해도 열한 살은 못 넘깁니다!”

저는 만팔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병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으셨으며,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시며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아 의사선생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의사선생님의 ‘아예 포기하세요!’라는 진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신 뱃속에서 나온 핏덩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사망진단서를 떼 주며 어머님께 매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저

희 어머님께서서는 여전히 저를 당신의 가슴에 꼭 안으시고 손을 놓지 않으셨
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당신의 체온으로 이미 식어버린 시체를 덥히며, 하루
또 하루 병원을 찾아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저는 또 살아났습
니다. 당시 타이완은 정국이 불안해 인심 또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어
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사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님
께서 그 뜻을 꺾지 않으셨기에 제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마침내 의사선생님들까지도 감동시켜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행하는 바보
같은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미 예순 둘이 됐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
니다. “이런 불치병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지?”

한번은 비탄(碧潭)이라는 호숫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 적이 있
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고역이라, 백 번을 생각해도
그 방법이 깨끗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은 신덴로(新店路) 길가에서 바닥에 펼쳐놓고 관상을 보는 점쟁
이가 돋보기를 들고 손을 흔들더니 고함을 지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
씨, 정말 죽으려는 거예요? 내가 말해 줄게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리 뛰어 내려도 죽지 않아요! 당신은 조상덕을 타고 나서 아주 덕이 있
어요!”

저는 이런 떠돌이점쟁이들을 결코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에 올라가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죽
지 않았습니다. 곧 구조됐습니다.

“조상덕이 뭐니까? 덕이 뭔가요?”

점쟁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모두 매우 효순한 분들인데, 특
히 당신의 어머님께서 시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하십니다. 당신에게
도 많은 덕을 지으셔서, 많은 하늘의 군사와 장군이 당신을 수호하고 계십니

다.”

점쟁이는 저보고 오른 손을 꺼내보라고 하며, 그는 대나무로 만든 시초를 저의 손바닥 가운데 올리고 주문을 외우더니,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어머니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은 줄곧 사람을 구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릴 적부터 불치병을 얻었으나, 약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상인처럼 살 수 있으며 틀림없이 아주 행복하게 장수할 것입니다.”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때 그 점쟁이의 말대로 저는 한 평생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대든 적이 없고, 또 그분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딸로서 부모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학생으로서도 선생님들께 욕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천지가 진노할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되는 일 또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지의 계율을 범하지 않으며,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주사를 맞아서인지, 약을 먹어서인지, 수혈 때문인지 아니면 인공철분배출 덕분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저의 이 마음 때문에? 아니면 조상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아니면 제가 날마다 선행으로 덕을 쌓아서일까요?

독자 여러분, 당신도 저와 같이 답을 좀 찾아주지 않으시겠어요?

환우들은 한 명씩 줄을 이어 죽어갑니다. 그들도 날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수혈과 철분배출을 반복하지 않나요? 조상님께서 지켜주신다면, 환우들은 조상님이 안 계시다는 건가요? 만약 제가 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겠지요.

1. 부모님과 선생님께 대들지 않고, 그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2. 부모님과 선생님께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집안의 딸이면 딸답게 행동하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행동한다.
3. 천지가 분노할 일은 하지 않으며, 천지와 적이 되지 않는다.
4.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으며,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거짓 행사를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6. 사람들의 것을 공짜로 바라지 않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한다.
7. 살생하지 않으며, 값을 깎지 않는다.
8.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진실은 공허하지 않아 모든 고통을 없앤다

불교의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은 공허하지 않아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다(能除一切苦, 真實不虛)”
스님께서서는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람과 더불어 성실하게 살아야만, 결실을 얻어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야심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없애는 것은 오직 진실한 것만이 헛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단다. 다시 말해, 늘 모든 일에 진실하여 어떤 거짓도 행해선 안 되느니라.”

어려서부터 여태껏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진실을 말하기 위해 손해도 보고 고생도 했지만, 결국 이러한 고통은 모두 좋은 결과를 낳았고 눈앞에는 아름다운 광명이 펼쳐졌습니다.

효순(孝順)

스님께서서는 살아생전에, 제가 병으로 위독할 때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병실로 찾아오셔서 제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중해빈혈은 적혈구가 결핍되고 비장이 결손된 상태여서, 치료를 할 때도 생각지 않은 돌발 상황이 자주 생겨 매번 의사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종종 새로 나온 신약요법을 테스트해 보겠느냐고 제

안하며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스님께, “이러한 신약이나 새 치료법은 사실상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 경과가 어떨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스님께선 매년 어떤 의심도 하지 않으시며, “틀림없이 효과를 보게 될 거야. 틀림없이 낮게 돼 있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님은 의사선생님께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어린 손녀는 외할머니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모든 어른들한테 효순해서, 애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지요. ‘효도’를 행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말을 ‘순하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운’ 법이거든. 이건 천지간의 이치예요.”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사형님들은 모두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린 애가 이렇게 연약하고 불치병까지 앓는데, 나중에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은 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결혼해서 행복할거야.”

스님은 사형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효(孝)는 온갖 비천한 것을 깨뜨릴 수 있으며, 순(順)은 모든 장애를 없앨 수 있다. 너희들의 이 어린 동생은 매우 효순하니, ‘효도’를 행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말을 ‘순하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운’ 법, 후에 이 아이의 가정은 언제나 기쁨에 찬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편안할 것이야.”

저와 같이 철이 없는 어린 손녀에게 스님께선 가장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과연 스님의 말씀처럼, 저는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의 효순이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모자람이 많

지만, 스님의 이런 두터운 사랑이 저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 삼십 여 년 동안 저희 가정생활은 정말 매우 행복하고 원만하여 매일 기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했습니다. 효도를 행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말을 순하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여전히 효순하니?”

“너 정말 감히 효순하지 않을 수 있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순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효순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부모를 망치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주 1: 당신은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효도’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자주 2: 당신은 병이 나서 입원해, 응급조치를 받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하거나 각종 치료과정에서 모두 순조로운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하게’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순조’롭습니다.

저자주 3: 당신이 울며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도 우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웃는 얼굴인가요? ‘효도(孝)’하는 사람들은, 퇴원할 때 틀림없이 온 가족이 모두 ‘웃을(笑)’ 것입니다.⁶⁾

6) 역자주: 효도 효(孝)와 웃을 소(笑)는 중국어로 발음이 동일하다. 발음이 같은 경우 어원상 종종 관련성을 보여 상호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말을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 많은 의사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제게 “애야, 너 같은 병은 절대 열여덟을 넘길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3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듣자하니, 열여덟살은 성인으로 발육하는데 반드시 거쳐야할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 같은 지중해빈혈 환자들은 성인으로 발육할 능력이 없으므로 성인으로의 성장이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용상에 오를 수 없듯, “큰 뜻을 가슴에 품고 펼치지도 못한 채 몸이 먼저 떠나가니, 두고 두고 영웅의 눈시울을 적시네”라는 시구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제 목숨이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생동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들었고, 매일 착하게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착하게 공부하고 숙제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형을 제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3까지 줄곧 전국에서 손꼽는 명문학교에서 늘 우수반에 있었으며, 성적은 늘 3등 안에 들었고 해마다 상장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하며, “이런 모범생에다 성적도 우수하고 착해서 미래 국가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애를 왜 하느

님은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숙제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깊은 밤 사람들이 다 잠들고 나서도 혼자 이 문제집, 저 문제집을 여러 번 풀고,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 마치 엄마를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하늘의 달님과 별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올해 꼭 죽어야 하나요? 또 왜 꼭 저를 이렇게 좋은 학교에 넣어서 공부까지 잘 하게 하셨나요?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부근의 절에서는 새벽 3시쯤이면 예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냥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스님들의 염불과 목탁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번 예불이 끝나면 저의 좌복은 눈물로 젖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이 다가오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졸업할 때까지 살아서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하고, 방학 때 직접 깊은 명산고찰에 다니면서 큰 스님을 만나 자신의 인과를 안 다음 이 재난 속의 일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빌었습니다. 저는 절에서 죽으면 불보살님들이 이끌어 주시어 반드시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절의 스님께서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애야, 너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로구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꼭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나게 되지. 걱정하지 말아라. 불보살님은 반드시 네 말을 들으시고, 너의 소원도 꼭 들어주실 거야.”

저는 공부도 걱정되고, 또 목숨도 걱정돼서, 선생님께 저처럼 오래 살지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계속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숙제는 열심히 다 마쳐야 한다. 무슨 빛도 저서는 안 돼. 사람이 얼마를 살건 간에, 평소와 똑같이 등교하고 출근해야 해. 죽기 일초 전까지도, 이건 본분이야.”

졸업할 때, 세 곳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곧 죽을 사람이 장학생을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루라도 빨리 산에 올라가서 편히 제가 잠들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죽은 다음 누군가 와서 향을 피우며 제사와 염불을 드릴 수 있는 절이 있어야,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무주고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성(省)의 습관은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가서도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조그만 배낭 하나를 등에 매고 혼자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은거해 사는 도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종일 산을 올라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어떤 절도 암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성한 숲으로 들어가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눈앞에 아주 웅장한 큰 절이 보였습니다. 절의 양쪽 벽에는 노란 색의 이상한 큰 글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미 왔으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미 날도 어두워졌는데 나 같은 어린 여학생이 어떻게 이 산을 다시 내려갈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 절에는 모두 비구스님들이 묵고 계셨고, 주지스님 또한 이 곳 분도 아니고 한족(漢族)도 아니어서 표준말이 서툴렀습니다. 저를 주지스님 앞으로 데려가자 무서워서 손발이 모두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왜 어린 여학생이 이런 밤중에 깊은 산골짜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공손하게 삼배를 올린 다음, 묵묵히 그 앞에 꿇어 앉아 그 노인의

연민을 구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넣어온 모든 성적표와 상장, 선생님의 소개서를 보여 드리며, 제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니, 너무 유치하고 우습네요.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 숨이 끊길 때 같이 태워서 하늘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저는 한 무더기의 장난감과 인형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지스님께서서는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평생 너무 외로워서, 저 세상에 가서도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살아온 이 장난감과 인형들은 저와 뗄 수 없는 신체의 일부가 된 것들로, 제가 천국으로 영원히 돌아갈 때 서로 의지하여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대장부라 이 어린 여학생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진지하게 제가 설명하는 저의 각종 휴대품에 대한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알 듯 말 듯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눈빛만은 아주 자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자비롭고 선량하니 그렇게 단명에 죽을 리가 없다. 너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법, 네가 살려고만 한다면, 너 몸도 반드시 말을 잘 들어서 네가 잘 살도록 해줄 거야. 사실, 너처럼 착한 애는 하느님이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어. 편안하게 여기서 묵도록 해라. 너의 이 장난감과 인형들은 사형들한테 작은 방을 하나 만들도록 해서 그곳을 그들의 방으로 삼으렴.”

스님께서서는 말씀을 마치신 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마디 보충하셨습니다.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와 장난감과 인형들, 곧 제 식구들은 모두 이곳을 피난처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녔고, 틈만 나면 사형님들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나 설거지, 무슨 일이든 다 해서 모두들 저를 예뻐하시고 제 장난감과 인형들까지도 사랑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저보다 마흔 여 세가 많으셔서, 할아버지 같았으며 사형님들은 삼촌 같아서 정말 아주 따뜻한 대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성격은 너무 나약한데다 자폐증까지 있었습니다. 매일 온 종일 하나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말을 착하게 잘 들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모두 잘 될 거야, 어떤 후회도 없이.”

이렇게 일 년 또 일 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국가고시에도 합격해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저는 거의 틈만 나면 스님의 곁에 가곤 했습니다. 정말 새가 동지를 찾듯 그렇게 보낸 세월이 18년이 됐습니다.

어느 깊은 밤, 스님은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한 자씩 한 자씩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눈이 붉어졌고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 울어버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원래 불가의 전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말을 잘 듣는단 말야. 내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신의 말씀까지도. 그래서 너의 인품과 인격이 아주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어, 나의 입실제자로 삼아 의발을 물려주기에 손색이 없구나. 나는 내 평생 가장 고귀한 법보인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을 전해주었다. 너는 참으로 말을 잘 듣는 아이여서 전승을 받을 수 있으며, 너는 우리 가문의 제자들을 이끌고 모든 신도대중을 이끌어 너의

말을 듣게 할 수 있다.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들도 모두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분을 만나고,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자식을 만난다. 후에 너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며 행복할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말을 잘 듣는 자손을 볼 것이고, 말을 잘 들어주는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것이고, 말을 잘 듣는 학생과 제자를 만나고, 말을 잘 듣는 차와 비행기와 배를 만날 것이고, 말을 잘 듣는 몸을…….”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축복에 감사드렸습니다.

스님께선 떠나셨고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전승을 받으러 오늘날까지 한 번도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성실한 작은 사람이기만을 바랄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과 부엌이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예순 둘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하느님은 제 말씀을 들어주셨고, 몸은 제 말을 들어주어 하루하루의 목숨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모두 평안하고 사회생활 또한 원만하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전승에 관해, 저는 사형님들께서 그것을 이어받기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필경 출가자의 전승은 출가자가 받아야 하는 법, 이는 천지지간의 대사이며 가문의 중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줄곧 스님의 진정한 전승은 주요하게 산이 아닌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줄곧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온종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은 출가자일 뿐만 아니라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의리가 있는 분이셔서 육도중생을 모두 자신의 친혈육, 친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열여덟도 안 된 나이에 스님의 품에 안겼고 저를 요람처럼 흔들어 주시며 사랑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제 친할아버지보다도 더 친할아버지 같았으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코 자신의 몸만을 챙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산을 내려와 그 법을 전할 수 있길 기원했고, 그래야 진정 고통 받는 중생과 한데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가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지중해빈혈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면, 출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지만, 맹목적으로 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은 겉모양일 뿐이며, 절에 남게 되면 자신을 불가의 귀신으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스님의 진정한 전승을 민간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자, 한 평생 온 힘을 바쳐 스님의 이념과 사랑과 열정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병을 고쳐 보려고, 밀교의 각종 방법들을 배우고 많은 황교(黃敎) 정통 경전과 규범을 읽었으며, 몽고어와 티벳어의 대장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을 잘 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 안 듣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버스를 타서 불행하게 죽어갑니다. 또 많은 사람의 몸이 말을 안 듣고,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병

원에 입원합니다. 결국 몸이 의사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모든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을 안 듣고, 주주가 말을 안 듣고, 고객이 말을 안 듣고, 심지어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일마다 모두 뜻대로 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한 평생 비참하게 살아 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 안 듣는 사람을 만난다.”

만약 당신이 오래 살고 싶다면, 순조롭게 사업하고 싶다면, 몸이 건강해 지고 싶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모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 스스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이기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강함과 용서의 비유



향을 든 손 · 염불하는 입

어릴 때 저는 웬지 모르게 배가 점점 불러와 마치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인 의사선생님은 ‘육종(sarcoma)’를 없애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커지는 단단한 덩어리를 보고 어떤 의사선생님은 간장종대, 어떤 분은 비장종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항일운동에 가담해 당시 타이완을 통치하던 일본정부에 의해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시고, 집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이런 어린 애가 그런 대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도처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점을 쳐서 답을 구하셨습니다. 뒤에 저는 수술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면 살 수도 있지만, 수술을 안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심한 빈혈과 산소결핍에 시달려, 커서도 늘 병치레를 달고 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두 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아이는 틀림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버려 둔다 해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인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쓸데없이

약만 허비하는 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외할머님과 부모님께서서는 모두 저를 위해 불문에 귀의하시어 채식을 하며, 매일 향을 피우고 경전을 독송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 년 내내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져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서는 매일 저를 부축해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여, 삼궤구고(三跪九叩)⁷⁾를 가르쳐 주시고 정신을 차려 향을 들고 염불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건 심하게 열이 나며 헛소리를 했고 두 손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서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셨습니다.

할머님은 습관적으로 경전의 짙막한 구절들, 가피력을 주는 짙막한 주문을 늘 반복해서 중얼거리시며 신들이 저를 보호하길 기도하셨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머리가 뜨거워지며 혼미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미 열한살이 되었는데도 가장 쉬운 하나, 둘, 셋조차도 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어머님을 위로하며 "애는 살아 있기만 해도 다행이야, 다른 건 그냥 인연에 맡겨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서는 제가 향을 피울 수 있는 깨끗한 두 손과 염불할 수 있는 깨끗한 입만 가지고 있다면, 제 삶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며 다른 것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조용히 누워, 할머님께서 어떤 손이 향을 피울 수 있는 손인지, 어떤 입이 염불할 수 있는 입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듯 말듯 들었습니다.

7) 역자주: 중국 전통적으로 이는 최고의 예(禮)로서, 두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한 뒤 일어나는 것을 총 세 번 반복하는 것이다.

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을 든 손은 깨끗해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되고, 살생을 하거나 어떤 생명이 있는 것에 해를 주거나 꽃이나 풀을 뜯고 나무를 베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때리거나 탁자를 때려서도 안 되며,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나 나쁜 일도 해선 안 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입은 깨끗해야 한다.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해선 안 되며,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욕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며, 시비를 가려서도 안 되며, 남을 속여서도 안 되며, 성실하고 진실해야지 거짓을 꾸며선 안 돼."

할머님께서 아흔 둘에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염불을 들으며 어둠속에서 한 자씩 한 구절씩 최대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천 번 만 번 당부한 가훈으로 예순 둘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저의 귓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허약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집에서 외할머님과 늘 같이 잤습니다. 매번 외할머님께서 제가 한밤중에 숨이 끊어지기라도 할까봐 매우 불안해하시며 저를 꼭 껴안고 주무셨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임종 때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애는 틀림없이 살 수 있어. 향을 피울 수 있는 깨끗한 두 손과 염불할 수 있는 깨끗한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제 병은 수혈이나 약이나 주사로써 전혀 좋아지거나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수혈해야 하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요.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갈 무렵, 빈혈과 산소결핍으로 인한 발육장애로 몸에 이상이 와서 1년 남짓 병치레를 해야 했습니다.

서른 여섯살 되던 해, 저는 수혈할 시기를 놓쳐 11개월 동안 혼미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돼 버렸습니다.

마흔 넷살에는 일 년 내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내리지 않아, 열 달이 넘어서야 침대신세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선 네살에서 선 여덟살 사이에는 연거푸 수술하느라 병원이 집이나 다름바 없었습니다.

예순 하나에는 빈혈과 산소결핍으로 인해 다리가 심한 괴사로 문드러져, 수술을 또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오늘에야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지중해빈혈의 성적표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이런 몸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이렇게 생사를 헤매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 오늘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뿐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감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외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타고난 임무와 사명이 있으며, 모두 세상에 태어난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감하게 살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순 돌까지 살아남은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깨끗하게 향을 피울 수 있는 두 손과 깨끗하게 엮을 수 있는 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정말, 이뿐입니다.



새해

새해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경전에 '부처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운명을 만날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행복과 불행, 부와 빈곤이나 성공과 실패 모두 자기로 인한 것이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해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도록 노력합시다. 눈썹사이를 찡그리는 미운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보름달 같은 얼굴이 바로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자상한 얼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건강과 재물, 명예와 지위 등을 누리는 자신을 바꿈으로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왜 염주를 지닐까요

염주는 원래 ‘불주(佛珠)’라고 합니다. 불주의 본래 의미는 ‘죽이지 않는다(弗誅)’입니다. 그리하여, 염주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도 죽이지 않고, 상대방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장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은 생명들을 수없이 죽이고 맙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명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한 것을 신은 모두 기록하며, 이 작은 생명들이 단명한 만큼 그의 수명에서 삭감해 그 사람의 수명은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단명을 타고 났으나, 부단히 크고 작은 동물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해 수명을 길게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명을 신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 사람의 생사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불치병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수(陽壽)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기계에 깔려 죽는 등, 각종의 사고로 갑자기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불치병도 없는데, 죽을 때가 되니 그냥 죽어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목숨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생하지 않으면, 염라대왕도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분들이 방생할 때 염라대왕도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저는 불치병환자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중해빈혈을 앓아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골수는 조혈기능이 없어서 돌이 채 되지도 않아 이미 다른 사람의 혈액에 의존해 나약한 목숨을 지켜 왔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제 병을 고치기 위해 명의와 비방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셨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백약이 무효한 상태여서 수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제게 늘 어떤 생명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천 번, 만 번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과 제 목숨을 직접 바꾸는 이치로, 염주를 걸어주시며 절대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주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거나 쇼크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니께 경고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겐 내일이 없어요. 아무리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살아봐도 별 볼일 없는데, 왜 이렇게 큰돈을 들이며 애를 쓰십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가족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게 “당신은 오늘날까지 무엇을 의지해 살아왔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저는 “염주요, 영원히 살생하지 말자는 맹세와 한평생 지켜야 할 계율 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신도 염주를 지니고, 살생하지 않는 계율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맹세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복을 받아 순조롭게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볼 것이며 수명장수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살생의 정의

1. 생명을 죽인다 :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동식물로 하여금 고귀한 생명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2. 사람의 살 길을 뺏는다 : 다른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기회나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는다.
3. 다른 생명의 앞길을 막는다 :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개미동굴을 막는 것, 물건을 사고 팔 때 값을 깎는 것, 다른 사람의 살 길을 막아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등.
4. 다른 사람을 핍박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세운다 :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가해 살 수 없도록 한다.
5. 다른 사람의 장사를 뺏는다 : 물건을 사고팔 때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투거나 빼앗아 다른 사람의 일거리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한다.
6. 구제기금을 도용한다 : 공직에 있으며 빈민구제기금을 도용해 구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는다.



처음 한 방울 피만 흘리지 않아도, 싸움은 면할 수 있다.

마지막 한 마디 말만 하지 않아도, 논쟁을 끝낼 수 있다.



저는 줄곧 염불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님과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매일 염불하셨습니다만, 늘 이런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신이라고만 생각하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혈할 때가 되면 여전히 수혈하러 가야 하고 철분배출도 해야 하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지 두 분께서 따라 읽으라고 하니깐, 또 말을 들어야 하니깐 마지 못해 착하게 읽긴 했지만, 내심 그렇게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입이 있으니 온종일 쉬지 않고 외우지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병을 고치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너무 쉬운거 아닌가요?

올 7, 8월에 저는 지중해빈혈로 인해 다리가 심하게 문드러지더니 점점 괴사로 발전해, 세 군데 병원에서 모두 다리를 꼭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몸의 터럭이나 살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감히 상하게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에, 주치의께 집에 가서 부모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그럼 만약 부모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씀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또한 생각이 아주 밝아서, 이미 다리가 이만큼 썩었으니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7시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로 이미 예약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리가 없는 장애자가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진정시키죠? 가족들에게 휠체어를 끌고 아래로 내려가 바람을 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25일간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운데 햇볕이 좋은 곳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리가 있는데 저는 답답해져 왔습니다. 보고 있자니, 점점 더 마음이 못 견딜 것 같아 병실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녹음테이프를 버리러 왔습니다. 이걸 그의 가족한테 부처님명호를 읽어 주던 것인데, 이 환자가 이미 죽었다고 그걸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여태껏 늘 외할머님께서 제 곁에서 염불을 중얼거리셨는데, 이젠 외할머님도 떠나시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다음날 아침 다리를 잘라낸다고 생각하니 더 할머니가 그리워지면서, 그 테이프를 주워 녹음기에 꼽고서 아미타불명호를 따라 부르다보니, 정말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낮 나간 사람처럼 한 번 또 한 번 명호를 불렀습니다. 외할머님을 떠올리며, 내일 다리가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 명의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조심조심 상처부위를 관찰하며 절단할 부위와 썩은 살을 도려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고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의들은 상처위에 탄력붕대를 몇 층이나 감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일 아침 씻을 때 부주의하게 소독약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6시가 넘자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리는 올려져 씻겨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얼마나 깨끗하게 소독하는지 껌질조차 다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말없이 집도의와 마취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이미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 사이로 걸려있는 제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죽음

을 당하는 짐승처럼 도살장이나 시장의 정육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한평생 어떤 사람, 어떤 생명도 해친 일이 없는데, 왜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마침내, 집도의께서 조수 다섯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리의 썩은 상처위에 감은 탄력붕대를 풀더니 갑자기 놀라서 고통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는 정신이 몽롱해져 있던 저를 정신차리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치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썩은 다리야? 어떻게 멀쩡해?”
모두들 몰려와 둘러섰습니다. 모두 한 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썩은 다리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긴 했지만, 주치의께서는 그대로 다시 병실로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회진하시는 의사선생님과 주치의는 여러 차례 의논한 다음, 다시 상처를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수술도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문드러진 근육이 지중해빈혈의 심각한 빈혈과 산소결핍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외부적인 상처는 스스로 완전히 봉합되어졌습니다. 썩어서 어쩔 수 없던 상처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죠.

제가 정말 염불을 해서 기적이 나타난 걸까요? 만약 저처럼 염불을 해보지도 않은 ‘현대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인간’이 염불을 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한 평생 천만번 그렇게 공을 들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염불은 의심할 나위없이 더 효험이 있었겠지요.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이것이 아마도 중요한 이유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염불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렇게 쓸모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제 머릿속은 뿌연 안개로 가득해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비록 대중교가들을 접한 적이 많았지만 그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건 마음이 지성을 들일 때 생기는 신비한 힘으로 이상할 것 없어요”라고 말하고, 어떤 친구는 “염불하지 않았어도 줄곧 그렇게 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닦아왔으니 당연히 하늘이 감동해 썩은 살이 바뀌는 기적을 나뉘 보이신 거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너무 심오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저로서는 단지 우연히 녹음테이프 하나를 주워서 그 염불을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인내로 대처하라.

기쁜 일이 찾아오면 덤덤하게 대하라

저자주 1 : 본문에서 서술한 수술의 진행과정은 환자인 제가 당시 현장을 기억나는 대로 쓴 것으로 설령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다하더라도, 환자로서는 더 이상 알기가 힘들습니다. 아마도 각 의사마다 그 테크닉이나 처리방법이 다를 것이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 별일겁니다.

저자주 2 : 제가 염불한 것은 단지 부처님 명호일 뿐,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염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염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과 부처가 되는 것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으로 저를 찾아 옵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제게 수행을 잘하라고, 염불을 잘하라고 권합니다.

말씀드리려니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전혀 수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불하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염불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떤 스님들께서는 제게 열심히 수행하려고만 하면, 내세에는 틀림없이 몸을 바꿔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이며, 만약 운이 좋으면 남자 몸을 받아 대장부가 될 수도 있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나 저는 이생에서 이미 매우 만족하여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세에도 저는 여전히 여자이고 싶고, 이와 똑같은 처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계속 외할머니의 사랑스런 손녀이자 어머니의 딸로, 평생 그분들의 반려자가 되고 싶고 다섯 아이의 엄마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생의 이런 모습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운이 좋고 행복하다고 여기니까요.”

스님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고개를 크게 흔드시는 모습이, 아마도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옛말에, “종정(鐘鼎)과 산림이 모두 각각 타고난 천성이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사람이 되기에 적당하지, 부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고 떠나시기 전에, 늘 제게 “넌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약 될 수만 있다면, 절대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제18장 제23절에서 제32절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 만약 진정 정의로운 자가 한 명 있다면, 신은 결코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으며, 이 사람으로 인해 이곳을 보호해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스님께 매우 돈독히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한 평생 노력해서 신의 마음에 드는 진정한 의인(義人)이 되어 꼭 타이완을 지켜내겠습니다. 신은 진어자(真語者)요, 실어자(實語者)요, 불광어자(不誑語者)이시므로,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신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타이완을 살피시어 멸망하거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스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동자야, 열심히 노력해라. 사람이 되는 건 부처가 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1. 성경 창세기 제18장 제23~32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

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 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2. 만약 제가 백년 후 자신의 모습을 정할 수 있다면, 여자 토지신(土地婆)이 제일 되고 싶습니다. 그 몸으로 이 타이완 땅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해, 영원히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간세상의 정토 낙원이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할 수 있다면, 저는 타이완 육도중생의 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영원히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충만한 중생의 자상한 어머니길 원합니다.



방생과 완전해짐

이번에 들어온 프로젝트는 대부분 일본, 독일, 미국 등지의 고객들과 관련되어 있어 그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국제특허사무팀에서도 세계수준급의 매우 비싼 제도기계들을 사들이고 거액의 안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 제일의 신형전자동제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은 모두 빨리 경찰에 신고해 도둑맞은 것을 상대방이 팔기 전에 찾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료가 범인으로 찍혀 한 평생 그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인품과 인격이 이 비싼 제도기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에, 도저히 경찰에 알릴 수도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욕심을 냈을 거라는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중에 월남에서 온 난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월남에서 타이완으로 도망와서 아무 의지할 곳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며 빈곤과 질병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대로 괜찮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입에 풀칠할 만한 자리도 제공했으나, 그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고 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 그것을 만족시키기가 이젠 힘들어졌습니다.

기계가 없어지자, 이 월남 직원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직원이 그의 관계자료를 찾아보려 했지만, 인사부문에서 그에게 상처를 줄까봐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제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적이 없고, 등 뒤에서 자신의 동료를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아, 같은 업계의 사람이 친구를 통해 힘들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매우 비싼 신형전자동컴퓨터제도를 팔러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부른 가격이 합당한지 어떤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급기계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 한 대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에게 기계를 팔려는 사람이 아주 궁색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의 앞길을 막으려는 마음을 품을 수 없었고, 그의 명예가 훼손당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격은 매우 싸입니다. 아주 살만 하네요. 만약 조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람들을 보내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걸 사십시오!”

뒤에 그는 과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이 기계를 구입했지만, 구입자도 판매자도 모두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내 도와주도록 하고, 중요한 부품들을 한 무더기 달려 보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도난당할까 걱정했던, 가장 아끼던 것들로 모두 특별히 개인금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계를 모두 훔쳐갔다고 할지라도 전혀 사용이 불가능해 기계는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가 이런 기계를 수입한 적이 있는

데, 뒤에 다른 공장 것으로 바뀌어서 이것들은 놔둬 봐야 쓸모가 없으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물건들을 안볼 수 있겠다 싶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쪽에 가서 도움을 주고 돌아온 동료가 불만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우리가 잃어버린 신형 전자동컴퓨터제도기고 고유번호도 같은데, 왜 경찰에 알려서 찾으려 하질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계를 잃어버리는 건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아.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일생의 대사지. 기계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인품과 인격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 상대방을 까발리려고 하지 말게. 돈 몇 십만 원(대만 화폐) 때문에 한 개인의 평생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게. 그에게 살길을 열어줘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게!”

이 월남 동료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월남난민의 구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당한 지위와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녀도 많이 났고 가정도 행복한 편입니다. 그는 여러 번 제게 과거에 그가 판 기계비용을 갚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말 부득이한 형편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훔쳤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말해서 알게 된 것이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 어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죄를 씌울 수 있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스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저는 그동안 줄곧 이 사람을 잊고 싶었고, 정말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십년이 지나서 그는 뜻밖에 온 가족과 함께 타이완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은인처럼 모시는데, 난처해져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신이 흠뻑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자네가 흠뻑했다고 말할 수 없네. 만약 정말 나에게 배상하길 원한다면, 그 전액을 월남난민들에게 쓰게나!”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의심일 뿐이어서,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동료를 심판하거나 자기 동료의 죄를 판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오로지 자신만이 분명히 하는데, 왜 자신 스스로 심판하고 그 죄를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저는 매우 간절히 이 월남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영원히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바른 군자이길 바라네. 옛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했네.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하거나, 모두 다 지나가게!”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으니 한 때 자신의 미혹함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포복과 부담이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그를 잊고, 그도 철저히 과거의 자신을 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면, 우리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또한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은 항상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로 우리 어떻게 용서할지 결정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닌가요?



말하기 힘든 비밀

저는 처음 타이베이 기차역 앞에 사무소를 열었는데, 전체 직원이 21명으로 대부분 관련대학원 졸업자들로서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처음 열 달 동안, 어떤 건수도 없어 거의 돈을 빌려다 써야할 형편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부담을 좀 해소하고자 인원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모든 직원들이 맡은 책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입을 떼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전당을 잡힐만한 물건은 모조리 맡겨서 돈을 충당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장 갔다 막 돌아오는데 출납회계를 보는 여직원이 아연 실색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서랍 안의 자금회전용 공금을 모조리 도둑맞았어요!”

여직원은 또 서랍의 열쇠통도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열쇠수리공을 불러다 수리하고 고급 수입열쇠를 더 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열쇠공을 불러오도록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공을 불러 서랍 안팎의 열쇠를 모두 뜯어내고 어떤 열쇠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매우 불쾌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잘 수리해 놓은 열쇠와 방금 단 수입열쇠를 모두 떼버리게 하세요?”

이로 인해, 이 여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썼고 저더러 미쳤다고 비분강개했습니다.

이튿날 저희들의 자금회전용 공금은 또 도난당했습니다. 원래 재정이 힘든데다, 이제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께 돈을 좀 빌렸습니다.

삼일 쯤, 거금의 자금회전용 공금이 또 도난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까워서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갈 때까지 가서 어디에도 손을 벌릴 때가 없어 아픔을 무릅쓰고 결혼기념으로 마련한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사일 쯤, 만 원(대만화폐)만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일 쯤, 서랍을 열어보니 모든 공금이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울고 말았습니다.

이 닷새 동안 동료들은 저의 바보 같은 행동에 어처구니없어하며 매일 몇 명씩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마도 ‘이런 멍청한 사장과 일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빌린 돈이 도둑에게 줄려고 놔둔 것이라는 걸 아시고 더욱 화가 나서 오랫동안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들과 돈을 모두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도둑에게 훔쳐가라고 놔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결국 충분히 훔쳤고, 다시는 어떤 돈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자금회전용 공금을 도단당해 사무소 전체 재정이 너무 힘들어져 월급조차 해결하기 힘들어지자 많은 직원들이 잇달아 말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이 도난사건과 월급을 주지 못한 일은 시아버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

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정말 고의로 돈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훔쳐가라고 한 일이 사실이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엄마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말하기 힘든 비밀이 있을까 염려됐고, 급히 도움을 얻지 못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큰 재난이라도 닥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대한 많은 돈을 갖다 놓고 훔쳐가도록 해서 몰래 돕고 싶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서는 두툼한 봉투의 거금을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천성이 그러니,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이 돈을 먼저 급한 대로 쓰거라.”



거의 십여 년이 지나서, 저는 35만 원(대만 화폐)이 넘는 거액의 수표를 받았습시다. 거기에는 이름도 쓰지 않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돈은 당시 사무실에서 분실된 31만 원이며, 나머지는 십년 동안의 이자이오니, 부디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십여 년이 지났습시다. 저는 지중해빈혈의 발작으로 인해 타이베이 의 룡민중병원(臺北榮民總醫院)에서 몇 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오십대의 낯선 부인이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서, “자, 할머니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저를 가리키며, 아이들로 하여금 할머니께 안부를 여쭙도록 했습

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낯선 부인은 저의 침대 옆에 앉아서 줄곧 눈물만 흘리며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세심하게 저를 보살피다가, 오후 6시 반이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부인은 또 와서 어제와 똑같이 보살피었습니다.

셋째 날도 또 찾아왔습니다.

넷째 날도 여전히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녀는 아주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제게 카드를 건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도대체 누구세요?”

“저는 소장님 사무실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동료에게서 소장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뵙고 보살피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십여 년 전에 부쳐드린 수표 받으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받았네. 그런 마음 고마워. 그리고 덧붙인 이자는 누가 부친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돌려주려던 참이었네.”

“아닙니다, 그건 이자예요, 만약 받지 않으시면 제 마음이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게.”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입니다. 바로 금생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저는 반드시 진심으로 효도해 보답하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끊었다 이었다 하며 줄곧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제 사무소의 일을 시작할 무렵, 어느 날 퇴근길에 아주 난폭한 택시기사를 만나 산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도 모두 찢겨졌습니다.

그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집안형편도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힘든 비밀을 누구한테 가서 털어놓겠습니까?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루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음부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그치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그 택시기사는 아주 심한 성병환자였고, 그녀는 이미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불행한 건, 그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당시 낙태수술은 위법으로 합법적인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법시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매번 다시 살아나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열쇠를 다 떼 내게 해서 고의로 제가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리고 돈을 왜 점점 더 가져다 놓으셨나요?”

저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 그녀와 남편과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 부부가 모두 이미 박사로 현지의 국립학술기관에서 근무하는 터라 휴가를 오랫동안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미국에 가서 저희와 함께 사시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모두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하며, 또 어머니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게 오늘이 있게 한 건 제게 베푸신 은혜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더욱 더 크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키며, 솔직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며 자네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게 착한 딸과 사위와 외손자 세 명이 새로 생겼고, 게다가 미국 박사들이니 이만큼 고생한 것도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자주 1: 이 일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명예를 위해 증거를 찾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저자주 2: 자금회전용 공금이 도난당하고 나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훔치는 사람을 보게 될까봐 염려되었고, 훔치는 사람이 저를 보게 돼 견디기 힘들어 할까 더욱 걱정했습니다.

저자주 3: 제 사무소는 한창 잘나갈 때, 총 직원이 이백 명이 넘었고 각 팀은 각자 독립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주요간부들을 제외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저자주 4: 저는 지중해빈혈로 인해 종종 큰 병원의 응급실 신세를 지고 삽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 중에는 친한 친구들을 비롯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각 방면에서 인연이 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감으로 종종 상대방이 누군지 기억을 못하므로, 혹 실례라도 할까 염려되어 직접 상대방에게 ‘실례지만, 누구신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확실히 기억하는데, 미안하니까요.



피에 묻든 면사포

저희 집은 부모님의 명령이 하느님의 뜻과 다름없어, 자녀는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하며 의문을 가지거나 반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 때문에, 혼자 타이베이현(臺北縣) 타이산향(泰山鄉) 부근의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과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외할머님께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찾아뵙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오늘 저를 시집보내기로 했으니,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으면 오전 9시경에 신랑 될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데리러 갈 때 혼례복도 함께 가져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출근은 어떡합니까?”

아버님은 매우 화를 내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출근은 무슨 출근이냐? 시집갈 사람이.”

저는 또 물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요?”

아버님은 듣고 나서 더욱 화를 내시며 큰 소리로 호통치셨습니다.

“시집가라면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네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냐?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겠어? 네게 부모가 있어 대신 결정해 주는 건 다겁쟁에 수행한 큰 복인데, 좋아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걱정이냐?”

아버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 된 자는 부모님을 화나게 해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언짢게 해서도 안 되고, 대드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지만, 저는 내심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날 데리러 오는 걸까? 똥똥할까? 아니면 말랐을까? 무슨 과를 졸업한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도대체 누굴까?”

마음속엔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형용하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와 저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집가라면 가는 거야, 어쨌든 아버님의 명령은 ‘어긴 자는 죽어도 사면이 불가한’ 하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어찌했습니까?’

화장대 앞에 앉아서 순간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 내렸습니다. 얼굴은 온통 축축해졌고, 이미 화장조차 할 수 없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갖 폭죽소리와 함께 긴 자가용행렬이 나타났고, 목석같은 몽롱한 정신이 돌아와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나가봐야지.

신랑측에서 가져온 혼례복을 황망히 입고 장갑을 끼고, 귀걸이와 팔찌, 목걸이 등 장식품을 달고, 이것들이면 됐다 싶어,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신랑측의 사람을 따라 나갔고 그들은 저를 차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다시 폭죽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마치 아주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머릿속은 온통 파도로 용솨음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시집가는 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멀까?

여섯 대의 자가용은 한 마리 용처럼 중흥대교(中興大橋)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당시 타이베이현에서 타이베이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면서도 줄곧 폭죽을 터트려 신나는 결혼식의 축하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중흥대교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앞에는 사람들이 온 도로를 뺨뺨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계속 고함을 지르시며, “신부를 태운 차는 도중에 세우면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선 이미 막혀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두세 사람이 우리 차로 달려와서, 유리를 두드리며 저희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앞에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한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록 고개를 숙인 제가 온 몸에 희고 무거운 혼례복을 입고 면사포까지 쓰고 있었지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의 남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해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자초지종도 따질 겨를이 없이 급히 차에서 내려 사고지점으로 뛰었습니다. ‘아, 가엾은 아이!’, 알고 보니 초등학생이 대형차에 치어 전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아이를 앉았고, 면사포는 피에 물들어 축축해져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기사에게 차를 돌려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한 다음, 경찰은 저를 불러 조사하고 각종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은 영겁결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면사포는 한번 쓰게 되면 다시 벗을 수도 없으며 갈아입을 수도 없는 법, 저는 온 몸에 핏자국을 남긴 채 신랑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을 차리게 되자 정신이 멍해진 저도 차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고를 쳤구나, 이미 우리 고향의 엄한 금기를 저버렸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미 신랑집에서 쫓겨날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 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시간을 거꾸로 돌려 다시 하라도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이 온 힘을 다해 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비참한 지경이 되더라도 이것은 모두 제가 겪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달게 받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신랑집에 이르러, 누군가 차문을 열자 곧 한 쟁반을 들고서⁸⁾ 차에서 내리는 저를 맞아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에서 내리자 모두들 놀라 고향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온통 핏자국이에요?”

“어떻게 흰 혼례복에 이렇게 피가 묻었나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예복을 아래로 늘어뜨리니, 온통 피범벅이어서 화동들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신랑측 사람들은 모두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 혼자 밖에 섰습니다. 그들은 긴급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신부를 먼저 들어가게 하게. 보러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보기 안 좋아!”

저는 위층의 구석방으로 안내되어 줬습니다. 그렇다고 신방 같아보이지는 않았고, 저는 그냥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에 갖추는 연회나 주례, 시부모님을 뵙는 것도 모두 생략하지. 온몸이 피범벅인데,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겠어?”

밤이 깊어 사람들 기척도 없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 울수록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제 운명을 돌이켜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면, 우리가 차로 널 데려다 줄게야. 우리는 이미 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8) 역자주: 타이완의 풍속 중 하나로서, 신부를 맞이할 때 이 굴은 길조를 상징한다.

듣자마자 저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동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왜 지금 너 자신을 잘 돌볼 생각은 하지 않아? 네가 흰 면사포를 썼다고 무슨 흰 옷 입은 관세음보살인 줄 아냐? 주제넘게!”

그러자, 저는 만약 제가 돌아가게 되면 목을 매달아 죽을 거라고 말하자, 그녀는 잠깐 멍해지는 것 같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랑이나 가족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벽에 기대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몽롱해진 채, 어렴풋이 저희 집이 제가 죽음으로 인해 극도로 가계가 힘들어져 비참해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어선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저의 가족들도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일생에 한 번만 결혼할 수 있어 면사포는 한 번만 쓴다는 것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종법이어서, 제게는 기회가 다시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용기를 내어 신랑 측의 의견대로 돌아가겠다고 중매쟁이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져가신 돈은 제가 갚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도로가의 창문이 점점 밝아져왔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다시 따져 묻지 않고 몸을 팔아 술을 팔든 춤을 추든 하루 빨리 부모님께서 빌린 거액의 돈만 갚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인가?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이 새면, 여길 나가도록 합시다. 당신 몸이 피범벅이라서 온 식

구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나가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집을 온 사람으로 이 집 귀신이 돼야 하는 마당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 본 이 남자를 따라서 누구와의 인사도 없이 몰래 밤새도록 앉아있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또 저희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방만 달랑 하나 있어서, 두 사람이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들은 부부간의 일생지대사를 치르려 했습니다. 저는 신랑이 저를 내버리지 않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조차 잃어버렸다’며 줄곧 찬탄해마지 않았습니 다. 그는 저의 자비는 정말 천지신명도 감동하실 거라며, 너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삶이 끝났다고 단념하던 차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다니 요, 천지신명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일 년 뒤, 큰 딸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먼저 혼인신고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들고, 저보고도 신분증을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첩장에 인쇄된 이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해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멍청하네요. 그럼 누구에게 시집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말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자란 삼중사덕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온 힘을 다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 알뿐이지, 어린 소녀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당신과 결혼할 사람은 원래 우리 사촌형이었소. 그런데 형이 당신의 몸이 피범벅이 된 것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르신들께서도 난감해지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 모두들 당신을 바로 돌려보내자고 의논했소. 그러나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하면 당신이 목을 매달아 죽을 것이라고 하셨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당신을 쫓아내는 것에 반대했소. 나는 재삼 신부의 마음이 선량하고 아름다운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죄인가요?’라고 반문했소.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생각은 철석같이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소. 난 사람만은 구해야 된다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고 묘책이 떠올랐소. 난 용감하게 당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 결혼을 짊어지기로 작정했소. 어쨌든 당신은 신랑의 얼굴을 모르니, 누구한테 시집을 가든 같은 셈이 아니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은 못살게 되어 귀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저는 다 듣고 나서 정말 화도 나고 고맙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몇 칠 동안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미안해하며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이년 후, 그는 저를 데리고 타이완대학 사거리에 있는 암환자병동에 장기간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환자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보아하니 친척 같았습니다. 첫 눈에 보기에 어쩐지 아는 사람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소개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사촌 형이요, 우리 삼촌의 외아들 말이요.”

뒤돌아보니, 그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삼촌과 숙모님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두 분이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아들이 간암을 얻었는데, 이미 말기였습니다.



저는 입원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제가 이 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 집안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해 당신과 혼인하려던 진짜 신랑이고, 그 노부부가 바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었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분들을 좀 보살펴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의 딸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모셔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백년을 같이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천년을 같이 수행해야 같이 베개를 베고 잔다 했거늘 부부의 인연이 비록 피에 젖은 면사포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는 지는 못했지만, 하루 동안의 귀한 정이잖소. 물을 마시면서도 그 근원을 생각하는 법이니, 당신의 선량한 마음과 생각에 뜻을 같이하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피에 젖은 면사포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른 건 아닐까? 내가 그날 정말 재수 없는 신부였던 걸까? 옛말에, 부

부인연은 하늘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 뜻은 전혀 없는 걸까? 왜 나와 결혼하기로 하고서 내쫓은 걸까?’

삼십여 년 동안, 저희 집안 식구들은 매우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의식주에 구애받지 않았고, 다섯 명의 자녀들도 모두 효순하고 말을 잘 들으며 모두 국내외 일류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런 신부를 왜 맞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인색하게 내몰려고 했을까요?

저희 가족들은 말다툼이나 싸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인연, 이런 복분을 아끼며, 서로 한 평생 갖은 노력을 다해 한 집안의 평화를 지켜 집을 인간세상의 정토낙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부부는 떨어진 적이 없이 영원히 손에 손을 잡고, 기쁘게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모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넉넉한 수입이 있습니다. 옥에 티 같은 지중해빈혈만 빼면, 저는 이생에 어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피 묻은 면사포가 덮어준 것은 무궁무진한 복이지, 어떻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거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신부를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재수 없는 일이라도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려던 세속의 미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사람을 구한 피로써 저와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몸에 묻은 피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고 재앙을 불러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은 대신 증명해 줬고, 남편의 선택은 옳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 같은 이런 여인을 누가 내치겠어요? 만약 우리가 신랑이

있어도 그날 피범벅이 된 면사포를 쓰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어머니께서 사람을 구하다 늦은 시간이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길일걸시인거죠!”

자녀들의 위로를 들을 때마다 매번 뜨거운 눈물이 그치지 않는 슬픔의 비처럼 똑똑 흘러내립니다.

문제는, 실제로 신부를 맞아야 할 사람은 신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신방에 들어온 사람은 신부를 맞을 진짜 신랑이 아니었는데, 저는 진짜 결혼을 한 건가요? 저는 누구와 결혼을 한 거죠?

저자주 1: 어떤 독자는 질문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 저희 성(省)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가 출가하는 것은 옆질러진 물과 같아서, 만약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오면 최악의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믿어, 친정의 형제자매들은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제 경우는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파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동업자와 합작해 대형 인쇄공장을 차리고 달력과 신문, 잡지를 전문 제작했습니다만, 당시 경제사정의 악화로 고객들이 도산함에 따라 부모님도 계속해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법원에 의해 경매처분 돼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고 닦치는 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와중에서 불법고리대금업자들의 돈을 융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업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신변에는 이 말을 제외하고 값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혼은 부모님에게 거액의 돈이 들어오게 했고, 저희 집도 그런 업자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 이 결혼을 취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서서는 돈을 돌려줘야 하고, 또 다시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한 집안 식구가 죽지 않아도 되고, 또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중해빈혈병을 가진 불치병환자인데, 제가 한 생각만 돌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철이 없어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사람을 구하다 면사포가 피범벅이 되어서 부모님을 다시 그런 암흑가의 업자들 손아귀에 다시 빠트리게 될 뻔했지만요. 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비애가 있는데, 이걸 당사자가 아니면 실감할 수 없습니다. (이 빚은 제가 결혼하고 십년이 지나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 묻은 면사포의 대가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자주 2: 이 피투성이의 면사포는 제가 환갑잔치를 치르며, 온 가족이 축복하는 자리에서 분화시켜 천지에 헌납했습니다. 그해, 대어점에서는 이 면사포를 안 받겠다고 해 그 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삼 년간 끈질기게 교섭했지만, 쌍방이 모두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배상할 수밖에 없어 생활비는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제 생활은 매우 힘들었고, 큰 딸의 분유 값조차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가계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사람이 불쌍해지면, 무슨 일이든 모두 애처롭기만 합니다.

저자주 3: 본문의 부분적 내용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원고교정을 보며 삭제된 관계로 전후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이나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이나 깊이 양해바랍니다.



민국 55년(1966년) 9월 말, 저는 출국을 위한 경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서독정부가 제공한 공금은 유학생한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서는 저 혼자 멀리 떠나면서, 집안 식구들의 생활을 두 분께 완전히 전담시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여기시어, 제가 먼저 집안을 안정시킨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여학생으로서 줄곧 직장생활을 하며 탄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들을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월급봉투를 따서 열어본 적이 없으며 월급봉투에서 한 푼도 먼저 꺼내 써본 적이 없이 그대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자폐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를 사귀거나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어디 가서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한 사람이 친히 주머니를 열어 빌려 주겠습니까? 저는 비록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빈곤한 가정의 고충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피는 물보다 진한데, 한 집안의 장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생들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어르신께 간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모두 제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르친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장남은 저보다 두 살 아래였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가르친 고3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와서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아주 전통적인 가정으로 부모님은 매우 자상하시고 자식들은 모두 효순하며 형제자매간에 우애도 남달라 아주 교양 있는 모범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정교사를 하는 동안, 두 어른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시며 특별한 애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계를 받은 불문제자에게 이러한 권세가의 부귀영화는 복을 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지만 멀리해, 친하게 지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곧 그 집안사람들의 사랑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민은 항상 평민이어야지, 어떻게 높은 곳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의 핍박에 못 이겨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우연이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길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이베이 길가에 서서 느끼는 그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함, 정말 “앞에 지나간 이도, 뒤에 오는 이도 없네. 천지의 고즈넉함을 생각하며, 홀로 처연히 눈물 흘린다(前無古人, 後無來者, 念天地之悠悠, 獨愴然而涕下)”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첩판을 깔고 그들을 찾아가 입을 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뜻밖에 이 집안 어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액을 내어주시며, 자상하게 물으셨습니다.

“이거면 되겠니?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더 주마!”

저는 그 자리에서 세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다음에 갚을 것을 생각하니 무턱대고 너무 많이 빌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줄곧 받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법학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오면, 이 정도 돈을 별거 아니란다.”

그날 저녁, 두 분은 아주 정중하게 만약 제가 당신들의 며느리가 된다면, 당신들로서는 정말 다급생에 지은 복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부모님께서는 다른 외부 성(省)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결혼한 다음 제가 대륙으로 건너가서 딸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할까봐 늘 걱정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음력 팔월 보름이 되자, 중추절이라 둥근 보름달이 커다랗게 휘영청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지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달을 보러 나갈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저는 수 천리 떨어진 하늘 저쪽으로 유랑 떠날 것을 생각하니, 매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음력 팔월 열셋새, 달은 어제보다 더 둥글고 더 밝았습니다. 부모 같은 두 어르신과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저를 위해 송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성의를 차마 무시할 수 없어 그냥 그러마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줄곧 술 한 모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열 여덟살에 불가에 들어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은지라, 술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른이시고 줄곧 저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며, 이번에는 이렇게 큰 도움까지 주신 터에 어떻게 술잔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별하는 마당에, 이제 최소 칠년은 못 볼 터인데 어떻게 술 한 모금도 마셔 드릴 수 없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작은 술잔을 들어 조금 마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

이 들더니, 처음에는 어지럽다가 나중에는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주 멋진 새 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꾸며놓은 것이 마치 신방 같았습니다. 제 옷은 속옷에서 겉옷까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곁에는 아주 말끔한 분홍색의 신부 예복과 흰 면사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평생의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가족들의 부축 하에 신방에 들어오기 전 이미 향을 피우고 부모님께 예를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천고의 한을 만든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미웠습니다! 정말 이런 정의로운 가정에서, 이렇게 규범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기운이 없어져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감 잡으시고,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할수록 화를 내시며, 아예 약을 먹고 배 속에 것을 때 내고 나서 다시 말하자고 하셨습니다. 남자측에서는 사람을 보내 부모님께 혼사를 의논했습니다. 쌀이 이미 밥이 됐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서는 그들을 소인배라고 욕하시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시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요구했습니다.

“서독에 가지 마세요, 이미 향도 올리고 예도 갖췄으며 잠도 같이 잔 몸이니,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한 평생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게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생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 또 어떻게 어머니가 독하게 자기 아이를 지우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부른 배로 서독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여자유학생이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삼개월이 되자, 저의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왔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다시는 집안에 발도 디디지 못한다고 못 박으시고, 외할머니께서도 말하기 좋아하는 이웃들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릴 것을 걱정하시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르셨습니다.

저는 서독에 편지를 써서 지도교수님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떠날 수가 없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확실한 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서는 ‘먼저 아이를 평안하게 낳은 다음, 내년에 다시 서독에 와서 공부하도록 하시오.’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자기의 아이를 아끼는 것은 천성인지라, 둘을 같이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타이베이에 남는 방법을 택하고, 편하게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신체의 일부이자, 유일한 분신이며 저의 전부였습니다.

외할머니와 부모님한테 쫓겨나고 나서, 저는 의지할 데라곤 없이 타이베이의 길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을 아주 떠나본 적이 없는지라, 정말 어디로 가야할 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련(花蓮)에 미혼모의 집이 있다고 하고, 타이베이의 신성남로(新生南路)에도 미혼모를 위한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미혼모를 위한 기관으로, 낳은 아기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먼저 가서 물어보라고도 했지만, 어떻게 배부른 몸으로 도처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끌고 오가는 사람과 자동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앞면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하고 또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날은 어두워졌지만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산으로 가서 스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그러나 나는 배 속에 아기가 있는 몸으로 이미 힘이 없어 그렇게 험한 산속의 먼 길과 절벽을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 또 스님께서 계신 곳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장엄한 불교성지로서 모든 대중이 비구인데, 어떻게 배부른 미혼모가 이유 없이 가서 지낼 수 있어? 어떻게 스님께 이런 망신을 시켜 불교계에 오명을 남기게 할 수 있어? 스님께서서는 당대의 종사이신데.’

저는 스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길에서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스님께 의지해 사문에 욕을 보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돈은 한 푼도 없고, 옷 한 벌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때는 십이월 엄동설한,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카롭게 불어오는 찬바람은 사람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추워서, 어려서부터 빈혈과 산소결핍을 앓아온 저의 몸은 줄곧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게 뜨거운 죽을 한 사발 쥐어 주지 않겠어요? 배를 좀 채워줄 수 없나요? 저는 이런 추운 날씨에 뱃속의 아기가 혹시라도 얼어 죽을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직업소개소요? 배부른 여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물어보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도와줄 기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산중(三重)에 공장들이 많은데 여공과 취사원이 부족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가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루저우(蘆洲)에 도착해 벽에 붙은 광고를 찾아 수소문해, 며칠 만에 청소하고 차심부름하며 전화 받는 잡무를 보는 일을 구했습니다. 보수는 매우 낮았지만, 뱃속의 아기와 제가 굶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

다가 수혈과 철분을 배출시킬 수 있는 돈도 꼭 필요했고, 만약 된다면 영양 보조식품이라도 좀 사서 배 속의 아이를 챙겨 주고 싶었습니다.



민국 56년(1967년) 단오절⁹⁾, 뱃속의 아이가 9개월이 됐습니다. 중상대교(中興大橋)에서는 용주대회(龍舟大會)가 거행되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도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허리는 매우 쭈시고 아파서 서있기도 불편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심한 악성빈혈환자는 아이를 낳을 때 매우 위험해 대량 수혈해야함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에는 문제없으시죠?”라고 물었습니다. 문제없을 리 있겠습니까, 이미 세기도 다 못 챙겨 먹는 상황인데요.

‘그냥 아기와 같이 죽어버려? 굴원(屈原)도 물에 빠져 죽었잖아? 마침 오늘이 단오절이니, 물귀신이 되면 굶을 걱정은 없어, 종즈(粽子)만 먹어도 배부르잖아?’

저는 사람들이 밀집한 다리 중간으로 다가가 사람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미 난간위에도 사람들이 뻥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 위에 빈자리가 생기자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뛰어 내렸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이미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구조요원이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물에 빠졌어요?”

9) 역자주: 단오절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애국자 굴원이 물에 빠져 자살한 것을 추모하는 데서 유래한다. 이날 중국인들은 굴원을 기리기 위하여 바다에 용의 모습을 띤 배를 만들어 띄우고 종즈를 바다에 던지며, 물고기들이 종즈를 먹고 굴원의 시체를 그대로 두길 바라는 풍습을 행한다.

저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뒤에, 저는 부근의 병원으로 실려가 태아안정제, 강심제, 영양제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요원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상하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저는 병상에 누워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여학생이 강간을 당한 것도 너무 불쌍한 마당에, 어느 식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고 길거리로 쫓아내어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으니 사회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사회란 게 원래 이렇게 야만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줄곧 애를 떼라고 권유하지만, 자기 손으로 자신의 무고한 어린 생명을 죽이고서도 이 사회를 과연 인간적이라고 인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도 문명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스님은 낙태를 반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아기가 같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든 뱃속 아이의 가냘픈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제가 일을 당하고 며칠 되지 않아, 매달 올 것이 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약으로 뱃속의 태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명은 절대적 존엄성을 가지며, 이 아이의 미래 또한 미지수여서 혹 국가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될 사람일지도 모르고 이 아이 또한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이 대를 이어갈 텐데,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떼버린다면, 내가 없애는 것이 어찌 이 작은 생명에 불과하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맡고 있던 공직과 업무를 그만두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산중(三重) 루저우(蘆洲)의 시골에서 사람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잡일을 보면서 기

아와 싸우며 열 달을 꼬박 보냈습니다. 그 동안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야말로 눈물만이 저와 같이 했으며, 유일한 위안을 주는 것은 깊은 밤 높이 뜬 밝은 달과 그 주위를 뻑뻑이 감싸고 있는 작은 별들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 여자라면 달처럼 생겼을 것이고, 좋은 엄마가 되겠지? 저 뻑뻑한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백혈병과도 같은 심한 빈혈을 앓고 있어, 의사선생님께서도 산전검사를 하면서 줄곧 난산으로 죽게 될까 염려하시고, 태아도 정상적일지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죽고 아이만 남아 사람들의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까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저는 살아갈 용기와 의미를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 저희 모녀가 이 세간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저희들도 행복해질지 모르니까요.

아주 요행히 저와 뱃속의 아이가 모두 구조되었고 태기에 이상도 없어 유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회복하면서, 우리 모두에겐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몸의 터럭과 살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라 누구라도 감히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자보다 강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민국 56년(1967년) 음력 6월 어느 오후, 아기는 제 슬픈 비명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여자였으며 몸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닳새 동안 저는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인해 이따금 구슬픈 비명을 질러 전체 병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뭘 잡으려 하고,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며 아무 말이나 두서없이 해댔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아무리 심해서 고통

을 질러도 제 곁에는 위로해 줄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출산비용은 지불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이어 물었습니다. “아니면 뭐가요?”

저는 솔직하게 병원에 출산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기를 병원에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도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저는 돈 한 푼 없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측에 삼일만 매일 한 번씩 찾아와서 아기의 얼굴을 한 번만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태아는 모두 심한 내상과 외상을 입은 데다 제가 원래 지중해빈혈을 앓고 있는 터라, 의사선생님께서도 제가 난산으로 죽거나 태아가 배속에서 죽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고 또 울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난산으로 죽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또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 손으로만 만졌습니다. 간호원은 제게 경고했습니다. “또 울면, 한 평생 눈먼 봉사가 될 거예요!”

칠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원래 저는 아이가 나오고 배가 꺼지면, 아무 걱정 없이 혼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일이 터지기 전처럼 청춘소녀의 활발한 생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가 다르게 아기를 그리워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으로 돌아가 사장님께 사정했습니다. 돈을 써서 아기를 되찾아 주시면, 외할머니한테 가서 돈을 구해 바로 갚아드리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데리고 돌아가

면 모두들 제 핏덩이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이미 병원에서 한 산모의 사산아와 바꾸어져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미 출생신고도 했고 호적에도 올렸으며, 제 자료는 만일을 대비해 모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청천벽력이 내려치는 것 같았고 한 바탕 미친 듯 고통을 지르다 쓰러졌습니다. 이후, 저는 아기의 어떤 자료도 찾지 못했고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아기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후 거의 팔년간, 저는 퇴근 후나 공휴일이면 늘 산중(三重) 텐타이극장(天台戏院)의 입구에서 낚 놓고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민국 56년(1967년) 추석, 그 남자는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초췌하고 몸이 마른 것을 보고 가슴이 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토록 선생님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 일은 정말 지나간 건가요? 그는 또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서, 한 평생 힘껏 저를 보살피며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 년 동안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 들어왔지만 왜 찾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 애는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도 끄끙거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아무 말도 없다

가, 갑자기 그는 대답하듯 저의 손을 끌더니 딱 쥐여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데리고 같이 미국에 가 주세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로지 선생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내년 추석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국 57년(1968년) 6월 말, 저는 입시요원으로 발탁되어 외부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저희들은 풀려났습니다. 관리직원은 제게 그동안 매일 어떤 남자가 미국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의 풍습에 따르면 올해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울며불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결혼할 길이 없으니, 후배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평생 영원히 저를 기다릴 것이며, 언제라도 미국에 와서 같이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가 결혼하는 날, 저는 전화를 끊자 머리가 어지럽더니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연합고사를 준비하느라 피로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저는 칠일 만에 깨났습니다.

그는 제 학생으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딴 얘기는 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마음 한 구석이 이미 그로 채워지기도

한 건가요?

그의 배우자는 제 후배로서 제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나 후배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선 선배가 그 집안의 만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며, 아무도 그 걸 대신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언니를 존경하라고 하시며, 집안사람들 모두가 언니를 집안의 큰딸로 여기십니다.”

저는 황하의 독이 무너지듯 방성대곡하며 죽어라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는 부모님께 대들며 반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 습니다. 자식 된 자는 말을 듣기만 해야 하고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을 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배우자감은 반드시 저희 성(省) 출신이어야 했으며,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다른 지역사람과는 절대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는데 이런 걸 꼭 따져야 하나요? 한 평생을 같이 살아가기에 인품이 되면 그만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의 행복이 무너지 건가요? 그러나 부모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너보고 우리 집에 태어나라고 그랬냐?”

천하에 부모 아닌 자가 없으니, 잘못된 무조건 자식한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운명을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순 둘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감히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부모님께서선 한평생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시면서 이미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거기다 고통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할 지라도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못하며, 설령 저희가 힘들더라도 그것

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집안의 전통인데, 이것 또한 좋은 거 아닌가요?



민국 59년(1970년) 부모님의 뜻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남2녀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일초도 큰딸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줄곧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불편한 마음으로 매일 산중(三重)에 가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지금 자식이 네 명이나 있잖소? 왜 매일 울면서 그 애만 생각하는 거요?”

아마도 엄마가 되어 본 사람만이 엄마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모든 자식은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제각기 모두 비할바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첫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할 때 너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두 눈이 멀쩡하나 자신의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팔려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해마다,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온 힘을 다해 길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안고 있는 아이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식구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현재 가진 것을 아끼며 왜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느냐고 충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온 심혈을 기울여 집안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집안을 살피지 않았고 네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것입니다.



14년 후:

민국 70년(1981년),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의 자비대원을 위해 반드시 휴가를 내어 스님을 대표해 의무적으로 공개석

상에서 장엄하게 국태민안을 기원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현지 신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형님들을 따라 산중(三重)으로 법회를 준비하러 떠났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장부의 상(相)을 중시해 여자가 법기를 만지거나 불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량의 출가승이건 신도이건 남녀 모두가 남장(男裝)을 하며, 남성의 ‘사형’이라는 호칭을 쓰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 몸을 받을 수 있는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그와 같이 열심히 정진해 성취하기를 바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불문의례에 근거해 남장을 했습니다.

제가 법회를 주관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중생이 다가오더니 자신의 어머니를 저 앞으로 모셔 와 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구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중생의 어머니는 아주 난처해 하며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남잔데, 어떻게 네 엄마일 수 있겠니? 하물며 스님은 출가자인데, 어떻게 너를 낳으실 수 있니?”

이 여중생은 부인하며 다시 틀림없다고 우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봤어요, 틀림없이 우리 엄마예요!”

저희 밀종(密宗)에서는 관상(觀想)할 때 마음이 흩어져선 안 됩니다. 만약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 학생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이 여중생이 어머니로 인해 강제로 이 도량에서 쫓겨났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이 여중생을 만나지 못했고 그렇게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잊었습니다.



민국 71년(1982년) 말 10월경, 사형님들께서는 또 한 번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산중(三重)에 법회를 거행해 나라의 안녕을 기원코자 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유연해 밀교의 수인(手印)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에도 제가 법회를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퇴근 후 서둘러 도랑에 가서 스님들을 대표해 장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몸에는 금강상사(金剛上師)의 가사의 수하고, 머리엔 오불관(五佛冠)을 쓰고 대장부상으로 장엄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고생이 자신의 부모님을 끌고 저 앞으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이 분의 저희 어머니세요, 이 분이 우리 엄마라구요!”

2년 전의 그 학생과 거의 흡사했고, 그 어머니의 반응도 예전과 비슷해 그럴 리 없다고 하며 스님이 남자고 출가자인데 무슨 엄마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고생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나중에는 고향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정말 당신의 딸이에요!”

저는 매우 난처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이 여고생이 법회를 방해할까 걱정하며,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도록 타일렀습니다.

저는 모든 정신을 불사에 집중해 마음을 흐트릴 수 없었으므로, 이 여고생과는 정식으로 만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국 72년(1983년) 1월:

삼개월 뒤, 갑자기 이 여고생은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 나타나 몰래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이미 점쟁이들이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는니 요물을 없애야 한다는니 하는 통에 미칠 것만 같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사기가 어디에 있나요? 또 미쳤다고요? 이 여고생은 단지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첨단과학의 시대에 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믿는 겁니까?

저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꾸짖으며, 당장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아직 미성년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러선 안 되며, 또 어디서 온 아인지도 모르는데 식구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고생은 고집이 매우 셧습니다. 당돌하게 말하기를,

“당신은 제 어머니입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집이죠. 왜 제가 자기 집에 와서 살면 안 되고 꼭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집의 자식을 바보같이 그냥 키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안정되어 있고 16년 동안 이 가정에 길들여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온 집이 발칵 뒤집혔고, 저는 정말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입적하시면서 제게 비단주머니 세 개를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일찍이 민국 70년에 큰딸을 만나고 71년에 또 만나고, 72년에 이 큰딸과 함께 온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사이에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또 네 명의 자녀를 봤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큰딸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집안 식구들에게 어떻게 상처주지 않고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16년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이 여학생이 정말 내가 그때 오래전에 잃어버린 큰딸일까?’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정말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과거에, 제

가 너무 오랫동안 울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 저는 아이의 얼굴만 더듬었지 생김새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스님을 떠올리고, 또 그 비단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주 공손하게 불전에서 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다 되어서, 큰딸을 키우려고 모녀가 기쁘게 만나 끌어안는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쓰여 있었습니다.

‘노란 교복, 학번 XXXXXX’ (저자주 참조)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어느 학교 다녀요? 학번은요?”

이 학생은 일일이 다 말했습니다. 그는 징메이여고(景美女高) 1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번은 XXXXXX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교복과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스님의 주머니에 쓰인 내용과 뜻밖에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고생을 쓰다듬으며 꼭 껴안고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큰딸 스스로 정말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3이 되자, 큰딸은 이과를 선택했으며, 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남기신 비단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적힌 것은 문과였고, 분명히 ‘국립정치대학 XX과’라고 쓰여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학번도 쓰여 있었습니다.

큰딸은 저를 매우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당신의 그 딸이 아닌가요?”

스님께서서는 틀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 딸아이한테 정말 실수하신 건가

요? 큰딸은 자꾸 같이 가서 DNA분석을 해보자고 졸랐으나,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왜 자신의 딸을 의심하나요?

징메이여고의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학부형들에게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최대한 문과로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학입시에서 이과가 모두 전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바꾸지 않았고, 예상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듬해 재수를 했으나 역시 떨어졌습니다. 재수반 선생님께서는 문과로 바꿀 것을 거듭 당부했지만, 딸애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은 재수반의 모의고사에서 선생님과 충돌이 있을 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돌아와 상심해 하더니 화김에 문과로 바꿨지만, 시험은 곧 다가오는데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큰딸은 제가 시험 막바지에 바꾼다고 야단칠까 두려워, 잠자코 있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 하더라도 거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스님의 의견대로 X어를 하는 게 어떠니?”

그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문학을 싫어하는데다, 왜 하필 이런 아무도 하지 않는 어학을 하면서 글자를 물고 늘어져야 하느냐고 불만이었습니다.

원서를 넣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재수반 선생님을 통해 컴퓨터로 한 번 예측해봤는데, 뜻밖에도 ‘국립정치대학 XX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황하에 닿기 전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 그냥 착하게 노스님의 말씀대로 하자!” 큰딸은 제 품에 안기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제가 암만 해도 당신들이 정해놓은 걸 뛰어넘을 수 없 나봐요. 노스님의 주머니대로 하세요!”

입학 후, 등록한 다음 학생증의 학번을 보니 한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지금 유학을 다녀와서,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자주 1: 징메이여고(景美女高)를 한자 한자 풀어보면, ‘景’자는 ‘日’과 ‘京’이 합쳐진 글자로, ‘日’은 ‘時’를 뜻하며 ‘京’은 ‘已經(이미)’의 ‘經’과 그 음이 같습니다. ‘美’자는 ‘羊’과 ‘大’가 합쳐진 글자이며, ‘女’는 ‘女兒(딸)’를 의미하고, ‘高’는 ‘高興(기뻐하다)’의 ‘고’입니다. ‘羊大女兒’는 또한 양띠를 가진 큰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딸은 민국 56년생으로 양띠입니다.

저자주 2: 큰딸이 처음 저를 보았을 때, 남장을 한 스님을 향해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라고 하는 바람에 식구들과 범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모두 미쳤다고 여기고 식구들이 여러 번 유명한 절을 찾아가 푸닥거리를 하면서 요물을 쫓아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비록 2년이 지났지만 전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자 주위사람들은 병이 재발했다고 여기고, 재차 유명한 대사들을 찾아가 그분들이 직접 칼을 휘두르며 마귀를 쫓아냈지만, 전과 같이 여전히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불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저를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미 16살의 나이에 고1이 됐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 저의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안정적이고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거듭 권유했으나 떠나질 않아 목계 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이미 18년이 흘렀습니다. 옛말에 “모녀의 정은 천륜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18년간의 골육지정과 천륜지락은 저의 과거 어둠을 싹 몰아내고 다시 밝게 빛나도록 했습니다.

저자주 3: 저는 거의 팔 년 동안 밤낮으로 울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몸과 가정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시는 인연이 없는 딸을 찾지 않기로 아주 힘들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나 두 번째 만남 모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자주 4: 저는 용주대회(龍舟大會)를 구경할 때 길가의 많은 점쟁이들이 모두 저의 부른 배를 가리키며, “백일 안에 부모나 조부모를 극사시킬 거야”라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설령 저를 죽게 하더라도, 제 부모님을 죽게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불안하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같이 죽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를 아주 아끼시던 타이난(臺南)의 아버님께서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민국 56년(1967년) 음력 8월18일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이 설령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겁을 쥐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으로 말하는 덕의 문제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줄지언정, 사람을 죽게 해선 안 됩니다.

저자주 5: 제 큰딸이 돌아왔을 때, 저의 나이 마흔 넷이었습니다. 어떤 명망 높은 도사님은 큰딸이 저를 극사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큰딸이 집에 오고 나서 저는 고열이 내리지 않아 거의 열 달이 넘게 병져 누웠습니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설령 제가 죽더라도 이 큰딸을 다시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도사님은 제가 딸을 데리고 살려고, 목숨을 버리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저자주 6: 저는 독일법을 전공했고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영어는 영어고, 독어는 독어여서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영어도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다지 잘하지는 못해서 미국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자주 7: 아버님께서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시고서야, 제가 아이를 떼지 않은 것을 아시고 매우 화를 내시며 저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임신한지 4개월, 때를 맞으면 태아가 위험할까봐 저는 숨어버렸고 아버님은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했으며, 외할머니도 저를 돕지 못했습니다.

저자주 8: 출산 후 산중(三重)에서 눈물을 흘리며 타이베이(臺北)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반드시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며,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하며 국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병환이 나시기 전에 저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이는 쓰레기통에 있구나!” 저는 듣



신분이 높다 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집이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라.

고 더 상심해 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아이이지만 쓰레기 통에 버리다니!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제부터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길을 청소하면서 길가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다가 일정량이 되면, 네 아이가 무사평안하게 네 곁으로 갑자기 돌아올 것이야. 그러나 이 아이의 팔자가 아주 세서, 적어도 트럭 몇 대가 넘는 쓰레기를 주워야 하니 명심해라!”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원기를 회복하자 다시 복직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매일 네 군데 대로변의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8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시어 제가 청소하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청소하는 걸 보아하니 그 속도와 방법으로 8년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봐선 아무리 빨라도 8년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일은 양심에 맡길 일이라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8년이면 8년이지니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듣고 나서, 차라리 마음을 접는 게 어떡냐고 했습니다. 사실상, 딸을 찾는 일은 이미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단지 8년 동안, 쓰레기를 줍는 건 이미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네 군데 대로변을 청소했습니다. 15년 동안 청소를 하고 딸을 만났고, 이미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큰딸과 합친 다음 저희는 찰떡처럼 붙어 다니며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고서야 저 혼자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자주 9: 저와 큰딸은 매년 음력 5월5일 단오가 되면, 손을 잡고 같이 타이베이(臺北)에서 중성대교(中興大橋)를 거쳐 산중(三重)까지 걷곤 합니다. 저희는 직접 만든 각종 종즈(粽子)와 계수품을 챙겨 가지고 당시 구출되었던 해변으로 가서 저희 모녀는 공손하게 삼궈구고(三跪九叩)의 예를 올리고, 굴원(屈原)과 하신(河神), 강수신(江水神)들께 제사를 올리며 그들께서 당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모녀를 살려주신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해마다 치르는 대사이며, 이후 큰딸이 시집을 가더라도 대대손손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저자주 10: 제 큰딸이 학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가득 찬 수영장을 보면 전신을 벌벌 떨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많이 진찰을 받아 봤지만,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치료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년 체육선생님께 사정을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내가 중성대교에서 물에 빠질 때, 뱃속의 아기도 같이 놀란 것일까?’ 태고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체육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좀 고려해줄 것을 요청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저자주 11: 사람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신이 계십니다. 사람은 천 번 헤아려야 하지만, 신은 한 번만 헤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산(天算)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셈은 영원히 하늘의 셈을 못 따라가는 법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요

민국 56년(1967년) 추석,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외할머니께 산중(三重)에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날은 온 식구가 모이는 날이므로, 다 같이 달구경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텐타이극장(天台戲院)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이때 멀리서 아이들이 버릇없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가 어떤 할머니 뒤에서 돌을 던져댔고, 그녀는 지팡이로 아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점점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고함을 지르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웃은 다 헤져 여기저기 살이 드러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고 더러웠으며, 가을바람에 풍겨나는 몸냄새가 아주 고약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비켜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이 할머니께서는 저 앞으로 다가 오시더니 아주 소리를 높여 울며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널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주 힘 있게 저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재빨리 붙잡는 듯했습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며 마치 가족이 죽기라도 한

듯 연거푸 고향을 질렀습니다. 이때 길을 가다가 쳐다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저는 무안했으나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터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니,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다시 도망가면 안 된다, 오늘은 꼭 같이 집에 간다고 대답해, 그렇지 않으면 놔주지 않을 거야, 우리 여기서 같이 죽어 버리자!”

저는 두 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할머니께서는 죽어도 놓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미친 사람과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자기 엄마를 모른 체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딸이 너무 한다고 한 마디씩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이렇게 예쁘게 하고서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남루하냐고 욕을 했습니다.

상황이 자꾸 이상하게 되자 그냥 말을 듣겠으니 손을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게 됐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혹시 저를 잃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제 손목을 하도 꼭 붙잡는 바람에 많이 아팠지만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 번이나 토하려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녀를 더 상심하게 만들까 염려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 후, 우리는 산중(三重)의 한 쓰레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쓰레기더미 사이에 천으로 바람만 겨우 막아놓은 천막이었습니다. 안에는 이불도 의자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냄새로 가득했고 도처에 죽은 개와 고양이, 돼지들이 품어내는 냄새가 역겨워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쓰레기를 뒤집던 더러운 손으로 아주 다정하게 저를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울었다 웃었다 했습니다. 할머니의 창자를 찢는 듯한 신음소리는 엄동설한처럼 사람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렇게 비참할 정도로 미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더 자극해선 안 되겠다 싶어,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숨으려고 해도 도저히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리 와! 엄마가 안아 보자, 너무 오랜 만이구나, 엄마가 좀 만져 보자!”

천하에 이토록 딸을 그리워하다 미쳐버린 가련한 어머니도 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나도 딸을 못 찾으면 이 분처럼 비참해질까? 옛말에, “천하를 함께 떠도는 게 사람이거늘, 만나는 게 꼭 서로 예전부터 알아서겠는가”라고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이미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셨으며, 수없이 많은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처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아끼는 딸을 다시 떠나보내는 심한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죽든 말든 외면하면 모를까, 이 딸의 역할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자비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고, 이 할머니에 대한 책임은 이미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남은 여생동안 제가 그분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위로해 드리며 그 아픔을 털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저는 가만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잘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늦게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향구로 나와 국수를 사드렸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짐을 가지고 올 테니, 내일부터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자, 온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외할머니는 제가 시골에 비료를 저장하는 똥 구덩이라도 빠진 줄 아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날이 썰 때까지 토해, 나중에는 노랗고 푸르스름한 물까지 나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다들 코를 막으며 저한테서

이상한 악취가 풍긴다며 계속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공공단체에 의뢰해 돈을 빌린 다음, 점심시간에 나가 부근에 작은 셋방을 알아보고 이불과 옷가지, 대야, 비누 등의 일상용품을 갖다 댔습니다.

퇴근 후, 저는 착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차를 몰고 산중(三重) 쓰레기장에 가서 할머니님을 모셔와 얻어놓은 셋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저를 보자 전혀 앞면이 없다는 듯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어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그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루 밤 사이에, 그렇게 끌어안았던 모녀지정이 이렇게 달아나 버리다니요?

뒤에, 저는 날마다 텐타이극장의 입구에 서서 잃어버린 딸을 기다렸습니다. 이 할머니 또한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갔지만, 무표정하게 저를 흘깃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하루하루 추워져가고 그녀를 바라보며 오히려 제가 애달았습니다. 미쳐서 그러시는 것이라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는 예전처럼 텐타이극장 입구에 서 있었고 그녀도 똑같이 그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쏘살처럼 다가와 저를 꼭 붙잡더니 히스테리컬하게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의 경험이 있는 터라 할머니님을 따라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자, 저는 예전처럼 항구로 나와 뜨거운 국수를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고기 몇 조각과 계란도 곁들였습니다. 천천히 다 드시게끔 하고 나서야 헤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 속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돌아와, 또 한 번 똥냄새 같은 이상한 악취를 풍기자 다들 코를 막고 못 견뎠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왜 제가 이런 낭패를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다음날, 퇴근 후에 저는 다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다시 산중(三重)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전처럼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가져간 겨울옷도 바꿔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텐타이극장 입구에 서 있었고 할머니 또한 지나가시며 저를 그냥 흘깃 쳐다볼 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싸늘한 가을바람이 정말 무섭지도 않은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예전처럼 텐타이극장 입구에 서 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저를 붙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함께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주 다정하게 저를 붙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저의 두꺼운 겨울외투를 모두 적셨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항구에서 뜨거운 국수를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또 고기 한 접시와 계란도 곁들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다 들고 나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늦가을이고 할머니께서 입은 옷은 너무 얇아서 도저히 할머니만 남겨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삭막한 쓰레기장, 바람이 부는 그 황량한 곳에 혼자 남겨 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께서는 제 몸에서 또 악취가 나는 것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 다시는 입지 마라, 매번 그 옷만 입고 나가면 똥물에 빠져 이상한 냄새를 달고 들어오니!”

저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이 할머니 기억 속의 딸은 바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옷을 입으면 바로 그 딸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나 이 옷은 매번 악취에 찌들고 나면, 보통 씻어서는 그 냄새가 가지지 않아 햇볕에 며칠간 말려야 그 냄새를 말끔히 없앨 수 있는데 어떻게 갈아입지 않고 배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거의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일주일 후, 저와 마음씨 착한 동료는 다시 산중(三重)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할머니께서 잊지 못하는 그 옷을 입고 있으니 한 눈에 알아보고 매우 기뻐서 끌어안고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우셨습니다. 저는 계속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고 마침내 함께 집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셋방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시켜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는 이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꼬박 밤을 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편안하게 잠 드셨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하늘 아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옷은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이어서, 저는 매일 씻은 다음 다리미로 말려서 늘 곁에 두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 모녀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모를 한 명 구해 하루 종일 할머니를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저는 늘 아주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출근해야 돼서 매일매일 집에서 보살피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이틀에 한번은 꼭 뵈러 올게요.”

할머니께서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시며, 딸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목욕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같이 길에 나가 산책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생각에 이 딸이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쓰레기장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인지 할머니께서는 비위생적인데다 병도 많았고 성격이 매우 포악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상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으나 거의 대부분 신경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할머니께 무릎을 꿇고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매를 맞다가 일어서곤 했습니다. 매번 한바탕 매질을 하신 다음, 제게 물었습니다.

“잘 봐, 또 이 엄마를 배신하고 남자와 도망가서 안 돌아올 거냐? 간도

크지, 또 그럴래?”

저는 할머니께서 다시는 이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이 풀리도록 때리든지 욕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불쌍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깊숙이 있는 원한의 마음을 빨리 다 풀어버리고 제 정신이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정도 맞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매번 맞거나 욕을 들을 때마다, 모두 꿇어앉아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할머니께서 서서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웃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매를 맞아 상처가 낄이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뻛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려서 지중해빈혈을 앓아 늘 정기적으로 수혈과 철분배출을 해야 되는데, 한번은 잃어버리고 수혈을 하지 않아 심한 산소결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어 영안실에서 11개월간 방치됐다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모든 주변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이었던 동안, 할머니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지 못해 식모 또한 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깨어나서 알아보니, 그 셋방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이미 종적을 감췄습니다.

저는 산중(三重) 쓰레기장으로 몇 번을 찾아갔으나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도 알아봤으나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실종신고도 했지만 전혀 무소식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에 대해, 저는 여태껏 할머니가 누군지 그 딸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각지의 경찰민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달라고도 해봤지만, 몇 년 동안 아무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쭙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이 어디세요? 아버님은 성

함이 됩니까? 직업은요?”

할머니께서는 이미 착란이 심해 대답하는 것들이 모두 정신병자의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늘께서는 착한 자를 도우셔서 마침내 타이베이 근교의 외진 쓰레기장에서 뜻밖에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가엾은 할머니께서는 이미 병으로 쓰러져 있었고, 매우 위중하여 몸은 초췌했으며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멀리서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시며 예전처럼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떨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우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할머니의 품에 안겨 위로해 드렸습니다. 바로 송산(松山) 아래에 셋방을 얻어 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유능한 중의사와 양의사를 모셔다 치료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름도, 신분증도, 의료보험도 아무 것도 없어 의료비와 간호비가 매우 비쌌습니다. 몇 번이나 저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제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친어머니인지 분간되질 않았습니다.

거의 오년 간, 할머니께서는 전신이 마비되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고, 게다가 바이러스감염으로 줄곧 고열이 내리지 않아 병발증도 많이 생겨 각 과의 의사선생님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방법을 강구해, 화타와 같은 명의를 만나 병이 낫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장기휴가를 얻어 병실을 지키며 할머니를 보살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민국 70년(1981년), 할머니께서는 마침내 제 품에 안긴 채 제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한 숨을 넘기며, 아쉽게 이 세상과 긴 이별을 하셨습니다. 저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깊은 비애에 잠겨, 친딸의 명의로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저희 고향의 관습대로 할머니를 위

해 복상(服喪)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친어머니 무명씨지묘(親娘無名氏之墓)’

그 후, 칠일 또 칠일이 지나고 백일이 되자 웬지 모르게 여전히 매일 슬퍼서 몸의 살이 쏙 빠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울면서 저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다 종종 꿈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할머니께서는 제 생명의 일부로 자리 잡아, ‘나무는 고요해지려 하나 바람은 찾지 않고’ 회한만이 서로 엇갈리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모녀는 이미 뿔래야 뿔 수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 저는 울면서 스님께 여쭙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진짜 딸이 아닌 것을 알아버렸을까요? 자신을 무명씨라고 부른 것을 알까요? 이 유주고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나요?” 아마도 하늘나라로 가시자마자 바로 정신이 돌아와서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제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칠일 또 칠일 이어서 일년 또 일년씩 제사를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평생 외할머니를 빼면, 이 세상에서 이 할머니께서 가장 저를 아껴주셨으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녀는 저를 다정하게 안고 만지며, 어머니의 손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니,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 드린 세월이 거의 14년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중간에 제가 11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할머니으로 하여금 다시 쓰레기장을 전전하시게끔 해서 병져 늙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았았다면, 할머니께서는 틀림없이 아주 행복하게 여생을 마치고, 더 오래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그 분의 진짜 나이는 모르지만, 그 분의 따님은 거의 저와 비슷할 것이고 그렇게 늙으셨으니 아마도 최소한 저보다 서른은 위일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게 그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친어머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분이 누군지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여 년 동안 조석으로 그 분과 만나면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며 진정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과 저는 피가 통하는 친모녀간이라는 사실, 그 분은 저의 가슴 따뜻한 친어머니요, 저는 그 분께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불효녀라는 것입니다.

저자주 1: 이 글을 쓰면서 원고지가 모두 눈물로 젖었지만, 저는 가슴에 묻어둔 슬픔을 이기며 글을 다 써 내려갔습니다.

저자주 2: 저는 이 할머니를 거의 14년 간 봉양했습니다. 처음 9년 동안은 신경착란증세가 종종 발작해 이웃들이 매우 불안해하여 자주 검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신분이 불확실하고, 어떤 신분증이나 관련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수용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할머니께서 저 이 딸의 말만 들어서, 만약 제가 곁에 있지 않으면 빈번히 발작하며 정신이 나가 아주 위험하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실 본인조차 자신을 마음대로할 수 없음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성질이 매우 난폭한 테다 초조불안 증세까지 있었으며,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아주 무서웠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분의 딸이고 이 분은 아주 날 아껴서, 내 앞에서 발작할 때는 약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분이 아프면 나도 걸디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나 정신병원, 수용소 사람들이 할머니의 공격과 완전히 정신 나간 언행을 견딜 수 있겠어? 정신병원에서는 모두 전기충격으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킨다잖아. 어디 천하에 딸이 자기 엄마를 그런 잔인한 곳에 보낼 수 있어? 모녀는 마음이 함께 하는 법, 엄마를 전기로 지지면 그 딸의 몸이 정말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하여, 저는 관리직원, 이웃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이면서, 저는 그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친엄마라면 수용소나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외롭게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충격을 받도록 가만있겠습니까?

이 분은 제 어머니, 바로 친어머님입니다. 이미 미쳐버려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어머니입니다. 그럼 저도 미치란 말입니까? 그 분은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모를 수 있나요?
저자주 3: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일을 포용하고, 모든 일을 믿으며, 모든 일을 희망하고, 모든 일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간직하도록 하는, 천지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심 사랑이 없으면 눈먼 봉사요, 눈에 사랑이 없으면 장님이다. 바로 세상이 광명천지로 빛날지라도 마음과 눈이 먼 사람은 여전히 영원한 암흑 속에 사는 것이며, 한 평생 막다른 길에서 고통과 함께 합니다.

저자주 4: 사랑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이 노인은 아마도 쓰레기장에 버려진 쓸모없는 냄새나는 쓰레기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있었기에, 어떤 모자람이 없이 저절로 모든 것이 완전해졌고 원만해졌습니다. 사랑은 신이며 인간이 아니어서, 사람은 미칠 수 있으나 사랑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분의 딸에 대한 사랑은 진실일 뿐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켜 한평생 친어머니로 모시게 했고, 제 마음 속에서 그 분은 바로 성모마리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분의 죽음 이후 몇 년 동안 저를 밤마다 눈물로 지새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기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대의 불빛이 환히 비취는 그곳에
뜨거운 열정을 가득 안고서
당신은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고 계십니다.
부녀회에서 당신을 위해 강의도 했지요,
당신은 제가 거의 미칠 정도로 흥분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 모임의 리더가 되었지요
당신은 제가 진심으로 달궜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경전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께서 대야를 가리키시면
저는 낙타처럼 허리가 구부러진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신 할머니께 다가가
거친 두 발을 씻겨드릴 뿐
하루 또 하루, 한 달 또 한 달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방안에서

루터H원친

위의 시는 세계의 명시로 꼽히며, 읽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는 독자
인 린잉관(林盈寬)선생님께서 보내오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느님은 눈이 없나요

민국 70년(1981년), 오뉴월 경 날씨가 매우 무더웠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해서 나간 김에 일본서점에 들러 신판 뜨개질교재도 같이 사오려고 했습니다.

형양로(衡陽路)의 차오통은행(交通銀行)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어떤 늙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점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 힘든 뭐라도 있는 듯 매우 상심했습니다.

큰딸은 마음이 아파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 봐주세요, 그냥 돈 좀 벌게 해드리면 안돼요? 이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요.”

저는 원래 점보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길에서 점쟁이들을 만나면 호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애원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따라 점쟁이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손도 봤다가, 또 아이들의 두 손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더 볼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니, 사람의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꼭 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삼천원(대만 화폐)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나,

이 분은 저보다 더 강력하게 거절하며 절대 받을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니 아이들이 거의 울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견 점값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조그마한 성의니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뜻을 받아들였고 두 눈이 붉어지더니 울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하느님은 눈도 없으시지, 하느님은 정말 눈이 없어!”

아이들은 이 분과 헤어지면서 손을 흔들며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공원을 지나다가 입구에서 사람들이 둘러 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궁금하여 쏘살같이 다가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은 뛰어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가지 않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끌려가서 어찌된 연유인지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부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타이완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거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제가 그들을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을 뿐 아니라, 부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가 올 거예요, 꼭 도와드릴 거예요.”

그들은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꺼내고, 부근에 안경점을 개업한 고객에게 찾아가 거금을 빌려서 그 부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일이 모두 순조롭게 처리되자 아이들은 그때서야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시는 힘들게 안할게요, 이제 집에 가요!”

한 달 뒤, 갑자기 저희 집 사방팔방에 크고 작은 개미가 들끓었습니다. 집에 대오를 이뤄 몰려들어 벽마다 개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렬을 밟기라도 할까봐 겁나 얼른 나가서 스무여 개의 간이의자를 사와서 대로를 만들어 주고, 설탕과 다른 음식물을 놓고 물도 약간 뿌려서 그들 행군이 저희 집까지 찾아온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개미들이 뽁뽁하게 온 집안을 둘러싼 것을 보고 겁이 났으며, 사무실의 아가씨조차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찾아오는 사람은 손님이다’는 것을 알아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도 되지 않아 개미는 한 무리씩 무리지어 나타나 거의 저희 집을 둘러싸버렸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게 되자, 저는 밖에서나 집에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시간마저 빼내기 힘들어지자 사무실의 아가씨에게 아이들의 공부와 일상생활을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TV를 통해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현재 타이베이 시내 런아이로(仁爱路)에서 대형화재가 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의를 진행하러 가는 터라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 반 경이 되어서 회의가 끝나자 저는 이런 뉴스에 관심 많은 동료들과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중에 저는 운전하는 동료에서 물었습니다. “집에 빨리 안 가도 되요, 먼저 화재장소로 가도록 해요. 왜 자꾸 우리 집 쪽으로 가요?”

동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화재현장이 그리 먼 것 같지 않았고, 저희들은 얼마 후 도착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는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도중에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놀라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저는 화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3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원과 경찰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뒤에, 소방대원들은 저를 위해 물을 뿜어 한 줄기 화염을 내쫓고, 급히 세 사람을 불러 저와 함께 3층에 올라가도록 해줬습니다. 저희 집 문은 이미 화염에 달구어져 열기를 심하게 내뿜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으며, 팽창되어 열 수도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은 힘을 다해 문을 때려 부수고, 저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농염으로 가득 차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성통곡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두 다리는 힘이 빠지면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고 몸을 도저히 가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방대원은 사람들을 밝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얼마 전에 산 헌책 더미 속에 놀라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아가씨는 한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과 저는 같이 힘을 모아 아이들과 아가씨를 업고 내려왔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모두 당일 저녁에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은 바닥이 이미 달궈져 뜨거운 상태이고 책도 달궈져 검게 변했으니 만약 겁이 나서 바닥에 엎드렸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타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의바른 집안인가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수습되고 보니, 이웃집들은 모두 재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동도 1층에서 꼭대기까지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저희 집만 피해간 것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은 “사실 이 건물이 화염으로 뒤덮였을 때, 3층에는 물을 뿌리려 해도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물도 한 방울 뿌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십만 권이 넘는 귀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어, 만약 물을 뿌렸다면 아마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저희 집의 손님으로 온 천군만마의 개미들도 모두 타 죽었다면 너무 가엾을 뻔했습니다. 바로 옆의 이웃들이 모두 화염에 뒤덮였으니, 저희 집 벽과 벽 쪽의 책장은 모두 고열로 인해 변형되었으며 책들은 모두 검게 그을려 연기는 났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은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책들이 정말 그을려 불로 변했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집은 책으로 꽉 차있었고, 게다가 불에 가장 잘 타는 종인들이 아닙니까!

둘러싼 사람들은 앞뒤를 다뤄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3층은 농염에서 사라졌어요. 농염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공중에서 물을 뿌리며 불길을 막았어요.”

옆집 사람도 나왔습니다. 저희와 마주하는 벽에 큰 깡통의 왁스가 세 통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불이 났을 때, 이 깡통은 모두 고열로 인해 심하게 팽창되기만 하고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폭발했다면, 저희 집의 아이들과 아가씨가 분골쇄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등 전체가 식은땀으로 젖었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너무 위험했습니다!



9월에 개학하자, 아이들이 피아노교재를 사달라고 하여 저희들은 모두 형양로(衡陽路)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자오통은행 앞을 지날 때, 앞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쏜살처럼 튀어나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감격하기도 하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니?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

그분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명에는 어떤 자식도 없어서 이 여름이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모두 꼭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이들이 모두 자비롭고 선량한 것을 보고, 하느님이 눈이 없다고 통탄을 하며 그날 저희와 작별한 다음 너무 슬퍼서 자리를 정리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드러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아이들이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염라대왕이 삼경에 죽으라고 하면 누구도 오경까지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는 “제가 사람을 잡아두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매우 자책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노인은 타 이완에 아무런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할아버지로 삼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깊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물 때문에 아이들이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해, 저희 큰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막내는 유치원에 가기 전이었으며, 아이들은 2남2녀로 모두 넷이었습니다.



당시, 방에 널려있던 헌 책들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던 것이었습니다. 종종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 늘 불평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할아버지께서 파시던 책이었는데 제가 모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팔리지 않는 책들로, 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책을 가져갔다가 도로 가지고 나오셔서 몸이 다 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이 책들이 저희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이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종종 실수를 하고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하늘도 계산을 한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해왔습니다. 사람은 너무 절대적으로 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경, 사람은 신을 보지 못하지만 신은 인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자주: 민국 70년(1981년), 큰딸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라서 아직 2남2녀였습니다. 당시 큰딸은 나중에 둘째가 됐습니다.



전족

의사선생님께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였을 때, 가장 먼저 외할머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청(淸)나라 대부호의 가문에서 출생해, 어릴 적부터 성냥갑만한 세 치의 발을 줄곧 묶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전족(纏足)을 해야, 양가집의 규수이며 숙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님의 유일한 손녀로서, 그녀는 늘 제가 전통규범과 종법에 따라 숙녀가 되는 전족을 해야만 가문에 떳떳할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특히, 제가 백혈병과 유사한 심한 빈혈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전족을 하지 않으면 분명 천지의 금기를 범해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여기셨습니다. 당시, 일본인의 지배 하에서 일본정부는 여자가 전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어기는 사람은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외할머님께서 자신의 외손녀를 대신해 전족해 주는 것을 의무로 여기시고, 밖의 법과 무관하게 천을 싸고 약을 발라 가며 온 힘을 다해 발을 짝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한 빈혈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해야 하는 등, 반드시 공공장소를 출입해야 하는 터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외할머님께서 전족해 주신 우매한 행위가 발각되어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님은 종종 경찰서에 붙잡혀 가셨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재차 발을 싸 주시어 경찰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만약 또 일을 저지르면 그동안의 죄과를 모두 더해서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매우 상심했습니다.

타이완은 광복되었고, 외할머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일본사람들이 물러갔으므로, 할머님은 자유롭게 자신이 사랑하는 외손녀에게 발을 묶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민국 34년(1945년),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매일 학교에서 수업했습니다. 두 발은 긴 천으로 묶여 있었고, 발가락은 백반물에 담귀서 문드러지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서는 제가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상해 하시며 결국 이 시대에도 외손녀에게 전족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고발해 아동학대행위를 비난하며 양심도 없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외할머님의 소원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마음은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결정해라. 발을 묶든 안 묶든, 누가 참견하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2때, 외할머님께서서는 또 저를 위해 기다란 흰 천으로 발을 묶고, 예전처럼 약물에 담귀 두 발을 힘껏 주물러 한 덩어리로 만들고, 엄지발가락을 빼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모두 같이 있게 한 다음 발바닥 쪽에서 비틀면서 눌러 족궁의 각도를 축소시키고, 동전으로 고정하여 길이를 최소화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들이며 고생하셨습니다. 이 외손녀를 명이 좋은 숙녀로 만들어, 장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서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발은 하루하루 달라져갔고, 외할머님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했습니다. 발을 쌀 때의 극렬한 통증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저희들은 다시 개학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제 발목이 빠어서 일어설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 부축을 해도 휘청거렸으니깐요. 뒤에, 담임선생님께서서는 학생이 고생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의무실에 가서 자세히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의무실 담당선생님은 발을 싼 붕대를 푸시더니 전족한 것을 보시고 매우 화를 내시며 욕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남아빠진 사람들이 있다니!”

그리하여, 제 두 발은 또 묶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절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아주 실망하시며 상심하셨고, 저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만 기뻐하신다면, 저는 어떤 고생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물며, 전족이 무슨 나쁜 일인가요?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제가 하겠는데 왜 할 수 없는 거죠?”

외할머님께서서는 그토록 저를 아끼시고, 어릴 적부터 여태껏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어서, 십대 청소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것에 보답할 능력이 없었고, 전족이라는 그 분 평생 가장 막중한 소원조차 들어드릴 수 없게 되어 정말 외할머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님께 몇 년 만 지나면 열여덟이고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생기니, 그때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발을 잘 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2, 고3이 되자 공부할 것이 많아져서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 발을 싸거나 담글 여유도 없었습니다. 산에 계신 스님께서는 여학생이 전족을 하고서 어떻게 이 험한 산을 탈 수 있겠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대학에 가니, 교련과목이 있었는데 일단 빠지면 바로 퇴학이었습니다. 교련 선생님께서서는 “너 군인이 전족한 것을 본 적이 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부끄럽게 외할머님께 다시 4년을 더 기다려야 전족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거의 무시려 하였고,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고 슬프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자, 외할머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그 규정에 따라 양명산(陽明山)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의 반년 간 집을 떠나게 되어, 또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님께 다시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은 속이 텅 빈 사람처럼 그냥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속인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출근 첫 날 저는 윗 상사께 요구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안 살면 안 되나요? 집에 가서 외할머님과 같이 지낼 수 있나요? 전족을 할 수 있나요?”

상사는 매우 화를 내시며, 아주 의아해하시며 야단치셨습니다.

“당연히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전족을 한다고? 생각 좀 해봐, 여자가 전족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출근해?”

저는 정말 외할머님께 너무 죄송하여 울었습니다. 노인네 평생의 이 작은 소원을 실현시켜드리기가 왜 이리도 힘든 건지요…….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외할머님택으로 가서 다시 용서를 구했

습니다. “다시 몇 년 일해서, 제가 윗사람이 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차츰 차츰 승진하게 됐고, 외할머님은 일 년 또 일 년을 힘들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진을 해도 위에는 또 상사가 버티고 있어서, 늘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는 것이자, 많은 사람의 아래에 있는’ 셈이어서, 어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말이지요?

민국 60년(1971년), 외할머님께서서는 아흔 둘의 고령에 이미 인생의 막바지로 접어들어 많이 늙으시고 기력도 쇠해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발을 싸려면 빨리 싸야 해, 내가 곧 갈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아 겨우 말씀을 이어갔고, 소리는 이미 너무 가라앉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른 사무실로 달려가 다시 상사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시대야.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저는 사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님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직서를 올리고 모든 업무를 전이하고 크고 작은 송별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였겠지만 어쨌든 동료들과 상사는 저를 사뭇 아쉬워했고, 이렇게 저는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노인네께서는 정말이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임종 때, 저는 할머니 곁에서 치맛자락으로 부끄럽게 두 발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제 습관으로, 다년간 외할머님께서 “애야, 이렇게 큰 발로 정말 조상님을 뵈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늘 무릎을 꿇고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두 발을 치마 속으로 감춥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할머니께서 저를 골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보고 몸을 돌리라고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몸을 돌려 치마를 덮어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손이 힘없이 다가와 저의 발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살짝 건드렸다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며 계속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울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나 울다 그러기를 반복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화나신 거죠?”

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외할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제가 꼭 이 두 발을 잘 싸매어서 이다음 무덤에 제사지내러 가서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생에서 외할머니의 그런 소망을 정말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 그냥 발을 좀 작게 만드는 것일 뿐인데, 난 정말 불효자야!’

엄마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안 나오도록 할게요

중3때, 연합고사준비로 너무 수업이 빡빡한 나머지 수혈할 시간을 빼내지 못하고서, 시험이 끝나면 바로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힘이 빠져 앞이 몽롱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혈색소가 이미 5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쓰러져 정신을 잃었으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몽롱하게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발표되고, 저는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집에 가서, 두 손으로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 드리니 어머니는 아무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제 불치병인 빈혈은 이미 십여 년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괴롭혀 그들의 눈물을 다 말라버리게 해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어머니께서 성적을 가지고 걱정하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시 어머니를 울린다면,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요?

저는 얼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다시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순 둘이 되었고 가정을 일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이 흐르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는 첫날부터 엄마가 자신의 엄마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울어 눈이 멀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바로 당신의 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벌레의 엄마도 울지 않게 하며, 조그마한 나비나 개미의 엄마도 울지 않게 하며, 당연히 쥐나 바퀴벌레의 엄마도 울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엄마가 되길 원하며, 그들의 엄마보다 더 그들을 사랑합니다.

상대방 어머니의 눈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

보면 항상 완전하며 어떤 결함도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어머니가 보기에는 늘 뭔가 모자란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바로 우리들 어머니의 눈이어서, 불평불만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어디서나 원한과 후회가 없게 사는 길은, 바로 우리의 눈이 상대방 엄마의 눈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또 다시 멀리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온통 좋은 사람과 좋은 일로 가득해 진정한 행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8사변¹⁰⁾에 참가한 이유로, 부모님께서서는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뒤에는 또 마약사건에 이유 없이 연루되어 부모님께서서는 숨어 지내셔야 했습니다.

타이중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 서명하고, 대표를 파견해 난징(南京)에 가서 장경국(蔣經國)선생¹¹⁾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고서야 어머님께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병이 심해, 그 후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제게 이런 저런 집안일들을 가르쳐주셨고, 당시 겨우 열네살인 저는 용감하게 한 집안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갑자기 누군가 아주 급히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매우 겁이 나서 동생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만약을 대비해서였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구치소에서 오신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타이베이의 리우장리(六張犁) 공동묘지에서 저희 아버님의 시체를 발견했으니, 저더러 밤중에 얼른 올라가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옮기기라도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10) 역자주: 1947년 2월28일 타이완에서 일어난 국민당 정권에 대한 무장봉기를 가리킨다.

11) 역자주: 장개석총통의 큰 아들.

열네살의 여학생이고 지중해빈혈환자인데, 제가 어디 이런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내가 같이 가마!” 하셨습니다.

그날 거의 해가 떠오를 무렵, 저희들은 아버님의 얼음처럼 차가운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하나 마련해 몰래 타이중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가슴에 약간 열기가 있는 것을 느끼고, 바로 첩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유학 가서 동경제대를 졸업한 명의로로서,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내, 아버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형당한 범죄자나 호적도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로지 숨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죄는 그 후 재심을 거쳐 그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제야 떳떳하게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정치범의 가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신 다음, 처음 몇 년 동안 제가 누군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두드려 맞아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의 원한은 줄곧 가라앉지 않고 매우 심했습니다.

저는 열네살부터 정신이 또렷하지 못한 아버님과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시봉하면서, 매일 아버님의 매와 욕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꾀꾀하게 커갔습니다.

이웃들조차 제가 매일 매 맞으며 숨지도 않고 욕을 참아내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모두 저를 감싸고 보호해주려 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더욱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경찰들도 제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음껏 푸시게 놔두세요. 아버님께서 어떤 충격도 이제

받아들이실 수 없어요.”

친지들과 이웃, 저의 반 친구들까지 모두 이런 학대를 비난하며, 모두들 맞아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올해 저는 이미 육십을 넘어선 할머니가 됐지만, 오십년 동안 아버님의 매와 욕설에 한 번도 피하거나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이완 동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희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모님께 절대 대들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살핍니다. 비록 시집을 갔지만, 퇴근한 다음이나 휴일을 이용해 친정에 가서 그들의 생활을 살핍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매우 아껴주셨습니다. 그의 사모님께서 타이베이시 당조직의 고위간부로서, 제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내일 정각에 도착해서 꼭 먼저 등록해야 해,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니 일단 일하러 가라고 하시며, 퇴근한 다음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이미 잠드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달고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빛을 피하느라 어깨를 펴고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으며, 혹시 집에 있는 물건에 딱지라도 부치러 올까봐 불안해 잠

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셔서 오늘 어렵게도 이렇게 달고 깊은 잠에 빠지셨으니 실컷 마음 놓고 주무세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아버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험난한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걸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 타이완을 지키는 것이 아버님의 일이 됐는지, 왜 이것이 저희 집안의 일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튿날 정오가 되어서, 아버님께서서는 점차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장에 도착해야 할 시간은 지났고, 일도 놓쳐 버렸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왜 아버님을 깨우지 않았니?”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눈물이 줄줄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깨우겠어요? 가엾은 아버님은 이렇게 편안한 잠을 오랫동안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요?

저자주: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체를 공동묘지에 버렸는데, 아버님께서서는 왜 죽지 않은 걸까요? 또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는 아버님께서서는 왜 말끝마다 관세음보살이 당신을 죽게 해서 시체로 변하게 해 내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세간에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믿나요? 아버님께서서는 당신이 감옥에서 죽으려 할 때,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자주 들어도 지겹지 않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빛이 찬란하다.





불치병환자인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제 다섯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자가 다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 눈만 감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이들을 보살펴 줄까 감히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대를 이어 전해져 왔습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친어머니가 직접 뜨개질하거나 바느질한 옷을 입히거나, 목도리, 모자들을 씌우면, 그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밀교에서는 가사를 걸쳐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만, 친어머니의 옷은 더 강하다. 병이나 교통사고, 화재나 수재 등 어떤 재난도 모두 막아주며, 각종 복을 맞아들이게 해 자식들이 한평생 평안하게끔 하며, 그들이 많은 자손을 낳아 온 집안이 영원히 자손들로 가득 찬다.”

저는 영원히 이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길, 이들과 밤낮으로 헤어지지 않길 갈구했습니다. 언제라도 저는 이들을 보호해, 그들의 미래 어느 순간도 모두 매우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에게 이렇게 숨 쉴 기운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제 아이들에게 쉼타, 목도리와 모자를 한 벌씩 짜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병이 나서서, 두 손이 거의 마비됐는데 뜨개질을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저는 매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제발 침대를 조금만 세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뜨개질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저를 지켰고, 줄곧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늘을 주워 줬습니다. 제 두 손은 이제 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힘들게 떠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뜨개질하는 모습을 봐내지 못하고 모두 한 마디씩 하며, 제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옛말은 진짜야, 엄마가 죽어도 이 옷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저는 쉬지 않고 짤았습니다. 몇 번이나 과로하여 정신을 잃곤 해 병세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이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가 아직 너희들 옷을 다 못 만들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설날, 큰딸이 러시아에서 돌아와 같이 설을 맞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영하 45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도 자지 않고 황급히 두꺼운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급해야 목숨 걸고 일을 하는 법인데, 저 역시 이렇게 될 만하다고 세월만 보내던 차에 이런 완성품이 나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열흘 후, 큰딸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딸의 목도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목도리가 이래? 아직도 축축한 게 아가씨가 손발이 다 멀쩡한데 뜨개질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야? 실을 너무 당겼다, 뺏다 하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야,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뜨개질을 한다고 그래?”

큰딸은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널 욕보이는구나. 사람들에게 이건 엄마가 병

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겨우 짠 거라고 말해라. 그렇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 했단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딸은 저를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진정한 불치병

누군가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한다면, 불치병을 앓는다손 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 진정 살고 싶지 않다면, 모기한테 물린다손 치더라도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정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앓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불치병인 것입니다.

대학 때, 어떤 친구가 택시 기사에게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친구는 상심하여 자살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간 힘을 써서 친구를 위로한 결과 생각이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친구의 삶은 죽기보다 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친구를 걱정해 친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앞을 다투어 “조심해요! 다시 그런 나쁜 놈한테 강간하지 않도록.”하며 주의를 줬습니다.

모두들 한 마디씩, 사람들은 친구에게 다시는 그런 위험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 친구의 귓가를 스치는 말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 ‘강간’이란 단어였습니다. 친구는 매일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더욱 심해지고, 친구는 영원히 그런 비참한 강간의 기억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친구는 주변사람들의 사랑을 못 이기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로스푸로(羅斯福路)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과속하던 중형차가 친구의 두 다리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응급

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멀쩡하던 이 친구의 ‘다리’는 이미 잘려지고 없었습니다. 친구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진심어린 위로 끝에, 의족을 채우고 학교에 수업하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많은 친구들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만 움직여도 친구들이 일어나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리가 없어, 조심해야해, 절대 넘어져선 안 돼.”

그는 운동장에 나가 좀 걷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쫓아와 이 친구를 주시하며 주의를 쫓았습니다.

“넌 다리가 없어, 어떻게 운동장까지 나왔어? 아무래도 교실에 들어가 있는 게 안전해.”

매일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친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가 넘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다리 잘린 사람이 매일 몇 번이나 계속 다리가 잘려지고 있는지. 이 친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 가슴이 아파왔고, 친구를 아끼는 사람들은 의식, 무의식 중 친구의 다리를 계속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친구는 더 살 수가 없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친구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이제 다시 다리를 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교통사고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도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아끼는 사람들은 매우 잔인하게 친구의 다리를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그가 살 수 없을 때까지. 그가 죽고 서야 그를 내버려뒀습니다.

어떤 불치병도 모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치병환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모든 불치병환자에게 한 번 또 한 번의 무심한 상처를 낳게 되

고, 이것이 진정한 살인의 흥기가 되어 진정한 불치병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병이 심한 빈혈증임을 인정합니다. 매우 심각해서 저는 줄곧 쓰러지고 쇼크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시시각각으로 반드시 심한 빈혈증의 그림자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제가 심한 빈혈증이라는 무거운 포복을 몇 분 혹은 몇 시간만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숨을 좀 돌리고 정상인처럼 생활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일본일초일지라도 빠짐없이 늘 이 사람 잡는 불치병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저는 외할머니 손의 작은 카나리아가 되어 어떤 자유도 없이 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갔지만, 가족들이 하루 종일 감시했습니다. 왜 저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는 것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자신의 작은 방에 가둬져 혼자 자신의 장난감들과 말없이 놀았습니다. 나가서 바람을 쐬 수도 없었고 당연히 나가놀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외할머니는 제 생명의 안전을 걱정하셨지만, 제가 정말 그토록 위험한 인물인가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 아주 자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떤 친구와도 놀아본 적이 없으며 선생님이나 친구들과도 말해보지 않아서, 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일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거나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바보처럼 옆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킬까봐, 외할머니는 제가 위험할까봐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한 불치병 빈혈증환자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 과담당교수님은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병어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너는 말을 하지 않니? 너는 용감하게 너 자신을 꿰고 나와야 해. 스스로 입을 열도록 노력해야 해!”

저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숙제를 하고,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장난감놀이를 하는 데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사형수의 감옥 같은 조그만 방안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매일 벽만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착하게 방안에만 있어야 큰일이 생기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것이, 단지 큰일을 막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종종 멍청하니 하늘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생활이 이렇게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판에 박힌 듯한데,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 도대체 살 가치가 있는 걸까? 안 산다면 어떨까?”

저는 외할머니께도 여쭙고 보고 어머니께도 여쭙고 보고, 심지어 아주 힘들게 벌 수 있는 아버님께도 여쭙 봤습니다. 그러나 모두 눈시울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말입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저는 주위사람들에 의해 항상 제가 심한 불치병 빈혈증환자임을 주의 받아야함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가 만약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의 죽음으로 인해 삶이 죽음보다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제가 살아서 받는 고통보다 백배 천배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두 분께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토록 아껴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물가로 떠밀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그들에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저를 심한 불치병빈혈증환자로만 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마시고 잠깐이라도 저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자유로운 공간을 내줘 좀 바람이라도 쐬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들은 제가 아무리 간절히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저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절대 이런 모험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항상 말을 잘 들어서 매일 식구들이 정한 패턴에 따라 애완용 동물처럼 생활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개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심한 불치병빈혈증은 무슨 간판처럼 일분일초를 막론하고 제 머리를 누르고 있어서, 저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심각한 불치성빈혈증은 아마도 정말 심각하겠지만, 진정 심각한 것은 사실상 이 불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의 이름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매일 쉬지 않고 환자에게 특수한 예우를 하며 불치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심지어 이로 인해 삶에 대한 의의와 삶을 갈구하는 바램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동안 저의 가족과 친지들은 제가 죽을 것을 염려해, 하루 종일 스물네

시간 간호하며 저를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아끼는 가족과 친지들이 줄곧 심한 불치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 그냥 죽어서 모든 것에서 풀려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가 죽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의든 아니든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본인들입니다.

누군가 진정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어떤 불치병도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를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불치병환자로 하여금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 정말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불치병으로 백약이 무효합니다. 불치병환자를 대할 때, 이들을 정상인과 다른 생활방식으로 대한다면 이들은 틀림없이 이로 인해 진정한 불치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완전히 그가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해, 환자가 완전히 정상인처럼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전통적인 속박에 반항할 힘은 없지만, 심한 지중해빈혈이라는 불치병에 의해 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를 아끼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시라도 놓지 못하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

인생이 너무 완벽하면 하늘의 금기를 저버리게 되어 하늘은 그것을 책망하는 법, 사람마다 어떤 결함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종류와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피차 마찬가지로, 아무도 마음대로 누구와 한낱한시에 태어난다거나 똑같이 생긴다거나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간에 오로지 하나요 둘이 아닌 것이 ‘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는 운명처럼 발작해야만 하는 것들이 하나씩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비록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음장처럼 몸이 차가워져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도 불일정해서 어떤 때는 연거푸 증상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없애거나 이러한 고통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게 충분한 인내심을 주시어 끝까지 참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혈색소가 떨어지면, 열량과 영양분을 저장하거나 운반하지 못해 매번 체온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져, 몸이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 쉴 새 없이 떨립니다. 가족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 방법이 없어, 제가 몸을 데굴데굴 구르며 울부짖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리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가서 깨어나는 경우는 신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로, 반드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번 깨어나길 간절히 기대하고, 또 오래지 않아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파멸의 위기에 처했던 저희 가족들이 다시 그런 위험 속에 빠져드는 것을 간신히 모면하곤 합니다. 이렇듯 간을 즐기며 사는 저희 가족들은 너무 가엾습니다.

유명해도 안 되고, 뛰어나도 안 돼

지중해빈혈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이어서 정상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혈과 철분배출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것이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미세한 부분에 늘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공식화될수록 조심하지 않아 더 위험해 지기도 하니까요.

저희 가족들은 늘 전문의와 간호사를 불러 이런 사소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제가 죽으면 외할머님과 어머니 등 온 가족이 살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 가냘픈 제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제가 절대 유명해지거나 남보다 뛰어나서는 안 된다고 부모님께 늘 당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낮이든 밤이든 이 세상을 감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밤에 잡혀간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걸림이 없이 순조롭게 사회로 나가 각종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칭찬을 듣거나, 공개적으로 앞에 나가 상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외할머님께서서는 아흔 둘의 춘추로 아끼시던 당신의 외손녀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법도를 남겨주셨고 저희 부모님

으로 하여금 항상 조심하도록 해, 제가 밤낮으로 감시하는 귀신에게 발각되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이 나도 안 되고, 뛰어나서도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절대 어길 수 없는 가훈입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서도 앞에 나가거나 얼굴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진실인 즉, 죽은 다음에야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외할머니의 어리석음과 촌스러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분의 모든 말씀을 받들며, 그러한 말씀이 위대한 성현의 진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들이 모두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의 사람됨과 말씀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떠서 가라앉지 않는 자는, 그 목숨이 영원할 수 없다.”

무사도

일본인은 무사도를 중시합니다. 자격을 갖춘 무사는 결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결투를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배후에서 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높은 사람은 절대 자기보다 단수가 낮은 사람과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쳐주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말입니다.

저는 일본식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일본말을 배워본 적도 없지만, 일본의 무사도를 존중합니다.

저는 결코 저보다 조건이 못한 열악한 사람과 싸우거나 그 힘을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모욕과 기만을 당하고서도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들은 저보다 학력도 못하고 지위도 낮고 복도 없으며 가정환경도 저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무사가 될 수는 없지만, 무사도를 지킵니다.

출산 전 무작위검사

병원에서 발행한 잡지를 보다보니, 지중해협회에서는 출산 전 무작위검사와 혼전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촉구하며, 그들은 지중해빈혈의 태아를 인공 유산시키거나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지중해빈혈환자를 낳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전하다 보면, 몇 년 내로 이러한 영아의 출생률이 0%에 가까울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이뤄져 있고, 그 중에는 지중해빈혈환자도 있습니다. 각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특수한 소명과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 모두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으며,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빼앗길 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중해빈혈의 태아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첩자질을 해 사형당해야만 하는 범죄자도 아닌데, 왜 엄마 뱃속에서 사형 판정을 받고 자신을 위한 변호조차 한 마디 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야만 합니까, 이걸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지중해빈혈이라는 병은 매달 정기적인 수혈과 철분배출 외에, 사회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으며 무슨 전염병도 아니어서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정상인처럼 수업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세상에 나와 볼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성어린 걸작품이며, 모든 사람의 탄생은 타인

이 대신할 수 없는 특수한 이유가 있으며, 그에겐 신성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저 자신은 출산 전 무작위검사에 의해 유산되어야 했던 지중해빈혈환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산도 하지 않으시고 아기를 떼는 약을 드시지도 않았으며, 온갖 고생 끝에 이 가냘픈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돌도 되지 않아 수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간 제가 국가사회에 수혈 받을 만한 노력과 그 비싼 철분배출제의 값어치는 하고 살았다고.

저는 완벽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직업과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과 다섯 명의 건강하고 우수한 자녀를 뒀습니다. 정말이지,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떤 손색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저희 같은 지중해빈혈의 태아들에게 세상에 나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인도적인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잔인합니다.



시체를 빌어 혼을 돌이키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고 나서 제가 중간형 지중해빈혈을 앓아 매달 정기적으로 수혈과 동시에 매일 약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을 보고, 이웃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저희 집이 얼마나 남모르게 못할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흡혈귀 같이 남의 피를 빨아먹고 약을 먹어야 하는 귀신같은 딸을 뿔껏느냐고 수군댔습니다. 뒤에, 저는 빈혈과 산소결핍으로 인해 줄곧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해 머리는 갓난아기 같았으며, 열한살이 되어서도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고 숫자조차 셀 줄 몰랐고, 입을 열면 심하게 말을 더듬으며 말의 두서가 없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저희 집이 과보를 받는 것이라고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약한 병을 앓는 저능아를 낳았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손가락질 받았고 외할머님도 마찬가지였으며, 저는 더욱 희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머님이나 외할머님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무척 쓰라리셨겠지만, 막상 당사자인 저는 바보와 다름없는 저능아로서 그분들의 속내가 어떤지 전혀 눈치 채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열한살이 되던 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 한해 내내 고열이 내리지 않아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 저를 들쳐 업고 온 사방으로 도사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게도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제가 깨나기만을 기원하면서,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물네시간 저를 꼭 껴안으시고 어머님의 온기가 차가운 시체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두 분의 간절한 바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밤낮으로 이어지는 염불소리 가운데 마침내 저는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살아났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어머님과 외할머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두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두 분도 이 깨어난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놀라워하시며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저능아가 아니었으며 아주 똑똑해져서, 숨이 떨어지기 전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서는 원래의 저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저는 다른 누군가가 제 시체로 들어와 혼을 바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들은 앞을 다뒤편 저희 집에 구경하러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다들 두 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 어디 이런 복이 있어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며 아이의 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들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난 뒤, 바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월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본래, 가족들과 선생님께서는 4학년까지 공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고학년의 내용을 배울 수 있겠냐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헤아림은 하늘의 계산만 못해서, 저는 학교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올렸을 뿐 아니라, 6학년에 올라가서는 시장님이 내리는 표창장도 받았으며 일류 중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모든 가족과 친지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몸에 귀신을 달고 다니는 이상한 물건으로 간주해 나름대로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또 제가 매달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수혈은 더욱더 제 몸이 죽은 시체임을 증명해 줍니다. 시체는 조혈능력이 없어 산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하니까요.

저는 한 평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훨씬 수월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의아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이거나 전혀 접해 보지 않은 것들인데, 왜 제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일본어나 한글이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저는 모국어처럼 읽을 수 있으며 쓸 줄도 압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배울 때, 러시아인 교수님께서서는 “너 러시아인이니?”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으나, 그분께서는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발음이 모스크바 태생인 화교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은 일본 동경에 아버님의 친구분들을 뵈러 갔었는데, 가는 길마다 아주 친근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공적인 일로 한국 광주를 방문했을 때처럼, 저는 사방이 모두 전혀 낯설지 않았고, 현지의 노인들과 자유롭게 한담을 나눠 모두들 저를 현지인으로 여겼습니다.

과연 제가 시체를 빌어 혼을 바꾼 원한에 찬 귀신인가요?

이웃들은 영원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의사선생님 또한 이것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외할머님께서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의사선생님들께, 제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혼이 몸에 붙은 귀신인지 증명할 길이 없느냐고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과거 병력에 의하면, 당신은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계시죠?”

제가 만약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웃이나 친지들은 모두 저희 집에 덕이 부족해 이런 폐물을 낳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커서 학업이나 사업적으로 실적을 쌓으니, 그들은 제가 이런 집에서 키울만한 자손이 아니라, 다른 집안의 자손이 시체를 빌어 혼을 바꾼 것으로 저희 집안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여태껏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사람들은 제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죽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체를 빌어 혼을 바꾼 움직이는 시체정도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의사의 눈

병원을 수시로 드나든 시간이 참 오래됐습니다. 의사선생님들과 자주 만나다보니 서로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설 때, 한 선생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는 자연스럽게 각 환자를 자신의 친혈육처럼 대해야, 진정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를 모두 환자로만 대한다면, 아무리 그가 고명한 의술을 자랑할지라도 통속적인 삼류의사에 불과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흡혈귀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사십년이 됐습니다. 졸업당시 교문을 나서면서 느낀 막연함과 그때의 울곧음을 생각하면 내심 잔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는 원래 바로 서독에 가서 공부 하려 했으나, 부모님께서 그 비싼 출국보증금을 낼 수 없기에 스스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일을 찾아서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들어가서 타이난(臺南)의 기자로 단독 파견됐고, 국립여고의 교사를 겸직하며 일거양득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신잉(新營)터미널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가 사람의 헤아림이 하늘의 계산만 못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저는 빈혈이 발작했고, 아주 심

해져서 하숙집에 그냥 몸져 드러누워 며칠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죽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지만, 부모님께 알려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는 터라 대학통신록을 뒤져 타이난에 있는 동창들의 주소를 베껴 등기엽서로 S.O.S를 썼습니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와서 몇 마디씩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친구의 의리는 모두 지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환자의 몸으로 하숙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확인하시더니 아무런 말쑈도 없이 저를 업으시고, 따라온 아이 둘이 제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줄게. 집을 떠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한 법이니, 예의 차리지 말고 날 네 엄마로 생각하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제가 일생동안 그리워하는 타이난의 어머니이시며, 제 아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타이난 할머니입니다.

처음에 제 친구가 저를 보러 하숙집에 왔는데, 그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어떻게 그리 매정하게 그렇게 위중한 친구를 혼자 하숙방에 놔 두냐고 야단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집에서 금지옥엽같은 대우를 받고, 마음씨 좋은 두 분 어르신의 사랑을 받으며 병조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제 평생 가장 달콤하고 따뜻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 저는 갑자기 부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멀쩡하시던 타이난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타이난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낮이 나간 듯한 제 친구와 같이 영전의 뜻자리 양옆에 서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탈상 때까지 열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차가운 시체를 끌어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도 한번 보시지 않고 떠나셨어요?

“아버님, 제가 당신이 그렇게 아끼시던 자식이 아닙니까?”

입관을 준비하며 풍수지리를 보는데, 어리숙하게만 보이던 제 동창은 그동안 철이 많이 든 듯 바쁘게 오가며 일을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옛말에 “남자는 바깥일을 주관하고, 여자는 안의 살림을 주관한다”고 했으니, 저는 문밖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줄곧 타이난 어머니와 함께 잡다한 집안일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밖에 나와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타이난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차를 들고 마당에 나가 손님들을 접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어떤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이 손님을 끌어 돈을 벌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여기 어떤 노인이 방금 돌아가셨죠?”

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대를 졸업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장래 아마 보통공무원도 하기 힘들거예요, 참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제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참 하늘은 보는 눈이 없어. 동생들의 공부까지도 한꺼번에 모두 다 끝냈어. 봐요, 동생들은 대학에 못가.”

뒤에, 동창의 동생들은 정말 한 명도 대학에 못가고, 저학력자로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도 제 동생들인데 말입니다.

당시, 이 분은 제가 차를 들고 나오는데 아연실색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하며 자전거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흡혈귀야, 흡혈귀!”

제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제 동창이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는, 말을 더듬거리며 제게 두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백하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정말 산 사람이야? 아니면 피를 빨아 먹는 시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몸 안의 피가 다른 사람 거요? 얼굴과 두 손이 어쩔 이렇게 차가울 수 있소?”하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제가 빈혈증을 앓아 정기적으로 수혈을 하니 당연히 온 몸의 피가 다른 사람 것임은 분명한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 건 제 친구나 그의 부모님조차도 절대 입 밖에 내뱉은 적이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그는 이세상과 저세상을 모두 꿰뚫는 음양안(陰陽眼)이라도 가진 걸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의 조상님께서 많은 덕을 쌓고 스스로 자비행을 해서 그렇지, 아니고서야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요. 오관에 이 세상의 수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어? 아가씨는 산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흡혈귀요!”

저는 방에 돌아가 울먹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지만, 내가 정말 산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흡혈귀란 말야? 내 몸이 차갑고 딱딱한 건 빈혈과 산소결핍 때문이잖아, 안 그래? 물론, 지중해빈혈증은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지만, 그렇다고 수혈하는 게 피를 빨아먹는 건 아니잖아? 하물며, 내가 사람들과 달리 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낮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저녁이면 사람들처럼 이불속에서 자는데, 그리고 나도 사람들처럼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

다. 저 역시 왜 다른 사람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살고픈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 역시 왜 매일같이 자신의 골수에서 조혈할 수 있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 제가 정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살아있는 시체인가요? 정말 그렇게 무서운 흡혈귀가요?

그 동안, 도가에서 자칭 연단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제 관상, 수상을 공격하며 뒤를 밟은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싸움 끝에 정이 들어서 오히려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왜 저를 자꾸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산 사람인지 아니면 흡혈귀인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관상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흡혈귀로 간주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영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풍수지리가, 관상가, 도사나 스님들께서 꼭 저를 죽은 사람이거나 흡혈귀라고 말한 건가요?



마음에 늘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을 만나도 좋게 바뀐다.



누더기를 걸치고 효를 다하다

민국 79년(1990년) 10월말, 저의 타이난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원래, 온 식구들이 모두 다가오는 설을 기다리며 어머니를 타이베이로 모셔 와서 같이 설을 쇠면서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며 오래 머무시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까오승(高雄)에 돌아가 대신 안부를 전해주겠다고 하며, 이튿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한 소식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음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모두 울음을 터트렸고, 이 부족한 여식은 바닥에 쓰러져 오랫동안 인사불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을 불러 운전을 부탁해 타이난으로 장례를 치르러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운 나머지 눈의 망막이 터져버리고,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타이난에서 일하던 시절, 다행히 이렇게 마음씨 좋은 어머니를 만났길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벌써 저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을 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는 영전 앞의 돛자리에 누워계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이 불효자식이 이제야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을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생각

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고 가실 수 있나요? 몇 마디 말씀이라도 남기시고 떠나시지. 정말 이렇게 급하게 가셔야 했나요?

제 친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는 빨리 치를 생각이야. 지금은 이미 첨단과학을 달리는 시대이니 만큼 그런 전통적인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하려고 생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이니, 당연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삼일도 되지 않아, 제 타이난 어머니의 장례는 모두 깨끗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장례에 썼던 모든 물품들은 태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들과 조카들도 모두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제 기억에 친할머니와 외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 이렇게 간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속학자와 전통장례에 조예가 깊은 어르신들을 도처에 물색해 의논드렸더니, 모두 한결같이 제 친구의 현대식 장례를 반대하셨습니다. 부모께서 길러주신 은혜는 산처럼 높고 바다와 같이 깊은 법인데, 어떻게 아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이러한 전문가와 어르신들은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돌아가신 다음, 열군데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자식 된 사람이 칠일씩 매번 때를 맞춰 봉양하며 염라대왕전을 넘는 것을 같이 도와 칠칠 49일을 채워야 합니다. 또 다시 백일, 다시 일년, 이년, 삼년 이렇게 해도 세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효심이 깊은 자녀는 부모님께서 마지막 난관에서 기력이 쇠

할까 봐 보통 삼년이 지나고도 다시 오년을 채웁니다.”

저는 또 여쭙습니다.

“칠일씩 봉양하는데 좀 미리 당기거나, 날짜를 줄일 수 없나요?”

그분들은 대답하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장소를 바꾸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신처럼 아무리 과학기술이 진보됐다 하더라도 역시 열 달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면 누더기를 써야만 효를 다하는 건요?”

그분들은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막 돌아가셔서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늘에 올라가 성불할 수가 없으며, 다른 뱃속에 들어가 몸을 바꾸거나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서는 떠도는 유주고혼으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빛과 열과 양기를 두려워하고, 아무렇게나 떠도는 고혼들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거의 가는 곳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으며, 숨을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누더기를 덮어쓰고 부모님의 혼백을 보호하는 것으로, 부모님에겐 자식들의 누더기가 밤낮으로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양하는 것은 부모님에겐 호신부와도 같아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외부 야혼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며, 또 각 심판대에서 엄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고독한 영혼이 저 세상에서 고통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지할 데 없이 자신 혼자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후사를 봐 주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허리에 힘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코만 있다면,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자식을 키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듣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제 타이난 어머니는 이미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느 심판장에서 고생하고 계시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저를 아껴주신 어머니께서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불안하게 가시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지할 곳도 없이 유주고혼으로 떠다닌다면 금수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는 매우 현대적이어서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불쌍한 것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어머니인데, 누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과학적인 일이 한낱 추측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저로선 믿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무슨 모험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를 다하기로 마음먹고, 타이난 어머니께 칠칠 49일을 지내고, 다시 백일, 일년, 이년, 삼년이 지나 오년을 채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날마다 세끼를 때맞춰 영전에 올리며,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봉양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할머니께 먼저 음식을 올리고 향을 세 꽃이 피운 다음 삼분의 일이 타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다섯 아이들은 나가고 들어올 때 모두 할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생일케이크와 같이 맛있는 것이 생기는 날이면, 먼저 할머니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듯 자상하신 타이난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이며, 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보고 싶은 ‘할머니’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통의례대로 타이난 어머니께 누더기를 덮고 효를 지켰습니다(披麻戴孝). 어떤 사람은 친자식은 삼년간 봉양해야 한다고 하나, 저는 친자식도 아닌데 저를 친자식과 똑같이 보살펴주셨으므로 오년은 봉양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나마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다칠까봐 감히 누더기를 벗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처리할 때나 출근할 때 모두 사람들에게 이 배옷을 벗을 수 없는 고통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돈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어머니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년 동안 타이난 어머니를 위해 저는 일본일초도 누더기를 벗지 않고 효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착란이라도 되었나보다 싶어 손가락질 했으나, 뒤에는 시간이 오래 되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고 할머니께서 저 세상에서 고통 받는 것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할머니께서 평안하게 열 곳의 심판장을 지나는데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 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신경필요가 없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이것은 우리 타이난의 풍습으로 없어져선 안 되는 문화의 일부라고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께서도 모두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 타이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는 쉰 둘이었고 오년간 효를 지키고 나니 쉰 일곱이 되었습니다. 효를 지킨 지 삼 년째, 저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고 몇 번이나 연달아 수술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모두 치명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저는 쉰 여덟이 돼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정식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일찍이 전국 각지의 유명한 관상가나 운명철학가들이 저더러 쉰 여섯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제 친구의 스승님은 제공대사(濟公大師)의 이름난 제자로서 그는 제가 쉰

여섯을 못 넘긴다고 확신하시며, 만약 틀리면 자신이 문 닫고 삼보일배하며 장화(彰化)에서 타이베이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촌오빠는 모산도사(茅山道士)의 의발을 전수받은 제자로서 집안제사에 오셔서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제가 만약 쉰 여섯을 넘기면, 자기 머리를 잘라서 저더러 공으로 갖고 놀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사람들과 법을 쟁론하던 중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저의 팔자를 들고 타이중(臺中)현의 한 이름난 분을 찾아가서, 제가 대수술을 연거푸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넘을 수 있을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어야 쉰 여섯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대사급의 유명인사들 거의 스무 명 정도가 길어야 쉰 여섯까지 밖에 못산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예수를 넘겼습니다. 수명은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조금씩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제가 쉰 둘에서 쉰 일곱이 되던 그 동안을 돌이켜보면, 저는 누더기를 입고 효를 지키느라 눈물로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앓은 병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 없는 불치병들이었으나 용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더기를 덮고 효를 지킨 것이 제 목숨을 구한 걸까요? 아니면, 타이란 어머님께서 누더기 안에 숨어서 몰래 저를 지켜주신 걸까요?



사랑은 인성(人性)을 신성(神性)으로 통하게 하는 다리요,

정은 인생에 깔려진 사랑으로 통하게 하는 길이다.



천륜과 정수

민국 79년(1990년) 여름, 제 친구 양선생은 얼마 전에 들찌며느리를 보고, 송산(松山) 중파난로(中坡南路)에 집을 마련해 그곳에 들찌부부내외가 와서 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양선생은 줄곧 제게 그 집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처음 마련한 집이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한 빈혈증을 앓아 몸에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어서, 움직이든 말건 수시로 쓰러져 보는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식구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주위 친지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선생은 새집의 양택(陽宅)을 좀 봐주길 바랐지만, 저는 원래 무슨 풍수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어서,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싶어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 양선생은 친구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끌고 나갈 태세였습니다. 저는 운명이다 싶어 더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제 가족 두 명과 함께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중파난로(中坡南路)의 새집에 도착하자, 저는 이미 호흡이 곤란해져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양선생은 이미 문 앞에서 저희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왔으니 아예 차에서 쉴게 아니라 들어가서 숨을 돌리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이미 극도로 피로해져 한 발짝도 땀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부축해줘 겨우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더니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곳은 음기가 보통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빨을 부딪히며 떨었고, 양 선생은 제 모습을 보더니 뭔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얼른 전기난로를 갖고 나왔지만,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한 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희미하고 아득해진 채 낯선 어두운 곳에 갔습니다. 예전에 와 보지 않은 곳이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때, 어렴풋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곡성군(文曲星君)께서 곧 도착하실 것이다, 모두 나와서 맞을 준비를 하여라.” 저는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문곡성군을 만나게 됐지? 나는 천상의 신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본 적도 없는데, 오늘에야 보게 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정말 무슨 문곡성군을 만난다면 설마 내 목숨도 구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문곡성군의 모습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분일초가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일 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점점 시끌벅적해지며 너도 한 마디 나도 한마디씩 해서, 오히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기가 어딘지 묻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정말 길흉이나 호인과 악인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두머리가 다가와 저를 보더니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문곡성군께서 이미 도착하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저 혼자 뿐, 도대체 어디 문곡성군이 있던 말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상대방은 손을 저으며,

“틀림없습니다, 문곡성군님! 저희들이 맞을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가정주부일 뿐인데, 어떻게 무슨 성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문곡성군님! 당신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사오니,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까닭 없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니, 아주 장엄한 신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좌측에 앉았습니다. 신전의 사방은 문관, 무관 등 각종 관직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딴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승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은 건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크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저는 친구의 요청에 응해 그의 새집을 보러왔을 뿐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죽었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무고하잖아요.

“문곡성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단지 일이 좀 있어 당신을 저승에 모셔와 잠깐 의논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피차 결론이 나면,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겨우 몇 분 죽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늘상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면, 제 원신(元神)과 삼도령광(三道靈光)은 오히려 그들이 잡으려는 사람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아주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을 받들어 일을 보는데, 집행하는 것은 천률(天律)과 정수(定數)라서 제 자비는 그들의 걸림돌로써 개입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제가 이 새집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이 이번에 잡아갈 사람이 몇 십 명이나 되는 큰 사건에 제가 개입하려는 줄로 여긴 것입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집안일로 바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저녁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는 여자에 불과한데, 제게 어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천기는 누설할 수 없으니, 저희들은 다만 당신께서 빨리 이 집에서 떠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이 이걸 공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공문을 보십시오!”

받아서 보니, 저승에도 과연 공문이 있었고 한 줄 한 줄 아주 조리 있게 써져있었습니다. 잡아갈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위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소란에 “XXX의 부동산내”, 사건은 “비행기 추락사고와 추락지상의 기물, 가택파손 및 행인사망”이라고 적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보고, 제 친구의 일가가 모두 그 위에 적혀진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일가가 모두 죽게 되나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천률과 정수이며, 저희들은 사람을 잡는 것을 전담할 뿐이지 어떤 결정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어보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행기관에 불과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그들이 말하는 문곡성군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으며, 내가 정말 그들이 찾으려는 문곡성군인지 아닌지 내 자신도 전혀 모르니,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부탁대로 다시는 그 곳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도 됩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들 저를 깨우는 소리와 가족들의 긴장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됐어, 이제 깨났어, 이제 깨났어!”

그러나 저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불보살님께 이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당신들이 좀 봐 줄 수 없나요? 아니면 사고장소를 좀 바꿀 수 없나요? 이곳은 시내이고 번화가라서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사고장소를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아마 이 XXX의 부동산이 몇 군데 있는데, 정말 좀 자비를 베풀어 넘어갈 수 없나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지며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날, 반드시 이른 시간에 현장에 가서 절친한 친구인 양선생 일가와 같이 죽어서, 자신의 목숨으로 속

죄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끝내자, 그들은 갑자기 눈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깨어났으며, 모두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깨났어, 깨났어.”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혼미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곡성군님! 제발 이렇게 저희에게 부탁하거나 고집피우지 마십시오. 저희 저승은 성군님의 하부기관으로 그런 하늘만큼 중한 죄과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성군님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염불을 하시든 예불을 하시든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시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문곡성군님께서서는 성군의 존엄을 가지고 계시니, 아랫사람으로서 이렇게 밖에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깨어났습니다. 긴 꿈을 꾸는 것 같았고, 크게 ‘황동(黃東)’이라는 두 글자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지명인가? 아니면 인명? 아니면 무슨 종교적 언어?

저는 친구 양선생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같이 앉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불쑥 이 집이 ‘팡동(房東, 집주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황동(黃東)’과 ‘팡동(房東)’은 그 발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바로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연, 그 며느리와 관계가 있었고 황동은 바로 그 며느리의 친정아버님으로 타이완중남부의 윈린현(雲林縣)의 동슬향(東勢鄉)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양선생에게 만약 이 집에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경전을 독송하여 각 구석구석을 불력으로 장엄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노인이라 완전히 동의했으나, 그의 며느리는 현대여성이라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만약 경전을 읽지 않으면 이집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며, 염불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욕(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만약 ‘욕(馬)’이 들끓게 되면 ‘사방에서 오는 말을 잡기 어렵게(四馬難追)’돼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¹²⁾. 이렇게 설명하자, 이 집안 식구들은 모두 동의하게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희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의 모든 분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결국 이웃들에게서 듣기 싫은 욕을 좀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우매한 우상숭배로 여기고 매우 혐오했습니다. 저희들은 잠잠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워졌고, 그 저승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살 길이 묘연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8월 21일 아침 8시경 반드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18명이며, 장소는 발의 중앙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승에서 ‘황동(黃東)’이라는 두 글자를 제게 주고는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 저는 울면서 그들에게 장소를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며, 사정을 좀 봐서 제 친구 양선생의 가족들을 놔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황동(黃東)’이었습니다. 제 뇌리를 스치는 ‘황(黃)’자를 살펴보면, 위

12) 역자주: ‘욕하다’라는 의미의 ‘마(馬)’자와 ‘말’을 가리키는 ‘마(馬)’자의 발음이 동일하다.

에는 21(廿一)¹³⁾, 아래는 8(八), 중간은 유(由)로서 이는 8월을 가리키는 유(酉)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8월 21일 아침 8시경이 됩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은 ‘동(東)’자인데, 제가 보기에 이 글자의 아래위로 18(十八)이 보입니다. 중간에는 밭전(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고, 장소는 밭의 중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열린 공군에게 전화를 걸어 알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들은 일개 국민일 뿐, 어디 그런 전화를 걸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건 국방부의 기밀로서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저는 저승사람들에게 절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며, 제발 그들 가족만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장소가 바뀌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얘기하자면, 무슨 문곡성군이니 떠들어 봐도 결국 이런 상황이었습시다.

민국 79년(서기1990년) 8월21일 상오 7시경, 공군운수용비행기 한 대가 조작과실로 원린현 동슬향의 수텐리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장 3명, 상교 8명과 비행관 등 모두 18명이 불행하게도 직사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제 친구 양선생의 둘째 며느리가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장소는 변했지만 18명의 군관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울었지만, 제가 또 어떡하겠습니까?

무엇이 천륜일까요? 무엇이 정수일까요?

꿈속에서, 그 저승사람은 제게 천상의 관리나 그들 저승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문곡성군을 매우 존경해 아무도 문곡성군의 말씀을 거스르지

13) 역자주: ‘廿’은 20을 뜻한다.

못하며, 단지 그들이 행하는 바는 모두 명을 받들어 하는 일들로 사람을 잡아 사안을 처리할 뿐 어떤 오차도 생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얼굴에서 진땀이 흘렀고,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줄곧 의문인 것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명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요? 그는 천상의 신이 아닌가요? 제가 만약 정말 문곡성군이라면, 꼭 한번 천상에 올라가서 이 사람과 만나 하나하나 모두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곡성군이 누구죠? 저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저자주 1: 만약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민국79년(1990년) 8월 21일 대만의 각 신문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주 2: 제가 꿈속에서 저승을 떠나기 전, 벽에 걸린 대련을 보았습니다. “황토는 다행히 꿈은 뼈를 파묻고, 녹수는 말없이 옛된 혼을 적시네(黃土有幸埋忠骨, 綠水無語泣英魂)”.

저자주 3: 저는 괴이한 힘이나 신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음양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이 18명의 군관의 사망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들은 이미 이런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또 어찌겠습니까?

저자주 4: 비행기가 추락하였던 수탉은, 저의 제안에 의해 정식으로 기증되어 공군기념비탑을 세우고 추모의 뜻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저자주 5: 양선생 일가가 죽음을 모면한 것은 당연히 그들의 양심과 자비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시, 이 집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알고, 많은 친지와 친구들이 빨리 이집을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집의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가에 사들일 것이라고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양선생은 원한이나 빚이나 주인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사를 가도 죽기는 마찬가지라며, 자신 일가가 이곳에서 폭격 맞아 죽을 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 무고하게 죽어 가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저는 듣고나서 매우 감동했고, 양선생 일가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七時起飛 七時五八分出事

電子導航設備置於前艙 曾有因雨滲入失靈前例

【記者姚瑛寺台北報導】根據空軍方面的資料，失事的空軍編號一九〇五的B-119〇〇型運輸機，廿一日晨七時自台北松山基地起飛後，曾與航管連絡，在七時五八分發生墜毀不幸事件。

這架飛機，在起飛時，台北天氣良好，目的地嘉義有雨，但雲層不低；由於此機體輕、速度快，在到達雲林東勢附近上空，飛機降低高度準備嘉義機場落地，據赴現場了解的人士表示，當時嘉義地區受到氣流影響，

大塊雲層壓低，加上驟雨，因此飛機在此狀況下可能顛簸劇烈，不過操縱得當，此型飛機是承受得了的，如有操縱失誤或緊張，可能會失速。以一般狀況判斷，除了兩具引擎故障，否則是不輕易墜毀的。

這位高級軍官表示，失事原因終會水落石出，從昨天現場所見，已排除被破壞的因素，至於為何破碎如此厲害，他認為當時高度至少在三千呎以上，突然落地其衝擊力是相當大的。

曾擔任過此型飛機駕駛的人士說，當初購買時，為了飛行及導航安全，曾增加了相當好的電子導航通信設備，裝置於機頭的前行李艙內，曾經在飛行中如遇雨，雨水滲入後，所有電子設備會短路，如果經驗不足，或航線不熟很難操縱，也是很危險的狀況，不過後來經過原廠派人改良，是否仍會產生此現象，就難判斷了。

보충설명

1. 필자는 절대 문곡성군이 아니며, 문곡성군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전통관념에 의하면, 천상의 성군은 여자일 수 없습니다.
2. 필자는 철학이나 팔자 같은 것을 볼 줄 모르며, 음양안(陰陽眼)은 더욱 아니어서 어떤 의문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 필자가 쓰러졌을 때, 우연히 현장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대로 저승에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4. 이승과 저승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승에도 타이베이(臺北)가 있고, 가오슝(高雄)이 있었으며,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매우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사람을 찾기로 바다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았습니다.
5. 영매를 받은 사람이나 신들린 동자들이 사람들을 대신해 저승에 가서 이미 사망한 가족들을 찾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없으며 이런 사실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저승을 출입하면서 이승의 ‘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면 비록 복이 아직 내리지 않았더라도, 재앙이 먼저 멀리 달아난다.

사람이 악하면 비록 재앙이 아직 닥치지 않았더라도, 복이 먼저 멀리 달아난다.

장선생은 타이베이에서 손꼽는 건설회사의 대표로 큰 빌딩을 몇 개나 지어 거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몇 억이 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아주 위풍 당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로건널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 중간에 서버렸습니다. 그는 기사와 함께 밀었지만 꼼짝하지 않아 매우 놀랐습니다. 기차가 와서 들이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이웃 상인들을 불러서 모두 힘을 모아서야 비로소 차를 건널목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기차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 차로 바꾸자마자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동이 꺼지고 어떻게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웃 상인들을 모두 동원해 겨우 차를 밀어낼 수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 기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질주해 지나갔습니다. 장선생은 정말 놀라 온몸이 식은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더 고급 승용차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또 같은 장소에서 시동이 꺼지며 움직이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길가는 행인과 상인이 모두 합세하여 위험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선생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로건널목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동창을 대동하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이미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제 사무실은 비록 국제법률사무소지만, 많은 사장님들은 제가 출생 때부터 심한 불치병빈혈을 앓으며 줄곧 죽었다가 살아나곤 해서, 그들은 제가 저승을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한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고, 서른 여섯살에는 식물인간으로 영안실에 11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저승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들은 저의 안부를 묻고 저 역시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깨어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매일 온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영혼이 이미 저승으로 들어가 이승에 살아도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저와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곤 하였는데, 제가 그들의 사망원인이나 사망시간을 말하면 모두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눈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장선생의 고교동창은 제 고객으로서, 제가 저승을 자주 오가는 손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도대체 뭐 때문에 건널목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 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저는 장선생의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또 쓰러져 저승에 가게 되면 누가 장선생과 연관되어졌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 고객에게 연락하여 장선생을 사무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느 한 노부부가 장선생이 그들의 집을 파서 그들의 유골을 쓰레기로 처리해버린 것에 매우 화가 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부부의 집을 장선생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장선생은 매우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장선생이 빌딩을 올리면서 온천수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초공사를 하면서 서너 군데의 무덤을 판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년대가 너무 오래되어 그 가족들을 찾을 수 없어 발굴된 유골들을 쓰레기로 처리해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승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지 그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장선생과 이들 저승 노부부가 화해하여 피차간에 어떤 원한도 남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장선생은 갑자기 큰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미 미국 텍사스로 이민 가서 첨단과학기술회사를 열어 미국의 일류 현대과학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칠일 후, 제 고객은 장선생이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뭐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봐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승과 저승이 화해하여 어떤 원한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매우 화가 나서, 이번 주 안에 손을 써서 장선생을 욕보이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류하고 피차 화해하고 나서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 5시경, 장선생과 저는 중사동로(忠孝東路)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분이 나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 사니까, 만약 그 노부부께서 정말 일이 있으시면 바다를 건너 미국에 와서 저와 계산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말들이 아무런 근거없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런 첨단과학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튿날, 장선생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고객은 장선생이 돌아가면서 저를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조소하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도대체 어느 똥구덕에 쳐 박았는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욕을 하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장선생이 출국한 지 한 나흘이 지나서, 제 고객은 그 장선생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울어 지친 나머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고객은 컴퓨터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제 고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선생이 텍사스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차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듣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나요? 장선생의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해 줄곧 병상에 누워 있다가 설날 전후로 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수명장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저승사람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과학적이라고 여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세계 외에도 비과학적인 또 다른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들을 약 올리면, 여러분들의 그런 과학적

인 것들이 모두 전혀 비과학적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자주 : 노부부는 장선생이 ‘차와 차가 부딪혀’ 참사하길 원했으므로, 장선생이 차를 타면 철도건널목위에서 시동을 꺼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선생의 자가용은 매우 크고 견고한 유명한 유럽자동차로써, 만약 기차와 부딪힐 경우 기차가 탈궤할 것임으로 무고한 승객들도 사망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장선생 또한 차가 그렇게 서버리면 바로 차에서 내릴 것이므로 기차는 그를 부딪치게 할 수 없으니, 안 죽어야할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노부부는 이러한 제 해석을 듣더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위에서 ‘차와 차가 부딪혀’ 죽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노부부는 장선생을 따라 같이 미국으로 가서 줄곧 그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자성(洪自誠)¹⁴⁾이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무지하게 있으면 한 마디 말을 건네 일깨워주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한 마디 말을 건네 그를 구해주라,

이 또한 무량공덕이니라.”

14) 역자주: 중국 명나라 사람으로 《채근담》을 저술했다.



생사는 유한하여 갖은 재물이라도 백년을 지키기 어려우며,
영혼은 불멸하여 세 치 호흡 속에도 일념이 영원히 존재한다.





성씨를 바꾸고 조상을 버리다 (1)

백년장수하려면, 성을 바꾸고 조상을 버려선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집안에서 따르는 성을 따르지 않고 모셔야 할 조상을 모시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여자 쪽에 아들이 없어서 데릴사위를 맞아, 이후 낳는 자식들은 쌍방의 성을 반반씩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데릴사위가 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체면을 잃는 것으로 여기고, 중간에 후회하거나 심지어 따라야 할 여자 쪽의 성씨와 제사조차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 대학교수는 자식 세 명이 모두 미국에서 대학재학 중이어서 여름방학에 자녀들과 함께 타이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타오웬(桃園) 국제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로 가족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대학교수는 너무 슬퍼서 제 고객에게 부탁해 그 원인을 물어보려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지른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한 빈혈환자로 종종 정신을 잃고 저승을 드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공교롭게 답을 얻게 되면, 제 고객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한 달쯤 지나서, 그는 직접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어지러워 일어설 수가 없어, 침대에 누워 응급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저는 이 교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좌우에 둘러서서 말을 주고받으며 시끄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성은 라오(廖)이나, 그것은 본래의 성씨가 아니어서 사실은 래(賴)라고 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의 할머니에 의해 데릴사위로 들어와, 공평한 데릴사위의 규칙에 근거하여 큰아들은 여자 쪽을 따르고 둘째아들은 남자 쪽을 따르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들은 외동아들 하나밖에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쪽 부모님은 먼저 남자 쪽을 따르고, 만약 또 아들을 보면 여자 쪽을 따르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 외에, 다시는 다른 아들을 보지 못하여 여자 쪽은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자 쪽의 부모님은 모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송했으나, 결국 시간만 끌고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들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교수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들 대에서는 아무도 그들 할머니 집안의 성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와 그의 형제들 모두 또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도 그들 할머니의 성씨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데릴사위를 얻을 때는, 남녀 쌍방이 반반씩 그 성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결혼하는 것인데, 지금 모두 다 남자 쪽에만 제사를 지내고, 여자 쪽에는 자손이 한 명도 없어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1대 : 그의 조부 - 아들과 자손들이 쌍방의 성씨를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기로 약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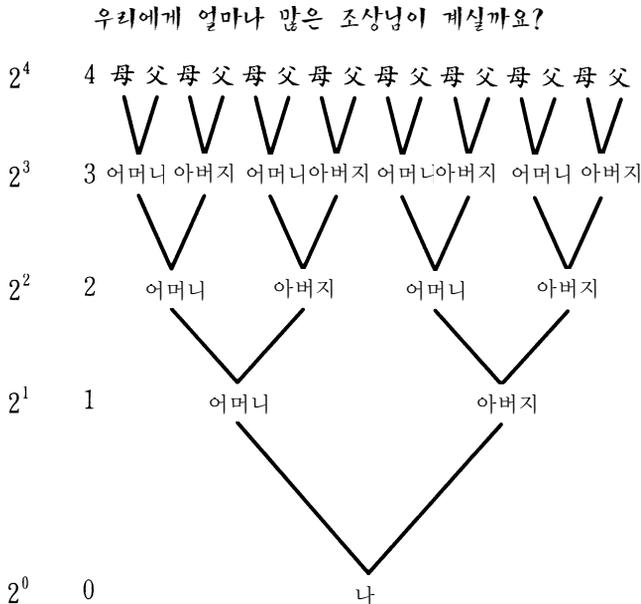
제2대 : 그의 부친 - 남자 쪽을 따름.

제3대 : 그와 그의 형제 - 모두 남자 쪽을 따름.

제4대 : 그와 그의 형제의 아들 - 모두 남자 쪽을 따름.

이렇게 남자 쪽만 따르니, 데릴사위를 맞아들인 여자 쪽에서는 자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쪽의 역대 조상께서 어떻게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양가 집안에서는 이승과 같은 이치로 저승에서도 소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수의 남자 쪽 집안의 조상이 소송에서 지고, 여자 쪽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함과 더불어 여자 쪽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의 사람들은 윗대 조상들의 은혜와 원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명씩 상대방 측으로 끌려가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수에게 다음에 만약 자손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을 래로 하여,



원래 그의 할머니의 성씨를 따라야만 그 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한 명씩 연달아 죽어 버려서 거의 대가 끊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일은 아직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니다. 이미 몇 대가 지난 후의 일이라서,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로 하여금 이미 오래전의 할머니의 성으로 바꾸게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조상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제30대라면, 당신의 조상은 이미 2의 30제곱(약 10억 7천만) 명의 조상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승의 양가 친지들은 반드시 이승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양가 쪽에서 각각 소송을 건다면, 당신은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발 아무 일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 이유 없이 줄을 이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성씨를 바꾸고 조상을 버리다 (2)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끝내고, 의사선생님께서서는 병상에서 내려와 걷는 것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이 축소되지 않아 평생 장애자로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휠체어를 밀면서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막 걷기 시작하려 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질주해왔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 미친 듯 달려와서, 저는 걷기가 힘든 상황이라 피하지도 못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몇 시간이나 혼미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깨어났으니 가족들 모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60대의 낫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분이 바로 저를 쓰러지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셨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낫선 남자는 제게 거듭 미안하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남은 아들이 바로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인데, 오늘 대형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는데 죽을지 살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뛰다가 앞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식이 몇 명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앞에 셋 모두 스물 넷쯤에 연달아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배를 타고 선원실습을 하러 나갔다가 몇 달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둘째는 경찰이었는데 업무를 집행하다가 범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셋째는 군대에 가서 복역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실제 사인을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남은 이 아들은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또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허(何)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알아듣지도 못한 채, 병실 전체가 빙빙 도는 듯 느껴지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돌았습니다. 저는 견디지 못하고 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은 급히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피곤했으나, 있는 힘을 다해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방금 상대방의 성씨를 물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님께서서는 방금 제 꿈속에서 당신 집안의 성은 허가 아니라 모두 정(鄭)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씨를 바꾸지 않으면, 이 정가의 조상님들이 당신 집안의 자손을 한 명씩 모두 잡아가서 아무도 살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듣고 나서, 제가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모두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인사만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한 삼일이 지나, 이 남자는 한 80대 노인을 앞세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입원 중에 있는 귀한 손자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당신도 허(何)씨인가요?”

상대방은 아주 화가 나서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허씨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신께서는 당신이 정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성이 무엇인지도 바깥사람이 가르쳐 주어야 압니까? 내가 칠순, 팔순을 살았는데, 자기 성이 뭔지도 모른단 말인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치든 말든 다 좋은데, 불쌍한 건 당신 손자입니다.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손자는 이제 자손이 끊겨 대를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저를 아주 엄숙하게 쳐다보시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점차 저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신 아들부부가 간절히 원하자 출생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안을 한번 깊이 이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고아원으로 가서 당시 출생자료를 찾고, 다시 입산허가를 받아 깊은 산속에 있는 부모님의 고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산의 관리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일본정부가 남긴 자료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무서운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아버님은 정(鄭)가로서, 그의 친어머님과 이 깊은 산에서 벌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 살 되던 해, 친아버님은 거목을 베다가 부주의하여 압사당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 뒤에 다른 벌목꾼과 재혼하고 호적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허(何)가였으며, 그의 의붓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마약범으로 도피 중에 벌목꾼의 신분증을 위조했으며,

허씨의 호적은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남긴 자료에 의하면, 이 허씨 마약범은 당시 이미 너무 심하게 마약을 맞아 생식능력을 상실하여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6살쯤 이 마약범은 체포되었고, 자신의 친어머니까지 연좌되어 모두 같이 죽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한평생 매우 불쌍하게 살아왔습니다. 6살에 고아가 되어, 그의 아들도 유년이 매우 고생스러워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매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불러야 할 성씨로 빨리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만 살길이 열립니다!”

저는 40일이 지나 정식으로 퇴원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저는 비록 거의 장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비참한 집안을 도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저승으로 떠나갈 것을 살려내었습니다. 옛말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칠층탑을 조성하는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겐, 이렇게 사람을 살려 만든 칠층탑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닐까요?

퇴원하기 전, 이 집안 식구들은 병원에 와서 저와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를 쓰러지게 만든 낯선 남자는 두 눈이 벌게지며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십 년만 빨리 당신을 만났어도, 저희 세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천지가 어질지 못하여 만물을 풀강아지로 여기는데(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기쁠 때 구름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말해줄 거예요, 기쁨은 쉽게 사라진다고.
당신이 괴로울 때 구름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말해줄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성씨를 바꾸고 조상을 버리다 (3)

후(胡)선생은 어느 종교단체의 총간사로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매우 성실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국 68년(1979년)에 결혼하여, 이듬해 잘 생긴 아들을 낳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종교언어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심한 불치병빈혈을 앓다 보니, 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사람인지라 혹시 상서롭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가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온 집이 빙빙 돌면서 말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쓰러져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흑만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저는 깨어났습니다. 가족들과 사무실직원들은 제게 오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 핑계로 집에서 좀 쉬면서, 후선생 아들의 이름이나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직원이 이 아들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가져와서 제게 보이자, 정말 머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견디지 못할까 염려하며,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깨어나서, 다시 이 아이의 생년월일을 쳐다보니 계속 뭔가 이상했

으나 뭐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선생, 뭘 좀 물어볼게 있는데, 당신 정말 성이 후(胡)가가 맞는가?”

상대방은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부친은요?”

또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후씨지요!”

이때 희미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머릿속에서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뒤쪽으로 왕(王)가의 사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후선생, 당신하고 왕가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후선생은 아주 확실하게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분명치 않아서 호선생에게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후선생은 부인과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계속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왕가집의 사당인데 자네는 후가의 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네의 성씨가 잘못됐네. 왜냐하면, 자네의 자손은 왕가집의 자손임으로 왕가의 맥을 이어야 하기 때문이지. 만약 후가의 성을 따면 이 아이는 키울 수 없어 기껏해야 세 살을 못 넘기게 될 것이고, 분명 천일을 못 넘길 걸세!”

저는 그에게 얼른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세한 것을 여쭙보라고 했습니다. 부친을 찾아가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 매우 화를 내시며 불효를 저지른다고 욕까지 하시더랍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며, 당신이 열녀의 순결을 지켰음을 증명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후선생은 아주 난처해 하며 사무실로 돌아와 저와 의논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값을 부르고 값을 수가 없네. 내가 이 아이의 사망일과 사망원인을 종이에 써 줄 테니, 반드시 이 날 전에 조상님을 확인하여 제대로 밝혀내게.”

대략 출생 후 구백일이 넘어서 사망일이 되자, 이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후선생의 어머니께서는 그들이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겨서 몇 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몸도 말라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아들을 잃은 지 오 년째 접어들자 후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에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부친은 왕(王)가로서, 그는 나의 죽마고우이자 애인이었다. 당시 나는 이미 너를 가졌으나 너의 생부와 결혼할 방법이 없었고, 너의 외조부님이 현재 너의 부친과 결혼하도록 강요하셨다. 그래서 너는 태어나자마자 성이 후가가 된 것이다. 그동안 너의 생부는 널 데려가겠다고 거듭 날 찾았지만, 나는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너의 조상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후선생은 그의 부모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백년 해로를 하신 후에 다시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조상을 밝힐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극에 대해, 그는 부모님을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후선생은 계속 자신의 조상을 밝히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부주의하게 넘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으나, 십년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이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설령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똑똑히 알고 있다하더라도, 이 호랑이가 있는 산으로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아니하나, 하늘은 편평하다.
산은 편평하지 아니하나, 물을 편평하다.





쓸모없는 사람

어느 공휴일 날, 타이베이에서 즈창호(自強號)¹⁵⁾를 타고 차이(嘉義)로 가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타이난의 어느 시골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올라타고 보니 두 젊은이가 어떤 법관에 대한 걸 열을 올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 듣자하니 몇 십 년 전에 아무 쓸모도 없던 폐인이 갑자기 국가사범고시를 통과해서 장엄한 심판대에 앉은 거래.

을: 맞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

갑: 틀림없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을: 분명해, 말할 것도 없어.

갑: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알아?

을: 나도 다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긴 한데, 네가 먼저 얘기해 봐.

갑: 그들이 나한테 얘기한 건데, 그 법관은 판결을 할 때 피고들도 울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울어버린대. 그것도 너무 심하게 울어서 판검사 망신을 혼자서 다 시킨대. 그 뿐만 아니라 판결서에도 피고가 모두 이해할 때까지 왜 이렇게 형을 선고하는지 왜 피고를 감옥에 가둬야 하는지 등등을 하나하나 다 써야 직성이 풀린대. 아니 법관이 피고의

15) 역자주: 기차등급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기차.

눈치나 살피서 될 일이야? 더 심한 건, 피고의 증거가 이 정도밖에 없으니 자신이 이렇게 변호를 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대.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는 것은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데, 뭐가 피고에게 미안하다는 거지? 게다가, 피고가 복형을 갈 때면 친히 그 장소까지 배웅하며 복형기간 동안 피고의 가족들을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하며 아무 걱정말고 편안하게 복형을 마치라고 위로와 격려까지 한대. 아니 어떻게 자신이 법관 이면서도 이렇게 선악에 대한 분별을 못해? 도대체 죄인이 저지른 범죄가 잘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을: 나도 그 법관이 감옥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자기가 판결을 내린 피고들을 찾아가 만나고, 피고가족들의 얘기도 같이 전해 준대. 어떻게 법관이 범죄자와 한패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피고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묻는 게 예사래. 면회하는 날이 되면 차례대로 피고와 만나서 매년 “제가 여러분들을 가뉘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대. 이봐, 정정당당한 법관이 이미 복형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야?

갑: 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양반이 피고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야. 게다가 이들 피고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고 사형수들의 가족을 도와주기까지 한대. 피고가 출감하는 날이면,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직접 붉은 계란과 국수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해 액운을 쫓아주기까지 한대. 이 사회가 범죄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다 그들의 인과응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 주며 고군분투하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봐, 아니 정정당당해야할

법관이 이러한 못된 놈들과 한 통속이 되어 놀아나도 되는 거야?

을: 우리 교수님께서서는 “법관이 되려면 반드시 법관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이 법관의 동료에게서 들은 건데, 그이는 정말 이지 허드레 일하는 사람들만도 못하대.

갑: 그러게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어. 그나마 일을 얼마 못하고 밀려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면 우리 사법계의 얼굴에 계속 먹칠만 하고 다녔을 거 아냐?

저는 이 두 사람의 뒤에 앉아서, 대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들으면서 몸이 온통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나 역시 인텔리고 법관 또한 나라의 관직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법관이란 모든 어려움을 구하는 구세주여야 한다는 신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과연 ‘잡스런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군. 정말 불쌍한 노릇이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관도 아니고 법관자격도 없으며, 단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평생 피고를 피고로 대한 적이 없고 범죄자를 범죄자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만약 피고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또한 누가 죄짓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살피시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또 스님께서서는 “만약 네가 피고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그렇게 안할 자신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안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인내심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법관이러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속세의 중생으로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형을 내리는 것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이 야말로 극형이 아닌가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힘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 중, 감히 누가 소리 높여 ‘내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출감하고 얼마 지나기가 무섭게 다시 들어옵니다. 저는 비록 그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십 여년 이래, 제가 사랑하는 이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저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무 쓸모도 없는 폐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를 알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대중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가 원래의 그런 신성한 직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를 가엾게 여기며 참 비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가장 작아서 만인의 노예로 쓰려 하시기 때문이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불용상(諸佛龍象)이 되려거든 먼저 중생의 우마(牛馬)가 되어라”, “보리심을 잊으면 모든 선법(善法)을 닦아도, 도리어 마업(魔業)을 닦는 셈이니라”

법관의 마음은 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형을 판결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정한 길을 열어줘 자신의 양심에게 공평한 거래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회를 화합시키며, 사랑은 원한을 없앤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드니, 신은 곧 사랑이다.



하늘, 땅, 당신이 모두 알지만, 나는 모릅니다

거의 삼십여 년 전입이다. 저는 지룽(基隆)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타이중시(臺中市)의 사람으로서, 예전에 타이완 북부의 위강(雨港)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매달 최소 이십일 이상 비가 쉬지 않고 내려서, 걷디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음산하여 기분도 울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은 갑자기 현(縣)과 시(市) 접경지역부근의 깊은 산속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당직인 관계로 법의와 조수 두 명을 데리고 현장조사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차를 타고 산 아래에 도착했으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차에서 내려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타지사람으로 이곳 지룽의 길이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험한 산속인데다 길은 비에 젖어 있어 미끄러워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날은 점차 어두워졌고 여전히 산속에서 미궁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법의와 조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길을 잃어서 더 가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이때, 뜻밖에 어떤 여인이 저희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어딜 가세요? 누구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이 산속에서 한 여인이 죽었는데 아직 원인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죠. 오세요, 따라 오세요!” 상대방은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돌고 돌아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아무튼 도착했고 이 여인은 손을 흔들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과연 나무아래에 누워있는 여자옷차림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목의 끈은 이미 썩어 있었고, 손전등을 비추자 이미 다 썩어서 구멍이 뚫려 거의 뼈만 남은 무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조수에게 한 번 더 비춰보도록 했습니다.

빛을 최대한 밝게 비추자, 너무 놀라서 저절로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방금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준 그 여인이 아닌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더니, 바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서는 듯했고, 심지어 두 발이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법의와 조수는 더 놀라서 모두 얼굴이 노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갔고, 저희 네 명은 정말 쏘살같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산에서 내려와 차에 오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얼마 후, 기관 건물로 돌아와 서로 작별인사를 하고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달려가서 상사에게 대강 보고를 드리고 나서야, 숨을 돌리고 실종자의 신변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보다보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제가 거의 정신이 나간 것을 보고 제가 산에서 틀림없이 뭐에 놀란 것을 눈치 채고 있었

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이기에 태연히 물었습니다. “그 시체는 이미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 아니, 어떻게 생긴 지도 전혀 모르는데, 사진을 봐도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들은 제가 이런 바보라고 여겼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보았고, 서로 보고 웃으며 오랫동안 같이 걸었습니다. 사건현장에 도착해서야 손을 흔들며 헤어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이 길을 안내했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나무아래에 같이 누워 있던 사람과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중에는 제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연 사망자의 사진을 찾아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당연히 사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목을 매달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열 여덟에 불가에 입문해, 스님께 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죽어간 사람과 그 여인의 시신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결코 죽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치의 영혼도 한 생각 사이의 한 숨을 길이 지키나니,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길이 불멸한다.”



삼세의 인연을 아끼소서

지룽(基隆) 바둑즈(八斗子) 부근의 해변에서, 갑자기 썩은 시체 냄새가 심하게 배어났습니다. 전신은 물고기들이 쪼아 먹어 거의 온전한 데가 없었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시체는 심하게 불어서, 마치 바람을 넣은 인조인간처럼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지만, 모두 한참 보고 나서,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들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러, 사람들을 줄 세워 한 사람씩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도 식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체의 얼굴이 완전히 변형되었고, 거기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오래 견디기가 힘들어서인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현장부근에 어떤 중년부인이 있는데 중학생 딸과 함께 와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지만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니 별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

니다. “웬 시체에서 피가 나오! 시체가 피를 흘려요!”

제가 바로 가서 쳐다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시체의 앙상하게 큰 눈과 콧구멍, 양쪽 콧구멍과 입이 피에 젖어 있었고, 이 일곱 구멍에서 선혈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를 앞세워 시체에 다가가 자세하게 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의 딸을 보고 일곱 구멍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히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같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망자의 틀니를 알아보고, 시체를 향해 한참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다 파도소리가 크고 울음소리까지 겹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이 말들을 듣고, 이상하게도 원래 크게 뜨고 있던 두 눈을 마침내 천천히 감으면서,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나왔으며 입술 아래위가 약하게 떨리는 것이 마치 무슨 말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가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심장도 계속 벌렁거렸습니다. 정말 속으로 수천 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죽었어, 이미 몸이 다 썩어 버렸어. 그런데 왜 산 사람처럼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저는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선배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모두들 대답이 없이, 저를 보고 이상야릇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으로 여겨져, 타살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중년부인은 뒤에 사망자의 치료 확인됐으며, 어린 학생은 막내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든 다 한다

시꺼먼 시체가 적나라하게 한 덩이로 움츠러져 딱딱했습니다. 분명 휘발유 같은 것에 의해 타 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이미 얼굴이 모두 상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책임자는 의심나는 것을 모두 열거하며, 여자들이 세심하니 여자직원들에게 다시 자세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와 함께 사망자의 신분과 사망원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은 대중매체와 신문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이 사망자확인에 협조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맑은데다 많은 사람들이 잔뜩 호기심에 차서 모여들었습니다.

저와 법의는 바쁘게 기록하고, 측량하며 현장을 도안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어 사망자의 시신에 점점 다가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사람들이 너무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시꺼먼 시체는 몸을 뒤집어 일어나 순간적으로 앞으로 다가와 두 팔을 벌리고 맨 앞에 서 있던 젊은이를 껴안더니, 바로 이 젊은이와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직접 이 장면을 보고서, 너무 놀라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되지 않았어

요?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었어요?.....”

곧이어, 저는 인사불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고열이 나서 병원에 누운 지 일 주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놀라며 “이 사람 이미 죽은 거 아니었나요?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열흘 후, 저는 점점 언어능력을 회복하여 한 마디씩 천천히 더듬으며 말을 하게 되었으나, 전신은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영원히 이 사람의 무서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한 사람씩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망자가 꺼안고 놓지 않았던 그 젊은이는 바로 구조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시꺼먼 시체는 두 손이 단단하게 석고같이 굳어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 나중에 전문요원들이 와서 엄청난 힘을 써서야 이 산 사람을 끌어내었지만, 목숨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 부문의 책임자로 하여금 남녀평등의 관념에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제게 이런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현장에 가서 비참하게 죽은 시체를 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작은 바퀴벌레만 봐도 무서워하는 법, 어떻게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 거의 한 달을 전전해, 결국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믿기 힘든 것은 살해자가 바로 그 시꺼먼 시체에 의해 안겨 현장에서 숨을 거둔 젊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사십 년 동안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 것일까?’

지금까지도 저는 춥지 않아도 그냥 몸을 떨며 악몽을 꾸고, 자제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곤합니다.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에요?”

제 이 병은 순간적으로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과도하게 놀라서 생긴 것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아! 누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은 줄곧 안 고쳐지는데, 정말 이 세상에 이걸 고칠만한 명의가 있을까요?



사람이 선하면, 복이 아직 내리지 않아도 재앙이 먼저 멀리 사라진다.

사람이 악하면, 재앙이 아직 닥치지 않아도 복이 먼저 멀리 사라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 친구는 신덴(新店)에서 전자부품공장을 경영하여 사업이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확대하여, 중국대륙에 투자를 하려 했습니다.

그는 까오슝(高雄)의 부모님께 전화하여 의논을 드리자, 그의 부모님은 그의 사업이 번창한데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공휴일인 토요일에 부인과 세 살이 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남부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지지하여 장래 자금회전에 불필요한 곤란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서서는 비록 무슨 대자본가는 아닐지라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돈 얼마정도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움직이려는 생각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념이라도 있으면,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외아들이라서 그 땅은 이후에 분명 자기 것이 될 거고, 일찍 주느냐 늦게 주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에게 집안의 재산은 독이 있어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조상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매우 화를 내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너무 낡은 관념을 가지고 계시군요. 미신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 동안 헛공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해봐야 듣기 싫어하기 밖에 더하겠다 싶어, 아예 입을 다물기로 작정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들 세 식구는 원래 계획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일요일, 저희 사무소는 노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의 부모님께서서는 타이베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노인께서는 눈물콧물이 뒤통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듣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심한 안개 속에서, 앞뒤로 큰 차가 받아서 차는 이미 엉망으로 찌그러져 버렸고, 그들 부부는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힘들게 이야기를 겨우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서는 제게 고속도로경찰소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러 갈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안 죽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알고 보니 교통사고현장에서 모두들 바쁘게 구조작업을 벌일 때, 어떤 젊은 부인이 자기 이름은 000라고 하면서 너무 급해서 그런다며 두 손으로 이 세 살이 채 안된 아이를 매표소직원에게 맡기면서 금방 찾으러올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은 마침내 모두 수습이 되었고, 부상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조치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이 아이를 맡긴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스피커로 이 젊은 엄마를 찾는 방송을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캄캄 무소식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경찰이 갑자기 부상자 중 한 명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과연, 명단에서 이 젊은 엄마가 말한 이름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는 부상자가 아니라 사망자였습니다. 그 부인은 샌드위치가 된 차안에서 형체도 확인하기 힘든 상태의 사상자로, 한 토막씩 그 시신을 꺼낼 수밖에 없어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습득한 각 사망자의 신분증과 기타 증명카드 등을 모두 가져와서, 매표소직원에게 보이며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습득된 많은 각종 카드와 면허증, 신분증 등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던 중, 마침내 이 젊은 엄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직원은 확실하다고 말하였고, 경찰은 사망자의 가족을 확인하고 시체와 아기를 데려가고 유품을 가져갈 것을 정식으로 통지했습니다.

그 직원은 아주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젊은 엄마는 어떻게 이 아기를 제게 데려온 거죠? 이 매표소와 사고현장은 아주 먼데,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죠? 그 부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줄곧 차안에서만 있었고, 나중에 한 토막씩 그 시신을 꺼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나올 수 있으며, 아이는 왜 전혀 다치지 않은 거죠? 아이는 가볍게 굽힌 상처조차 없어요. 도대체 이 아기는 어떻게 차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 직원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떤 합리적인 해석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교통경찰, 사망자의 부모님이나 저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기록에서도 어떤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기는 심하게 보채었고 저는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 건가요?’



모든 일거일동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유익하도록 하라.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덕을 쌓는 것이며,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삼가고, 또 삼가라.

- 장정옥¹⁶⁾

16) 역자주: 장정옥(張廷玉, 1672—1755년)은 중국 청나라 사람으로 보화전(保和殿) 대학사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전경당집(傳經堂集)》이 있다.



죽어서도 아이를 낳다

이 사건은 민국 34년(1945년) 타이완이 광복되던 해에 일어났으며, 당시 저는 겨우 여섯 살이었습니다.

타이중시에는 아주 유명한 조산사가 한 분 계셨는데, 아기를 받아내는 기술이 아주 노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을 ‘산파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이 어르신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은 항일독립운동가로서 일본정부의 지명수배범이셨습니다. 매번 일본정부가 저희 아버님을 잡지 못하면, 대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가서 가혹하게 고문하며 아버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이 일본정부의 정치범감옥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반쯤 나오다 걸렸을 때 이 산파어르신께서 달려오셔서 어머니와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파어르신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출생하고 일 년이 채 안 되어, 지중해빈혈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해 능아가 되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매우 자책하시며, 매번 외할머님과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네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제가 여섯 살이 되자, 갑자기 배가 하루하루 불러오더니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니는 산파어르신을 모셔다 정말 배속에 아이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나 몸이 붙은 아기도 있잖습니까.

산파어르신께서는 여기저기 불러 다니시느라 너무 바빠서, 한번 청해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시간을 마련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분을 청해 자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외할머님과 어머니께 저를 데리고 가서 곁에 두고 틈이 날 때 마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제의하셨고, 두 분은 딱히 다른 방법이 없자 억지로 동의하셨습니다.

이 산파어르신은 저와 인연이 있는지, 저를 매우 예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 이미 아주 깊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산파어르신을 찾아와서, 난산이 된 그들 며느리한테 얼른 가서 애를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저를 데리고 바빠 채비를 하셨습니다. 등에는 십자표시가 있는 커다란 검은색 가죽가방을 매고, 삼륜차아저씨를 불러 바로 출발했습니다.

산파어르신과 그 노부부는 다리(大里)에서 칠장군묘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길은 비록 넓지 않은 길이나, 타이중에서 우평(霧峰)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가 가까울 무렵, 길이 좁아 더 이상 삼륜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은 모두 꼬불꼬불하며 비좁은 산길이었고, 많은 나지막한 집들이 일사분란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산파어르신은 저를 꼭 잡으시고, 어린 애를 이런 험한 곳에 데리고 온 것을 매우 후회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날은 어두운데다 작은 등잔불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아주 울퉁불퉁하여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서, 삼륜차아저씨가 저를 업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침내 아주 조그마한 천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즉시 검은 약상자를 열고 한 무더기 의료기들을 꺼내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더러 밖에 나가 기다리라고 하시며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노부부께서는 커다란 눈깔사탕을 제 손에 가득 쥐어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미 밤이 깊어서 저는 너무 졸렸습니다.

그 여인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응에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정말 짜증났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고추예요, 아들이랍니다. 아주 잘 생겼어요!”

노부부는 아주 기뻐하셨지만, 매우 죄송하다는 듯이 산파어르신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힘들어서 사실 드릴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산파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걱정인가. 아이가 순산을 했고, 산모도 평안하니 다 잘 됐네. 돈이야 주든 안 주든 관계없네.”

산파어르신께서는 내일과 모레 꼭 제때 아기를 씻겨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돌려 삼륜차아저씨를 불러 가져온 아기 옷이며 이불 등을 모두 꺼내오라고 한 다음, 그들에게 건네며 아기를 따뜻하게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맞춰 세 번 목욕시키고, 산모에게 질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약을 발라줬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그녀를 위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기 때문에, 이 산모는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떠날 때, 이 산모는 산파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따님인가요?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아주 크게 될 아이네요. 나중에 학문도 크게 할 거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겠습니다. 복도 많고, 장수하겠어요.”

산파어르신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분께 인사하라고,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저능아가 정말 시키는대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고, 산파어르신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산파어르신께서는 분명히 속으로 엄청 웃었

을 것입니다. 그해 연말까지만 살아도 다행인 이런 아이한테 무슨 학문이며 지위, 복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 동이 터오를 무렵, 경찰은 산파어르신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리(大里) 공동묘지에서 어떤 남자 갓난 애기가 발견되었는데, 애기를 싼 포대기에 당신 조산소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산파어르신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삼륜차아저씨를 불러서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물었습니다.

“지금 애기는 어디에 있나요?”

“파출소예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파출소로 달려가, 애기를 끌어안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그 노부부의 며느님이 출산한 아기였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아기를 제 등에 업혀주시며, 저보고 동생을 업으라고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다함께 그 노부부를 찾아가서, 왜 자신들이 직접 낳은 아기를 내버렸는지 자초지종을 캐물을 작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을 왔다갔다 반복해서 찾았지만, 그 나지막한 천막집도 그 노부부도 모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칠장군묘부근의 주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관할하는 구역인데, 왜 저희들조차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러면서 “혹시 그 아기가 발견되었던 그 공동묘지 아닐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기를 받아낸 곳은 분명히 천막집들이 줄지어 들어선 곳이었어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이 빼곡히 있었는데, 무슨 공동묘지요?”

산파어르신께서는 저도 따라 갔었다고 하시면서, 만약 그런 공동묘지였

다면 어떻게 이 어린애가 놀라지도 않고 따라갔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은 또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시는 것도 손해 볼 건 없잖습니까?”

산파어르신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대방 이름도 모릅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부부가 그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산파어르신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예상했던 대로, 출산한 산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이것을 토대로, 그 남편의 이름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산파어르신과 경찰은 함께 이 갓난아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당신의 부인이 나흘 전에 낳은 아기입니다. 제가 직접 받았습시다.”

상대방은 아주 의아해하며 아무리 말을 해도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죽은 지 이미 백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아직도 살아있단 말씀인가요? 제가 당시 직접 매장하는 것을 다 봤는데,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산파어르신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당신 아내가 사망할 당시 혹시 임신 중이었나요?”

상대방은 “예, 아마 일곱 달쯤 됐을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며칠 전이 바로 열 달이 되는 날이잖아요? 만약 당신이 정말 믿지 않는다면, 사람을 불러서 관을 열어 당신 아내 배속에 있던 7개월 된 아기가 정말 나왔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전혀 동의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관을 열도록 할겁니다. 당신이 열지 않아도, 우리가 열겁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파출소에서 파견된 경찰들은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산모였고, 배는 평평했습니다. 곁에는 산파어르신께서 주었던 약과 거즈, 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결국 이렇게 풀려졌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에게서 아이를 받은 거야?”

상대방은 울어서, 눈가가 모두 눈물로 젖었습니다.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낳은 아기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아기가 제 핏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이미 돌아가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무덤도 바로 이 부근에 있지 않나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타이중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며느님이 난산하는 것을 도와서 얘기를 받았습니까.”

상대방은 저희들과 함께 그 부모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법의 한 분을 모셔 와서, 이 아기가 그의 핏줄인지 감정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법의는 “무덤을 파고 관을 여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의는 다시 산파어르신을 청해 제가 업고 있는 갓난아기의 몸에서 약간의 피를 뽑아내어 친자검증을 했습니다.

법의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분명히 당신의 핏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산파어르신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이 갓난아기와 함께 상대방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 남동생을 빼앗기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것이야. 어떻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상대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 중앙에는 거실이 있었는데,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고, 저는 하나하나 신기한 듯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산파어르신께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게 커다란 눈깔사탕을 주신 그 할아버지예요, 마시라고 차를 주신 할머니구요, 그 아기 낳은 아주머니도 계세요, 모두 다 계시네요, 사진이 정말 많이 닳았어요!”

상대방은 조용히 제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저를 주시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보고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어른도 운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고, 그는 끝도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어린 남동생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데, 하루 또 하루 업다 보니 정이 들어 정말 주기 싫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제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불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어린 남동생을 낳으면 더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다시는 울지 말아라!”

그 뒤로 저는 이 어린 남동생만 생각하면 울어서, 어머님께서는 이 심한 빈혈을 앓고 있는 몸이 더 상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병이 가장 최악이었던 열 여덟에 어머님께서는 제게 남동생을 낳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여섯살에 업었던 그 어린 남동생이 늘 그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 남자 갓난 애기도 이제 오십이 넘었겠지요? 이 신비한 남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도 이 어린 누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아껴줬던 그 사람어요.

저자주 1: 과거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줄곧 울었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음을 양해



사람은 인성(人性)을 신성(神性)으로 바꾸는 다리이며,

정(情)은 인생을 사랑으로 통하게 하는 길이다.

바랍니다. 당시 저는 아기도 인형이든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산파어르신께서는 제게 그를 안고 업도록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안고 업어본 ‘인형’인데,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폐증을 앓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형을 사서 안고 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은, 바로 제가 여섯살 때 안고 업었던 그 어린 남동생인형입니다.

저자주 2: 이 산모는 이 세상에서 여섯 살 저능아인 제게 처음으로,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아주 크게 될 아이네요. 나중에 학문도 크게 할 거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겠습니다. 복도 많고, 장수하겠어요”라고 말씀해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제가 있기까지 아주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조차도 제게 어떤 희망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저자주 3: 경전에 이르기를, 상대방이 죽은 것을 본 사람은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다시 볼 수 없다, 오직 상대방이 이미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무심히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산파어르신과 삼륜차아저씨와 저는 모두 그 노부부와 산모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 그들이 응급상황에서 부활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환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관을 열었을 때, 상대방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자주 4: 이승에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양기와 햇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의 혼백은 그가 저장해둔 양기와 햇볕으로 저승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한 다음 관을 열게 되면, 이미 충분한 양기와 햇볕이 새어나가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저승생명과 혼백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산 사람은 바른 양기와 바른 햇볕을 흡수하나, 죽은 사람은 나쁜 양기와 나쁜 햇볕을 흡수합니다. 산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그가 흡수한 바른 양기와 바른 햇볕 배후에 나쁜 양기와 나쁜 햇볕도 그만큼 모이게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은 바른 양기와 바른 햇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산 사람을 두려워하며 낮을 싫어합니다.

저자주 5: 제가 이 어린 남동생을 업었을 때 그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 노부부는 아주 찻습니다. 그 산모의 손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은요? 당연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산모는 몇 번이나 통증을 못이길 때면 어린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것은 못 이승사람들처럼 양기에 손상 받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감히 가까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자주 6: 저희가 갓난아기를 씻길 때, 이웃들은 계속해서 산파어르신을 찾아와서 진찰받으며 약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전혀 번거로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지? 그래도 이렇게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야지. 달리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주 7: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중병으로 사망했다거나 다른 불행한 일로 죽음을 당한 경우, 그냥 땅에 묻기만 하면, 화장시키면 다 된 걸까요? 누가 계속 그들을 치료할까요? 누가 그들을 보살필까요? 이승에서 병들면 저승에서도 병들어 있으며, 이승에서 상해를 입었으면 저승에서도 역시 상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자주 8: 총을 쓰는 것은 매우 잔인한 폭행입니다. 왜냐하면, 총을 맞아 죽으면 이승에서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이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매장하기 전에 먼저 약을 바르고, 상처를 처리해 통증을 없앤 다음 땅에 묻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신 안 됩니다.



오늘 태어나 후회해도 이미 늦어

래00은 사형수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어느 공사현장의 주임으로서, 집을 예약하러 온 아가씨를 강간한 다음 살해하고 이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거액을 모두 손아귀에 넣어 버렸습니다. 정말 그 악행이 너무 심해서 듣고 있자니 머리카락이 다 쭈뼛해졌습니다.

래00이 경찰서에서 남긴 조서는 그에게 매우 불리했으나, 그는 모두 일이 자신의 소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서를 어떻게 쓰든지 그와 상관없다는 식이었으며, 원망이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재현 당시, 그는 출근 경찰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조서와 틀릴까봐 정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삶을 탐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언제나 삶을 탐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일심에서 사건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공적변호인 또한 세심한 조사를 통해 많은 유리한 증거물과 증인을 찾아내어 그가 이 사건의 흉악한 살인혐의범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래00은 재소를 원하지 않았으며, 경찰들에게 자신에게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적변호인의 호의적인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러는지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싫을까? 저는 항상 피고를 자신의 가족처럼 보살피고 그들과 매우 친해 별로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래OO가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답답하게 죽음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무슨 도가 높은 스님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웠으며, 분명 래OO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구치소소장과 함께 잠을 자는 그를 깨워 면회실에서 사적으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제가 한 마디씩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무슨 말을 하든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울면 울수록 억제할 수 없이 되어, 나중에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만 멍해져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사형수인데 뭐 대단하다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우세요? 제 생명은 재미만도 못합니다. 왜 제게 그렇게 매달리세요?”

그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십년 전, 저는 군에서 휴가를 받아 동료와 함께 까요슁(高雄)의 다베호(大貝湖, 현재의 澄清湖)에 놀러 갔습니다. 오후 네시가 넘어서 저희들은 아주 예쁜 아가씨를 두 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났고, 저희들은 그들을 협박하여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차례로 강간한 다음 죽여 아주 은밀한 곳에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두 아가씨의 소지품을 모두 탈취한 다음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부대가 이동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나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지른 것이지, 제 친구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다음 친구를 찾아가 함께 자수하자고 했지만, 이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저 혼자 가서 자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늘 허공을 바라보고 이 두 아가씨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저를 용서해주길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로 참회하고 국법에 의한 형벌을 달게 받길 원하며, 목숨을 목숨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셨죠? 제가 이미 자료를 검토했는데 기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며, 1남2녀를 낳았습니다. 큰 아들과 큰 딸은 국립대학에 재학중이고 작은 딸도 성(省)여고 고3인데, 아마 내년에는 국립대학에 전액면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분명히 당신에게 뭔가 억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똑똑한 자녀들을 뒀는데 왜 전혀 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전혀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십년 전 까오슝의 관광지에서 두 아가씨를 살해했고, 이미 사망 원인도 분명합니다. 그때 제가 국법에 따라 형을 받아 마땅한데, 계속 구차하게 숨어 살면서 자신의 양심을 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의 딸 둘이 모두 강간을 당하여 살해되었습니다. 큰딸은 졸업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부주의하여 친구들과 떨어져버렸는데, 나쁜 놈들의 눈에 들어 일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둘째는 더 비참하게 죽어났습니다. 야간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집근처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 후미진 곳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몸이 토막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한 건가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의 딸을 쳐다보면, 제 두 딸이 생각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마 저희 집을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제 두 딸을 저의 죄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인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제가 죽인 그 두 아가씨가 절대 제 두 딸을 찾아오는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사형을 당해 속죄하길 원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 두 딸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과보를 받는 법,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교도관에게 그를 데려다 주라고 한 다음, 저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었고, 상대방도 너무 울어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바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동료들에게 더 깊이 조사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래OO가 사형집행판결을 받자 집안의 생활은 한 순간에 곤경에 빠지게 되었

습니다. 저는 래OO가 죽기 전에 그에게 “마음 놓고 가게”라고 말해줬습니다.

래OO는 매우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친구들로 하여금 회의를 열어 그의 아내가 조그맣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며, 세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매년 등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중 막내딸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 세 자녀도 이제 아마 오십대가 됐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 세 자녀가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 책임도 완수하였기에 다시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자녀는 그들 부친이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계속 마음깊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원한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후 언젠가 이 세 자녀가 커서 철이 들 날이 오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용감하게 현실을 직시해야지 피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 글의 래OO은 가명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엄성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으며, 사형 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OO의 자녀들은 매우 훌륭하므로 더욱 상처를 받게 해선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본명을 알든 모르든 아무렇게나 말할 권리가 결코 없습니다.)

저자주 1: 래OO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세통의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통은 가족에게, 한통은 까오슝의 같이 범죄를 저지른 친구에게, 또 한통은 한 동료 앞으로 썼습니다. 래OO 아내에 따르면, 그 까오슝의 동범자는 여전히 자수하기를 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가라오케에서 깡패들이 패거리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날아다니던 유탄에 맞아 사살됐다고 했습니다.

저자주 2: 래OO는 이 간간살해사건이 그 어린 동료의 소행으로, 피살자의 돈 역시 그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래OO 아내에 따르면, 이 동료의 모친은 과부로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다음 이 유복자 하나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료의 부친은 독자이며, 할아버지도 독자였으며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만 남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삼대가 모두 독자인 집안이라, 래OO는 어떤 후회도 없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저자주 3: 까오슝의 사건은 저희들의 관할이 아니라서, 더 상세한 조사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자주 4: 래OO의 세 자녀는 제게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왜 죽지 않을 수 없었나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는 젊은 동료의 일생을 구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야”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세 자녀들이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로 인해 깨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에게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들이



고통은 사랑을 정화시켜, 사랑으로 하여금 선물이 되게 합니다.

한 평생 동안 자신의 부친을 영광스럽게 여겨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자주 5: 래OO의 사건은 당시 물증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사건을 뒤집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래OO 자신이 살 생각이 없으므로, 신이라도 그를 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래OO는 자신을 위해 속죄하여 자녀들의 목숨을 보장받고 자기 동료의 명도 이룰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여, 죽는데 어떤 여한도 없었습니다.

저자주 6: 래OO의 세 자녀는 모두 제가 그들을 돕는 것이 단지 제가 그릇된 판결을 내린데 대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속죄행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자주 7: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황량일몽(17)을 누가 먼저 깨달으랴

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젠 공개해도 될테지요?

삼십여 년 전, 정부의 권력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정부최고 권력자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거 없는 귀신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풍수지리나 율회 등도 일체 언급할 수 없었으며, 어떤 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룽(基隆)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곳은 대규모의 변화한 항구로서,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나이트클럽, 술집, 커피숍이 꼭 들어서서 치안방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저는 유일하게 종교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나가면서 감히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휴식시간에 이상한 꿈을 꿉습니다. 한 아가씨가 어떤 건물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마치 공공기숙사 같아 보였으며, 아가씨의 뒤로 건물명과 주소가 쓰인 간판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심하게 울면서, 줄곧 애걸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면서 이 아가씨의 몸이 터지고 찢어지며 조각조각 났습니다. 비참해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17) 역자주: 황량일몽(黃梁一夢)은 가난한 노생(盧生)이 중국 한단(邯鄲)의 주막에서 도사 여옹(呂翁)에게 베크를 빌어 베고 잠이 들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꿈을 꿉는데, 깨어보니 아까 주막 주인이 짓던 조밥이 채 익지 않았다는 《침중기(枕中記)》에 나오는 고사.

저는 종종 꿈을 꾸는데, 대부분 이상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꿈들입니다. 그래서 잠을 깬 후, 그냥 그런 꿈이려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정말 그 광경이 너무 실제 같아져버렸고, 극도로 놀라서 점심휴식시간에 사무실에 남아 낮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기만 하면, 이 아가씨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나이 많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꿈은 누구나다 꾸는 거라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것은, 7일, 8일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건물명과 주소를 확실히 보았다고 하지 않았나? 동료들과 함께 가서 현장을 한 번 보면, 뭔가 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어?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대로 상상만 해?”

상사는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꿈의 일을 가지고 정식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주소대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건물이 보였는데, 꿈속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꿈속의 아가씨도 실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외관이 공공기숙사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경로를 통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꿈에서만 봤는데 무슨 공문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매우 예의바르게 이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

면, 이 건물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주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의를 갖추고 건물주에게 저희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현재는 처음 조사를 나온 것이라 아직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해 법률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사를 거절할 권리도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뜻밖에도 이 건물주는 아주 선량하여, 저희들을 도와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건물주에 따르면 이 건물은 계속 취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브로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취씨의 자료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에 의하면 취씨는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꿈에만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살짝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주인은 매우 협조적이어서 저희들과 함께 일일이 방을 한 칸씩 보여줬지만,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상부에 자초지종을 모두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꿈에서 본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물이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본 그 아가씨는 왜 보이지 않지요?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상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게. 인연이 익으면, 자연히 드러날게야. 그 아가씨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몸을 드러내지 않는 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아가씨가 분명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걸 풀려는 것 아닌가? 절대 내버려 두지 말고, 힘껏 추진해 보게!”

그러나 저는 이미 어떻게 다음 일을 추진해야할 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창피스럽게도, 이 일을 이미 반달동안 진행했으나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도 매우 미안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꿈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상사는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상하게 격려하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튿날, 저는 상사에게 남자 동료 두 명과 함께 현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주를 찾아서 그 젊은 아가씨가 혹시 지하실에 살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이 건물에 지하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건물소유증명과 설계도면을 가져와 저희들에게 이 건물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하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또 실망하여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에게 보고드릴 것이 없어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물었습니다.

“지하실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지하에 사람이 안 산다고 확신하는가?”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상사께서 하신 말씀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동료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우리 내일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한번 살펴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희에겐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1. 지하실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
2. 지하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인에게 거듭 한 칸씩 상세히 조사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통적 양식이었으나, 로비는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등 아주 우아하게 현대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 로비의 시멘트는 새로 바른 거야. 그런데 왜 로비만 바르고, 다른 방들은 이미 많이 훼손됐는데도 수리를 안했지?”

저희들은 주인에게 이 시멘트가 좀 문제가 있으니, 내일 사람들을 데려와 이 시멘트를 깨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소상하게 상사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를 바랐습니다.

상사께서는 친히 지시를 내리고, 정식으로 수색을 하도록 문건을 작성하고 저희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상사께서는 “그 시멘트아래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아마도 지하실 또는 보일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정식으로 법에 따른 공무집행으로 그 로비의 새로 깬 시멘트를 뜯고 한 사람 높이만큼 판 다음, 놀랍게도 양철로 만든 커다란 저장함을 두 개 발견했습니다. 이 저장함은 뚜껑이 덮여 있을 뿐 아니라 밀봉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주인을 모셔와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는 전혀 아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물건의 훼손을 고려해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그것을 개봉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저장함을 개봉했습니다. 믿지 못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은 고깃덩어리였으며 전혀 부패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법의와 조수들을 불러 와서 그것을 모두 꺼내 이어놓자 완전한 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머리만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토막살인범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미국으로 인민을

가버렸으니 저희들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사께서는 “우리는 아무 방법도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실로 그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살인범도 어쩔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살자 또한 누군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 지룡기관에서는 마약매매범을 검거하던 끝에 주요혐의범을 체포해 저희 쪽으로 넘겼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혐의범은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놀라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 머리가 나타나 날 죽이려 해요! 어떤 사람 머리가 나타나 날 죽이려 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사람머리는 저녁이 되면 꼭 나타나 공중에 날라 다니며 눈을 크게 뜨기도 했다가 혀를 길게 내뺌기도 하며 가래를 뱉기도 하고 계속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상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토막살인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니, 그를 데리고 냉동고에 가서 시체를 보여준 다음 그 건물로 데리고 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 그리고 그 건물주를 모셔다 앞의 건물주가 이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해.”

이 사람은 토막살인을 당한 다음 그것을 모아서 완전한 시체로 조합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더니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 그 사건현장에 가서 그는 더 놀라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이 토막살인사건은 과연 저절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 피해자의 머리로 단서를 따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꿈에서 본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댄서였습니다. 아가씨는 이 마약매매범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전체 사건은 이로써 한 단락 지워졌습니다. 이 살인범은 마약매매와 토막살인을 저질러,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 재심을 거쳐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꿈을 빌어서 가르쳐 줘 푼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죄는 주도면밀하게 어떻게 행해지든 반드시 단서를 남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활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되며, 항상 몸으로 법을 행해야 한다.”

“당신이 아는 것은 하늘도 반드시 알고 있다. 당신 스스로 모르게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저자주 : 본문의 내용은 공무집행상의 정식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도는 육신되어 귀신을 부리고

타이중시 민첸로(民權路)에 화재가 발생하자 많은 주변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 부인은 화재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달려 나와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다시 화재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 부인은 다시 화재현장에서 뛰어 나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또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또 몇 분 지나지 않아, 이 부인은 화재현장에서 뛰어 나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화재현장은 심한 화재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약간만 다가서도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인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빨리 잡으세요, 빨리 붙잡아요!”라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두세 명의 소방대원이 급히 앞으로 가서 부인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꼭 붙잡았습니다.

‘팍!’하는 소리와 함께 이 부인의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목의 살과 뼈가 분리되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팍!’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부인은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의 머리카락이 전부 재로 변하였고, 순간적으로 흩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인의 옷도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응급구조요원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지자, 이 부인의 살이 이미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화재현장에서 익어버려 한 군데도 산 사람의 살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불쌍한 엄마는 자신의 자녀를 구하다 이렇게 희생된 것입니다.

법익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부인이 화재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당신들에 의해서 제지당했다고 말했나요?”

소방대원들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틀림없어요!”

법익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익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펴 수가 있죠? 그는 이미 불에 익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뒤에 현장을 정리하며 불행하게도 한 어린이가 불에 타 죽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둘러선 관중들과 소방대원은 모두 자책했습니다. “당시 왜 부인을 막았어요? 오히려 다시 못 들어가게 막아서 마지막 한 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미 부인은 타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다시 들어가도 별 상관없는데!” 이 때,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처음 화재현장에서 뛰어나왔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한번, 두 번 또 들어가려 했어요. 그 부인은 두 아이를 구했는데 정말 죽었나요? 그녀는 정말 죽은 사람인가요?”

부인이 구해낸 아이들은 모두 뜨거운 불 속에서 구해냈으나, 모두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낸 걸까요?

머리카락과 옷이 모두 불타서 재로 변했으면서, 왜 쓰러지기 전에는 처음과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의문들을 오로지 푸른 하늘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

두 아주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매우 비과학적이니까요.



천하를 돌며 산부처를 찾아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가 바로 산부처임을 깨닫는다.

-천화천(陳火泉)¹⁸⁾

18) 역자주: 천화천(1907~1999년)은 타이완의 유명한 작가로서, '문학교행승'으로 불린다. 일생동안 많은 신문에 무수한 글을 연재하고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과 참신한 문장력으로 여전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의 묘사로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며, 주요 저서로는 《悠悠人生路》, 《青春之泉》, 《個性的發揮》 등이 있다. 그의 저서는 '암흑 속의 등잔불'로 평가받으며, 많은 학교의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진실은 환영처럼 따르고

한 하수구가 막혀 심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마치 뭔가 죽어 썩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죽은 고양이나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 습관상 고양이가 죽으면 나무에 매달아 놓으므로 죽은 고양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분명 죽은 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찾아야 막힌 하수구가 뚫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수구의 구멍에는 온갖 것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건 구더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간이 커서 머리를 들이대고 주시하더니, 얼른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뼈가 한 무더기예요, 사람같아요. 살은 모두 물 속에 떨어져나간 것 같아요.”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현장이 파손될까봐, 경찰은 바빠 현장을 둘러쳤습니다.

마침내 범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머리에도 캡을 썼습니다. 이 하수구는 구멍들이 복잡하며 많은 쓰레기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이 범의는 저희들의 설록홈즈로서 경험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지럽게 널린 뼈들 앞에서 그는 어이가 없이 그저 고개만 흔

들었습니다.

법의는 “분명히 남자예요, 중년이구요”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습니다. 법의는 일단 시체실로 옮긴 뒤 다시 연구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서 어떤 노력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 니다.

이 사람은 피살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주의하게 빠져버린 것일까요? 이 렇게 씌어버렸는데, 과연 어떤 원한도 없는 것일까요?



약 8개월 후(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 람이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파출소를 찾아와서, 경찰에게 그를 좀 구해달라 고 이미 사람꼴이 아니니 자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물은 다음, 그날 저희 수사청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열 달쯤 전에 친한 친구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저희들은 복권 을 같이 샀는데, 거금에 당첨되었습니다. 원래는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제가 당시 돈이 급한 나머지 상대가 가질 그 나머지도 제가 먼저 써서 숨을 돌린 다음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 실 그는 이미 회사사장으로 이 당첨금 정도는 별거 아닌데도, 그는 매정하 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만취했을 때, 하수구 쪽으로 데려가 그 구멍에 밀어버리고 돌을 가져 다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수위가 올라가자 그는 거기에 잠겨 죽었고, 시체 도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데 왜 스스로 자수하러 온 거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수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우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심각한가요?”

상대방은 또 대답했습니다.

“심각하다 뿐인가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또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해한 다음부터 제가 어딜 가든 많은 사람들은 누가 저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면 분명 제 혼자인데도 표를 검사하는 사람은 표 두 장을 보자고 했고, 기차를 타서도 옆 사람의 표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 저 혼자이고 옆에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제 옆에 앉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제 혼자 먹는데도 식당주인은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택시를 분명히 혼자 타도, 기사는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들도 제 옆에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그도 옆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이러니 제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목욕을 할 때도, 욕실에 항상 제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서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거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사람은 아주 겁에 질렸습니다. 저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렇게 힘들게 반년을 지내자, 이 사람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저는 두 눈에 환각이 생기면서 실제와 환영을 구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러

플랫폼에 올라가서, 기차를 타려고 하면 저는 플랫폼의 열차궤도에 쓰러지게 됩니다. 철도경찰은 달려와서 저를 붙잡습니다. 저는 방금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보이지 않지요? 저는 연달아 몇 번이나 환각으로 인해 밥을 헛디더 열차궤도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실제와 환각을 구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앞에 분명히 큰 길이 있어 가다보면 큰 강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때는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길옆의 하수구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미 두 눈이 보는 것이 실제인지 환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구더기 한 마리가 밥그릇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정말이지, 저는 이미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법의 처벌을 달게 받길 원합니다.”

저는 듣고 나서 매우 불가사의했지만, 정말 하늘의 그물은 눈이 굉장히 넓어서 성근 것 같지만 악인은 결코 빠뜨리지 않나 봅니다.

뒤에, 저희들은 그를 데리고 현장으로 가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줄곧 이 살인사건을 도대체 누가 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일까요? 그는 이미 피살되었습니까? 이미 썩어서 뼈조차 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 것일까요?



악을 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하고

선을 행할 힘을 가지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 한다.

저자주 1: 피고는 피살자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시체에 있는 썩은 구더기를 한 마리씩 모두 씹어 먹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주 2: 피살자가 피고에게 붙어 따라 다닐 때, 사람들은 모두 봤으나 피고만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 속의 구더기는 오히려 피고만이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동창이 간암에 걸려, 타이완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삼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살펴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그를 보러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최근에 그의 병이 악화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마 혼자 병실에 있다 보면 마음도 점점 가라앉을 것 같아서, 저는 휠체어를 밀고 1층 정원으로 데리고 나와서 바람을 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끌고 병실을 나오는데 친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000호실 환자 000하고, 000호실 환자 000가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오늘 오후 5시쯤에 날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려가면 그들이 와서 날 못 찾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간호사에게 말해두면 되잖아.”

저는 병실과 환자이름을 당직 간호사에게 써 주고 만약 우리가 너무 늦게 돌아오면, 대신 좀 전해달라고 말하니 간호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십분쯤 걷다가, 제 친구는 그들이 기다릴지 모른다고 계속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는데, 간호사가 저를

부르며 환자를 병실에 데려다 주고 빨리 간호사실로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매우 겁에 질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제게 써주신 병실과 환자이름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은 삼년 전 사망했고, 또 한 분은 오년 전 사망했습니다.”

저는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친구에게 말합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 친구는 이미 그 친구 등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해할 수 없어서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현대식의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의사는 제게 손짓을 하며 입구로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아마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서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제게 방금 의사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한 마디도 묻지 않았고, 제게 “날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그의 목숨이 4주도 안 남았는데,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당연히 들어주

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내가 정원에서 꽃을 쳐다보고 있었어. 어느 부인이 병이 아주 심각한데, 이미 병을 고치느라 있는 돈을 다 써 버렸나봐. 다음 달, 세 아이들이 급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대. 나에게 돈을 좀 빌려서 세 아이들에게 보내주길 바래. 주소는 000000이고, 이름은 000야.”
저는 주소와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돈을 가지고 주소에 적힌 부인과 그의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이사 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을 아는 사람이 없나요?”

그는 제게 아주 상세히 적어 줬습니다.

저는 얼른 새 주소로 찾아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000여사 집에 계신가요?”

“그 분은 제 어머니예요, 근데 육년 전에 타이완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세요?”

“제 동창이 타이완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님과 친분이 있어서 어제 오후 어머님께서 제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다음 달 세 아이들이 급히 등록을 해야 되니, 저더러 급히 돈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세 명의 이름이 000, 000, 000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입니다. 그러나 저희 셋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 동창이 실수 했나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다시 제 동창에게 갔습니다. 그는 매우 급해

서, 줄곧 제게 돈을 갖다 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일을 다 잘했으니 안심해.”

그는 말했습니다.

“날 좀 도와줘, 내 대신 아래 정원에 가서 그 부인에게 안심하라고 좀 전해.”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 네가 만나면 직접 얘기해!”

저는 정말 그가 이승에서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죽은 지 삼년, 오년 심지어 육년이 되어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제 동창이 죽는다고 정말 죽는 거겠습니까?

저자주 1: 제 동창은 의사의 진단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장터로 가서 화장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는 사역(대만 화폐)의 재산을 미국에 있는 처자식에게 남기고, 자신은 자그마한 대리석으로 만든 납골관과 영골탑 안에 조그마한 안식처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생을 고생해도 이렇게 작은 것만 얻는다면, 정말 그런 많은 일을 해서 자신의 복과 수명을 깎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것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비참하게 죽는다면요.

저자주 2: 죽음에 처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저승의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와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일단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정말 끝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저자주 3: 제 동창은 줄곧 저더러 쓰레기 줘는 거지아줌마라고 놀렸습니다. 그의 생활은 극도로 사치스러워 인간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동창에게 스님께서 불가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고, 남들이 입지 않는 것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제 삶이 매우 낡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일생 번 돈 중에 매달 받는 월급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천지의 돈이라고 여겨서 반 푼도 제 몸에 써본 적이 없으며, 전부 불보살님과 신, 그리고 천주교의 성모마리아를 청하여 천지간에 고생하는 육도중생을 돕는데 썼습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제 대학동창은 매우 돈이 많았지만, 단명했습니다. 제가 불가의 제자임으로, 그의 가족들은 매년



집이 망하는 데는 사치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으며,
 사람이 망하는 데는 게으름이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데는 교만이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다.

-중국번¹⁹⁾

그들의 장례를 치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자주 4: 저는 그 부인의 자식에게 이사를 가면 엄마에게 알려드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는 “저희 엄마가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에게 얘기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는 영원히 자식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또 “그러면 저희가 어디 가서 엄마를 찾아 이야기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람은 죽지 않고, 다만 다른 세계로 갈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얇은 막 한 층으로 나뉘지만, 여전히 같은 지점에 있어서 멀게는 하늘만큼이나 멀지만 가깝게는 아주 지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주 5: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대해선 안 됩니다. 당신의 육안으로 보이든 안보이든 상관 없이, 상대방은 틀림없이 살아있으며 당신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돼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곧 죽음을 맞이할 친구들이나 가족이 그들과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에도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9) 역자주: 중국번(曾國藩 :1811~ 1872년)은 청나라 말기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다. 태평천국을 진압한 지도자이며,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의 추진자이다. 주자학자이며 유명한 문장가로서, 주요 저서로는 《증문정공전집(曾文正公全集)》이 있다.



살아서는 뛰어나고, 죽어서는 영험하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고모부님께서는 손꼽는 유명한 서예가로서 좌선과 연단의 고수였으나, 그도 나이가 들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그의 시신을 잠시 영안실에 모셨다가 장례식때 다시 모셔 오려고 했습니다.

고모부님의 시신이나 장례에 대해 관심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모부님의 유품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 다투어 그의 작품을 가져가버려 완성작이든 비완성작이든 모두 동이 나버렸습니다.

고모님에게는 고모부님이 가장 소중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모부님이 아니라 고모부님의 값나가는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모님께서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면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듯, 아무도 고모님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고모부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불러들여 장례식장에 참석한 단체나 개인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자신 남편의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 수도 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위원회는 마침내 장례식을 거행할 날짜를 정하고, 고모님께서 정각에 고모부

님의 시신을 반드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해 오도록 알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고모님께서서는 영안실로 가서 목욕과 화장을 담당하는 관리원에게 고모부님의 시신을 찾아서 해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체 시체를 뒤지고 또 뒤졌지만 고모부님의 시체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으나 전혀 캄캄 무소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만일 정말 못 찾으면, 저희가 비슷한 시체를 한 구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당신들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가져갔나 봅니다.”

이때 많은 시골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오후 추모식을 치러야 하는데, 아침부터 여태까지 못 찾았으니 말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원은 말했습니다. “저 구석에 시체는 남부의 이름 없는 건달로서 총살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구석에 놔둡니다.”

그 관리원은 계속해서 찾으면서 시골사람들에게 확인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관리원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족분의 나이와 생김새로 봐서, 만약 실수를 했다면 아마도 현재 OO실에서 추모식을 거행하는 000중앙민의대표(中央民意代表)일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런 성대한 추모식은 본 적이 없는지라,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 시골사람들을 따라 OO실로 가서 추모식이 끝나길 기다렸다 함께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쨌든 고모부님의 시체를 잃어버렸으니,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너도 같이 가서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장은 매우 호화스럽고 넓어서,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같이 갔던 시골사람들도 거의 낮이 빠졌습니다. 앞에는 총통, 부총통이 계셨고, 이어서 5개 원의 원장과 각부의 우두머리와 중화민국국민대회대표, 입법위원, 검찰위원, 각 지방의 시장과 민의대표 등 마치 모든 관원이 다 모인 듯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마침내 긴 고별행사가 끝났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방금 인산인해를 이뤘던 사람들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원은 이 식장의 가족들에게 온 의사를 밝히고 시골사람들을 모시고 들어가 자세히 시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영안실의 관리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방금 구석에 방치했던 시체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이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거예요!”

관리원들은 시골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체를 상가로 이송할 때는 매우 조심합니다. 오늘 공장을 치르시는 분은 중앙민의대표이니 틀림없이 정의로운 기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이 구는 매우 존경스러운 기품을 지니셨고, 다른 구는 아주 가벼운 것이 필시 건달이나 부랑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를 오늘 식장으로 이송했던 건데,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매우 이상하고도 놀랐습니다. 중앙민의대표로 오인 받아 진정 문무백관의 경례를 받고 추모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아무런 뛰어난 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시골사람들은 “죽어서도 정말 대단하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모부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도 손꼽는 어르신인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친한 친구 대신 감방에 들어가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셨습니다. 마침내 기간이 만료되어 세상에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요. 감방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로 하여금 처세의 이치를 깨닫게 도와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거늘’이라는 말처럼 됐답니다.

그는 의연히 당시 그가 이룬 것을 모두 버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며 매일 사람들에게 땅을 고르고 농사지어 주며, 자신의 피땀으로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시골사람들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외부의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으로서 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누군가 마을의 어느 초등학교를 납치해 엄청난 거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납치범을 찾아내 이 학생을 구했습니다. 그는 돈가방을 가지고 가서 아이와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납치범은 그 돈이 가짜인 것을 알고 총을 쏘 죽였습니다. 그가 숨이 겨우 붙어 있을 때, 저희들은 황급히 타이베이로 모셨습니다. 큰 병원이라 목숨만을 건질 수 있길 바랐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했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저희 모든 마을사람들의 수호신입니다. 저희들은 그를 위해 아주 좋은 묘지를 사서, 마을에 사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관광버스를 대절해 추모식에 참석하여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마을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것일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저자주 1 : 만약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영안실의 작업방식으로는 시체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자주 2 : 인생은 후반부를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들은 아마도 수궁할 수 없을 지도 모르나, 관을 닫을 때 미간에서 피어나는 정의감이 사람을 경탄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사람이 바로 대수행자가 아닐런지요.

저자주 3 : 그는 임종 때 거둬 형제들에게 그를 위해 복수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의 적지 않은 생사원한이 이로써 한꺼번에 풀린 거지요.

저자주 4 : 어떤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산사람 같습니다.

저자주 5 : 천하에 우연은 없어서, 존재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의 성대한 추모식은 이 분이 받아도 전혀 손색없는 것이기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평생 의리를 지켜온 어르신에게는 아마 유사이래 최고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천지는 묵묵히 술한 말을 남기고

신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두 손을 뒤로 묶고 바다에 빠져 자살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어떤 유품이나 유서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몸에서 신분증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안실에서 냉장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일이 지나자, 저희한테 등기우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유서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위탁부문의 사기수작을 이겨내지 못해, 어찌할 방법이 없자 물에 빠져 자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며칠 전 바다에 빠져 자살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건설회사대표와 사장부인과 연락을 취하여 사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어느 성(省) 여중의 도서관과 과학관의 신축공사를 맡아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중의 주임은 이 건설회사 사장님과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불렀습니다. 만약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지은 건물들을 모두 뜯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준공검사 통과여부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라 그 권한을 손에 움켜쥔 주임은 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죄를 씌우려 하면, 무슨 잘못이든 없으랴?”라고 했는데, 정말 뭐든 책

을 잡으려 든다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도서관과 과학관을 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전체가 투입됐으니, 만약 뜯어낸다면 투자했던 모든 것이 쓰레기로 내버려지고, 또 많은 인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비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몇 배의 계약위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죽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듣고 나서, 매우 속상했습니다. 또 이 공공기관 주임의 막대한 권한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주임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임은 그는 공사(公事)를 공적으로 처리하니,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다면 틀림없이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측과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사장님이 이미 죽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유서가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 또 보더니 매우 화를 냈습니다. 왜 회사측이 자신을 모함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엄격하여, 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긴 했으나, 그를 상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님은 죽었고, 이 주임이 무슨 말을 해도 저희들은 어떤 증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도서관과 과학관도 준공검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건설회사도 주임이 절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미 치안기관에 그의 부정행위를 고발해, 이미 주임의 눈에 거슬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한 태풍이 타이완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입었으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대지진까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오래된 건축물들이 파괴되어 사람들의 목

숨을 앓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지은 도서관과 과학관이 이 재해를 피해갈 수 있을까, 왜 준공 검사 전에 태풍에 대지진까지 겹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열 시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성(省) 여중에 어떤 사람이 태풍에 쓰러진 철판에 부딪혀 땅에 쓰러져 구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응급차를 파견하여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중년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것이 정전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구급상자를 풀어 전등을 비췄습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가 반으로 잘려져 머릿골이 바닥에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구조요원들은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흘러나온 것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임이?”

학교담당자는 저녁에 태풍이 불자 주임이 순찰을 돌면서 교실창문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곳은 안전한지 살펴보다가 바람에 불려 내려온 지붕의 커다란 철판에 머리를 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판은 양철로써 지붕을 덮기 위해 만들어져 아주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법의는 시체를 검사한 다음, 영안실에 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준공검사전에 태풍이 불고 대지진이 나서, 주임의 머리가 이유 없이 철판에 부딪혀 귀에서부터 반쪽으로 잘려 나갔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틀림없이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그 건설회사사장님이 물에 빠져 자살했다고 해서 정말 죽은 줄로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과 혼백도 같이 죽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선량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손이 끊겨야 마땅하지요.

준공검사를 하는 날, 교장은 매우 공정하게 전문감정사와 건축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하였고 결국 통과했습니다. 특히 심한 태풍과 대지진을 겪으면서, 그 시공재료가 어떤 착오도 없었음을 자연적으로 증명해보였던 것입니다.

그 건설회사사장님의 부인과 대표 등 고급간부들은 모두 저희 치안기관의 정의로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드시 국가의 법률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 한 단락 지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중년부인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省) 여중 그 주임의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료를 청해 함께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죽자, 가게는 갑자기 곤경에 빠져 심지어 장례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매우 슬프게 울먹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주임을 지내면서 번 돈은요?”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모두 도박에다 썼을 걸요?”

저는 듣고 나서,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임은 수입이 좋지 않

나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저는 즉시 저희 직장에서 3개월치 월급을 빌려서 일단 장례식을 치르라고 건네줬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세 아이들(2남1녀)을 데리고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당시 사실 저 역시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원래 박봉인데다가,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길 좋아해서 여기저기 쓰다 보면, 거의 돈을 빌려야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상사께 말씀드려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을 찾기 전까지 제가 매달 먼저 좀 도와드리죠. 어때요?”

부인은 줄곧 울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뒤에, 저희 상사는 부인을 부근학교에 취직시켜줬습니다. 월급은 그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고, 기숙사도 제공하니 좀 힘들더라도 세 아이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세 자녀는 키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차하면 병이 나곤 해서 제가 돈을 적지 않게 갖다 부었습니다. 이 불쌍한 가정을 돕기 위해, 저는 한 신문에 원고를 연재하기도 하고 세계명작을 번역해 출판하는 등 매일 밤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십년 후, 이 사람에게 별 받았던 가정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 집안사람들과 오래 전에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모두들 이 세 자녀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나쁜 사람이 낳은 자식이니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옛말에도, “용은 용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는 법, 쥐가 낳은 새끼가 구멍을 뚫을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형벌은 당사자에게만 내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인품이 좋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잘못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이미 죄과를 단단히 치른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자녀를 많이 아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입장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의 자녀일수록 그들을 더 잘 교화시켜야하는 거 아닌가요? 속담에도 썩은 대나무에서 좋은 죽순이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 고객은 한 건물을 사무실로 쓰려고 저와 함께 건설회사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이 설계한 대로 시공해주길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공사현장에 가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건설회사의 접견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공사장주임을 찾아 저희에게 건물설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공사장주임이 왔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당신이세요!”

저는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省) 여중 주임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 000입니다.”

저는 생각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상대방은 바로 어머님과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택시타고 빨리 오라고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75~80세 사이의 노부인이 오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자 약간 낮이 익은 듯도 했지만 역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계속 주시하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만 흐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녀들이 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이 공사장주임이고, 둘째는 방송국에서 미술설계를 맡고 있고, 막내는 은행직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휴일을 이용해 그들과 함께 동물원과 놀이공원에도 가고, 방학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이미 모두 다 커서 결혼해 사회적 지위도 겸비한 중년이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 정당한 직업도 갖춰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부인께서는 제게 이 세 자식들이 매일 산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저를 위해 삼궤구고(三跪九叩)의 예를 갖추고 향을 올리며, 당시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 불치병을 하늘에서 보살펴주시길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데가 많아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한 일 주일 지나서, 이 부인께서는 공휴일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노부인은 손자들과 사위, 며느리까지 모두 불러서 제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발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했습니다.

저는 한 평생 매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작게나마 의지할 곳 없는 비참한 가정을 도왔으나, 저는 이들이 뭔가 값기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뭘 했는지조차 잃어버립니다. 저는 제가 할 도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늘어져야 합니까.

저는 그들이 과거의 일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길 바랍니다. 값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은 신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깐요.



분수를 아는 것만한 편안함이 없으며,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바라지 않는 것만한 고귀함이 없으며,
욕심이 많은 것만한 비천함이 없다

- 고충현²⁰⁾

저자주 1 : 하늘과 땅은 말을 하지 않지만, 묵묵히 술한 말들을 남깁니다.

저자주 2 : 천지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속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20) 역자주: 고충현(高忠憲 1562~1626)은 중국 명대 유학자로서, 만력(萬曆) 17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대리사(大理寺), 행인사(行人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주역간설(周易簡設)》, 《춘추공의(春秋孔義)》, 《고자유서(高子遺書)》 등이 있다.



살든 죽든 친가족

타이난 어머니님 제 대학동창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타이난에서 기자생활을 할 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그분도 친어머니라고 생각되어, 그분의 큰딸을 큰언니로 섬깁니다.

큰언니는 타이난현의 연꽃마을에 계십니다. 형부는 사냥을 좋아해 명메이커의 유산탄총을 세 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 서독, 프랑스, 영국산이었습니다. 기르고 있는 여섯 마리의 사냥견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종자였습니다. 타이난에서 일할 때 공휴일이나 시간만 나면 동창과 함께 형부를 따라가서 닭, 토끼, 산비둘기, 참새 등을 잡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그 동물들을 잡아 내장을 꺼내는 것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큰언니의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형부가 사냥하러 다니는 것을 매우 반대해 늘 충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생하는 잔인한 놀이는 하지 말아라. 봐라, 어린 처제도 놀라서 울지 않니? 생각해 보렴, 나무에 앉아 있던 새가 총알을 맞고 땅에 쓰러져 죽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살생하지 않았으며, 피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쓰러진 작은 새들은 머리에서 피가 나서 뇌가 다 튀어나오거나, 배가 찢어져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사냥견이 사냥감을 찾아 초원에서 영웅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사냥감이 사냥견의 전리품이 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심정은 큰언니의 시어머님과 저나 거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친구는 어느 보안기관의 고급간부로서 공무상의 일로 인해 매일 술을 마셔서 늘 곤드레만드레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난아버님은 원래 매우 과음하셨고, 신 넷의 어느 날 연회에서 과음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벽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타이난어머님께서서는 아들이 일 때문에 과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지만, 제 친구는 오히려 “사람이 속세에 사니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며 매일 밤 과음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속에 품고 사는 이런 고통을 누구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타이난어머님께서서는 큰언니의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두 분이 내심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같이 집을 나가서 이 말 안 듣는 아들이 어머니를 찾지 못해도 과연 그들이 습관을 안 바꿀 터인지 한 번 살펴보기로 걱정하셨습니다.

큰언니는 모두 들었습니다만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8시가 넘었습니다. 큰언니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형부도 출

근시키고 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큰언니는 타이난어머님께서 집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큰언니는 깜짝 놀라서 “엄마!”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타이난어머님은 아주 신비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님도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큰언니는 얼른 뒤쫓아 가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점심 때 오셔서 식사하셔야 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개도 뒤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점심때, 큰언니는 식사를 모두 준비해놓았고 반찬이 다 식었는데도 두 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렸을까봐 친지들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전혀 무소식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제 친구에게 급히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 일찍 시어머님을 찾아와서 같이 밖에 나가셨어,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아니?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고, 주변 친구분들과 친척들에게도 여쭙았는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 큰일 났어!”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나, 어머니께서는 오늘 새벽 4시에 돌아가셨어, 내가 오전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전화가 안 되더라구.”

큰언니는 울었습니다. 일이 뭔가 이상하다싶어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 방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시어머님께서 침상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범의는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 오전 8시가 넘은 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 타이난어머님과 큰언니의 시어머님은 같이 집을 떠나가셨습니다.

큰 형부는 이때부터 사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메이커의 총 세

대도 모두 경찰서로 넘기고 사냥견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는 승진할수록 당연히 술을 마셔야하는 자리도 많아져서 음주량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정말 세간에 사니 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타이난어머님과 큰언니의 시어머님께서 약속하여 어디로 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까오슝(高雄)에서 보통 4시간이나 걸리며 두 번이나 차를 갈아타야하는 먼 길을 어떻게 차를 타고 타이난 바이허(白河)로 가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과정에 있지 결과에 있지 않다



지중해빈혈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지중해빈혈이란 무엇인가?

혈액에 의한 유전병에 속하며 탈라세미아(thalassemia)라고도 부릅니다. 헤모글로빈쇄(hemoglobin chain) 유전자의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 혹은 결손 때문에 헤모글로빈쇄의 합성률이 아주 저조하거나 전혀 합성되지 않아, 결국 적혈구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거나(소적혈구증, microcytosis) 불안정한 헤모글로빈쇄의 결합물이 형성되어 적혈구가 쉽게 파열되고 그 수명이 짧게 됩니다.

지중해빈혈의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는 α 와 β 타입이 있습니다. α 지중해빈혈의 경우, α 헤모글로빈쇄는 합성기능저하 혹은 결손을 보이나 β 헤모글로빈쇄의 합성은 정상적입니다. β 지중해빈혈의 경우, β 헤모글로빈쇄는 합성기능저하 혹은 결손을 보이나 α 헤모글로빈쇄의 합성은 정상적입니다.

지중해빈혈은 지중해연안인 이탈리아, 그리스,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밖에, 중국의 양자강 이남이나 동남아시아역과 타이완에서도 발견됩니다. 타이완 인구의 4%가 α 지중해빈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2%가 β 지중해빈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유전자 자체의 음성유전병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유형의 지중해빈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임신할 때마다 그 자녀 중 1/4이 정상, 1/2이 유전자를 가지게 되며, 1/4는 중증 지중해빈혈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서 유전학적으로나 출산전 검사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α 지중해빈혈

태아가 만약 중증 α 지중해빈혈을 앓고 있다면, 태아는 α 헤모글로빈쇄(α -hemoglobin chain)를 완전히 만들 수 없어 자궁 내에 심한 용혈, 빈혈현상과 함께 조직내 산소결핍을 동반하게 됩니다. 약 임신 20주 이후 태반비대, 태아의 간장종대나 비장종대 혹은 복수, 흉수, 전신피부수종 등을 일으켜, 태아수종(hydrops fetalis)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아는 α 헤모글로빈쇄를 합성할 수 없어, γ 헤모글로빈쇄가 자체적으로 γ_4 의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트헤모글로빈(Hb Bart's)이라고 부릅니다. 중증 α 지중해빈혈을 앓아 수종을 동반한 태아는 임신말기 자궁 안에서 사망하거나 출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장의 발육불량, 심한 빈혈과 산소부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산모는 간질발작의 전조증상을 보이거나 산모간질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밖에, 태반이 극도로 비대해져서 산전출혈이나 산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많은 산모들이 출산시 제왕절개를 하거나 자궁절개와 함께 대량의 수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임신초기에 중요한 검사 중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 β 지중해빈혈

태아시기 β 헤모글로빈쇄(β -hemoglobin chain)의 점유율은 낮기 때문에, 중증 β 지중해빈혈의 태아는 출생시 정상아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 3~6개월 때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육이 정지됩니다. 오직 장기적 수혈이나 골수이식수술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혈은 처음에는 매월 1회, 이후에는 체중의 증가에 따라 그 빈도도 증가하여 매주 1

회 혹은 그 수혈량을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수혈에만 의존한다면 보통 수명은 열 살 정도입니다. 최근 타이완에서는 비록 인공철분배출(iron chelation, 철 킬레이트화)방법을 사용하여 체내 철분의 침전을 감소시켜 주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주사할 경우 환자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골수이식방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비용이 많이 듭니다.
2. 적당한 골수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3. 이식 전 방사선에 노출되며, 이식 후에는 항면역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4. 타이완의 골수이식 성공률은 50~6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아를 출산한 후에는 막대한 후유증이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소책자는 제가 육십여년 동안 지중해빈혈의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그 과정을 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병을 앓는 환자 중 성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비록 몇 번이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물 여덟이 되어서야 진정한 성인으로 발육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가장 독하다고 하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했기 때문에, 남은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미 육십갑자를 넘어서서 지금 죽는다고 해도 요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가정을 가지고 직업도 가졌습니다. 혈액의 독소를 없애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일찍이 임신 때 빈혈과 산소결핍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교훈을 따라 다섯 명의 자식을 키워 모두 국내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희 일가는 겸허하게 종교신앙을 받아들이며 주변 친지들이 부러워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께 감사드리며 제 마음속의 산부처이신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소책자가 책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일행자선의 집 전체 식구

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밤에 모여 해가 뜰 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드릴 분은 타자를 맡아주신 까오선(高森)회사의 홍차오링(洪巧齡)씨입니다. 그녀와 저는 전혀 앞면이 없는 사인데도 성심껏 모든 원고를 도맡아 주신데 이렇게나마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책자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밝은 인생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할 따름입니다.



부록:

유태인의 물고기

유태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를 누리며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천지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없는 유랑아가 되어, 세계 각지를 떠돌며 다른 민족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도 매우 평안하게 많은 재물과 복을 누리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모세시대부터 독실한 종교신앙을 가지고, 우주에 최고 권능의 주재자가 있음을 믿으며 이 주재자가 곧 천지의 주인이며 세상사람들을 구할 구세주라고 여겼습니다.

유태인은 신의 사자가 메시아이며, 예수그리스도의 강림이 바로 전설속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현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유태인들은 삶과 죽음의 귀로에 선다거나 큰 재난을 당하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구세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공손히 기다립니다. 그들은 문 앞이나 바닥에 평안과 길조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분필로 그려 그들이 구세주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이 물고기에는 현묘한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태인이 로마인의 폭정에 짓밟혔을 때, 로마인들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거나 구세주를 찾

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태인들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Ἰησοῦς 그리스도 Χριστός 천주 θεοῦ
천주의 아들 Υἱός 구세주 Σωτή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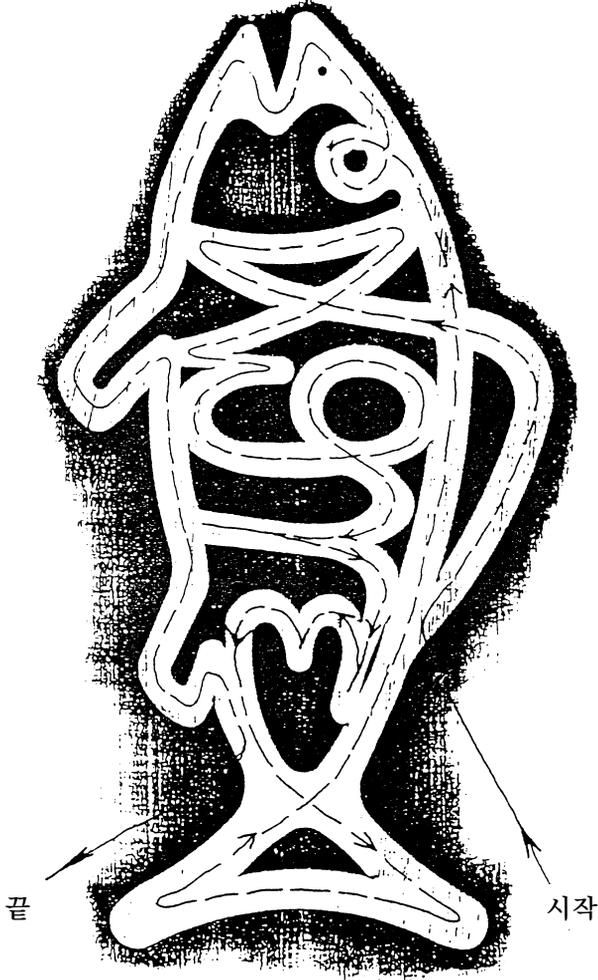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이들 신호의 첫째 기호를 따서 정렬하면, I, X, θ, Υ, Σ로써 합하면 IXθΥΣ 즉 물고기가 됩니다.

유태인들은 이 평안과 길조를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틀림없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행자선의 집에서는 각계각층에 계신 환우들을 돕기 위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종교언어를 연구해 오신 철퍼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려, 고대 유태인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오던 암호인 평안과 길조를 가져다 주는 물고기그림을 다시 정리하여 단숨에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마다 더욱 순조롭게 결실을 맺고 항상 평안하도록 기원합니다.

유태인들이 진귀한 보물로 받드는 이 평안의 물고기가 여러분께 평안과 복을 가득 넘쳐나도록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길상유여(吉祥有餘)



평안유여(平安有餘)

부록: 유태인의 물고기

번역을 마치며

작년에 아는 선생님께서 우연히 어떤 분의 자서전이라는 말씀과 함께 책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바쁜 일상에 쫓기며 그냥 책꽂이에만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엔 복잡한 고민들로 가득 찬 채 책상머리에 앉아 우두커니 책꽂이만 바라보던 중, 이상하게도 시선이 노란 책 한 권(원서는 책표지가 모두 샛노란 색임)에 멈췄습니다. 저는 다가가 책을 펼쳐 들었고,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법에 걸리기라도 한 듯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마치 ‘어머니’를 뵈듯한 자상함과 포근함을 느끼며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겪은 글쓴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체험에 놀라며 잇달아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제목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명은 자신이 조금씩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지만 절대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어서, 수명장수란 나와 남의 화해, 이승과 저승의 화해와 화합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스런 결과물임을 밝히고 각종 화해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매일 많은 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환자나 모든 치료를 약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약이나 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결과물이라는 것

을 입증해보인 이 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글은 원래 글쓴이께서 자신과 같은 지중해빈혈증환자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병상에서 원고를 집필하신 것을 출판한 것입니다. 책이 나오자, 환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길 원해 십시일반으로 출판비용을 대어 수차례의 재판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저 또한 우연히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 원고를 집필하신 글쓴이와 일행자선의 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접하시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해년 추석

북경에서

인쇄 후원자 명단

중국천홍광전기주식회사 中國宸鴻光電科技股份有限公司

대만66마스터빌딩천홍테크놀로지그룹 台灣六六主控大廈宸鴻科技集團

중국불교회 타이베이산중 일행자선의집 台北三重一行慈善之家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쇄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아래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여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 온라인 계좌: 하나은행 295-910085-36707 오현정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7-2
- 전화: 031-955-1321
- 팩스: 031-955-1322
- 이메일: makenpo@hotmail.com